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56 1982년 2월24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Wednesday, February 24,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온」주 자유당 전당대회
새지도자에 피터슨의원
"목표는 고용증대, 중도 지향"

온타리오주 자유당은 21일 새 지도자로 38세의데이빗·피터슨 주의원을 뽑았다.
런던 지역 선거구 출신인 피터슨의원은 2차 투표에서 쉐일라·콥스 여의원(29)을 1,136표대 744표로 눌러 과반수를 획득했다.
3위는 주의원이 아닌 리차드·토마스(50)씨였다.
피터슨의원은 76년 지도자 선거전에서 45표 차이로 오·스튜왓·스미스박사에게 패배, 이번 두번째 도전에서 승리한 것이다.
캐나다정당들은 연방지도자및 지방(주) 지도자를 민주선거로 따로 뽑으며연방지도자와 각주 지도자는 종적인 관계는 아니다.
피터슨 제1야당 당수는 보수당의 만년 아성인 온타리오주에서 현 데이비스 수상 정부와 대항한다. 신민당(NDP)은 제2야당이다. 보수당은 온타리오에서 39년간 계속 집권해 왔다. 데이비스수상과의 싸움에서 큰 성과를 못 거둔 전 스미스당수는 지난달주 의회에서 은퇴했다.
보수적이며 우익적 사고방식을 가진 피터슨 새 당수는 당수 피선 직후"나의 최대 목표는 고용증대이다. 나는 우리당을 중도 정당으로 이끌어 가 차기선거에서 집권하겠다"고 말했다.

◇데이빗·피터슨 신임 온타리오 자유당 당수가 부인 셸리와 함께 지지당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트루도 불신임안 부결
여당 결속, 134대 122표

(오타와)보수당이 제출한 트루도정부 불신임결의안은 19일 134대 122표 로 부결됐다.
이번 불신임안은 최근자유당내의 일부 의원들이 트루도수상에게 고용증가에 관한 편지를 보낸 것을 좀더 선전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야당, 보수당 죠·크락 당수가 제안했다.
2명의 장관을 포함한 10명의 자유당 지도급 의원들은 트루도수상에게 보낸 편지에서 경제문제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임금및 물가 통제계획 없다"
트루도수상 밝혀

(오타와)트루도 수상은 19일 "연방정부는 현단계에서 임금과 물가 통제는 않겠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최근 임금통제에 관해 계속 관심을 보여 왔다.
브리티쉬·콜럼비아 주는 18일 긴축재정을 위해 공무원 봉급인상과 정부지출증가를 동결시켰으며 앞으로 많은 주정부가 경제부흥을 위해 이와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피난민 이민규정 완화
신청자의진술을 인정

캐나다 안에서 신청하는 피난민 케이스 이민심사규정이 완화되어 20일 로이드·액쉬디 이민장관에 의하면 새규정은 피난민케이스를 심사하는 이민관은신청자가 진술한 사실이 허위라는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신청자의 진술을 사실로 믿어야한다.
액쉬디장관은 토론토대하에서가진 피난민들을 위한 심포지엄에서"진술이사실인지 허위인지가 애매할때는 언제나 신청자에게유리하도록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민심사 완화책은 실질적으로는 이민을 목적으로한 방문입국을 증가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았다.
액쉬디장관은"어떤 이유로든지 모국서 박해를 받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박해를받을 가능성이 있는이민신청자는 피난민케이스 이민으로 허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적 곤란으로 또는 2.차대전이후 정치적 소요로 전세계에는 1천만명 '내지' 1천5백만명이 고국을 잃었다고 액쉬디 장관은 말했다.
그러나 액쉬디장관은 피난민케이스로 이민을 신청한 인도의 시크인들은 어떤 경우도 난민케이스에해당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토론토의 시크인들은 인도「푼잡」지방에서 독립운동을한 이유로 정치박해를 받았다고 주장, 난민케이스 이민을 신청했으나 이제까지 신청된 4백건중 허가된 것은 1건도 없다. 이민국은 그들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작년도 캐나다에서 신청된 난민케이스 이민신청건은 모두 2,592 건이었으며 이중 1,047건은 인도인, 172건은 폴랜드인, 129건은엘·살바돌이 신청했다. 이중 허나가된 건수는 단지19.5%에 불과, 정부는 이에관한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새 연재—
제1 공화국을 주름잡은
주 먹 들
오늘 이정재 편
—9 면— (주간한국)

오늘의 예금금리 (2월6일 현재)

종별	기간	신용조합	일반은행
정기예금	30일	14.5%	12.5~13.5%
	특별봉사이율 (SPECIAL SALE)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7회 캐나다 미스코리아선발대회=
미의 축제준비 착착진행

지난 18일 하오7시~10시20분 토론토한인회 캐라반위원회(위원장 이대환)는 캐라반행사를 위한 준비모임을 소집, 주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의 구체적 계획을 짰다.
이대환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 먼저 지난 5일의첫 준비회가 세운 초안보고및 통과를 보아, 신청마감을 4월10일 하오5시(접수 한국일보사)로 하고, 출전자격은 만 17~25세의 한국계 미혼여성으로, 심사위원수는 약 10명으로 각각 확정지었다.
또한 5일 세웠던 대회날 시간배정을 약간 수정, 미인선발의 시간을 30분늘리고 칵테일시간 시작을30분 앞당겼다. (본보2월 11일자 참조)

◇개정된 시간표
하오6시~7시—칵테일
7시~8시 — 디너
8시~10시—미인선발대회
10시~10시30분—연예인쇼
10시30분~11시—심사발표 및 시상
11시~1시 — 댄스파티

입장권($30)은 금주중에 제작완료, 식품점등 시중판매를 시작하며, 포스터(김효씨 제작)는 출연진이 확정되는대로 내주중에는 공공장소들에 나붙게 될것이다.
티켓 판매방법·초청범위등 미인대회에 대비, 만전을 기한 이날 준비모임 참석자는 박인순, 이대환, 강공선, 장기철, 이석현, 김효, 신영식, 김웅일, 송기선, 명노길, 서만수씨의11명이다.
진·선·미·특기·매너·인기상등 푸짐한 상품들이듬뿍 안겨질 이번 제7회 캐나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4월24일(토) 하오6시~밤1시 토론토 다운타운 홀리데이·인(시청뒤)에서 유명연예인들 출연과 디너및 댄스파티를 겸한 화려한잔치로 치러지므로 전국각지의 교포미녀들 다수가 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있다.

◇80년도 제6회대회「진」 허윤정양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오.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로렉스전당 은하보석상

모든 여성에게 희소식

당 화장품 코너에서는 교민을 위한 피부관리 무료강습을 아래와같이 실시합니다.

*일시 : 1982년2월27일(토)정오12시~오후6시까지
*장소 : 은하보석상 화장품 코너
*강사 : 랑콤회사 근무

★랑콤화장품을 사실경우($30상당) $30에 해당하는 기프트가 있읍니다.
★미용상담 환영(12시~오후6시까지)
★시세이도화장품은 3월중 입하됩니다.
※랑콤, 시세이도의 특약점 은하보석, 화장품코너

620A BLOOR ST. W 전화 : 534-9977 534-7791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 Library
Rm 8034 ...arts Library
Univer... of Toronto, Ont
M5S 1...

—키와니스 소식—

홍은화양 최고상 2위

시니어부, 18세 이하부에서 각1위

바이올린의 홍은화(16)양이 18세이하 독주부문과 시니어부에서 1등, 최고상을 놓고 겨루는 트로피 클래스에 출전했으나 최고상에서는 2위에 머물렀다.

키와니스대회에서 각 부문 최우수자끼리 겨루는트로피 클래스에서 한국계자녀가 2위에 입상하기는 이번이 처음.

은화양은 작년에도 이대회에서 입상, 1천불의 장학금을 받은 수재형으로 사업하는 홍승규씨의 4자매중 둘째. 독주회도 가진바있는 언니 정화양은 피아노로 토론토대학 연주과에 재학중이다.

로열·콘서버토리에서장학생으로 공부하는 은화양은 지난 여름 욕대학이 주최한 펜실바니아 서머·스쿨에서는 컨서트·매스터로 참가했고 14살때부터 욕·심포니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활약하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로 부터 장래가크게 촉망받는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은화양

4자매를 훌륭히 키우는데 온 정열을 다 쏟고있는 어머니 박춘희여사는"대회에 출전 입상하는 것은 본인에 격려를 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은화는 성격도 좋아 남에게 봉사하기를좋아하는 순진한 아이라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UT교수이며 데이빗·오이스트라의 제자였던 소련계 빅토르·데샌코씨에게서 사사를 받고 있다.

2년째 3관왕

3관왕 샌드라·리

작년에도 3개부문에 입상한 샌드라·리(10)양이올해도 3개부문에서 입상했다.

이홍준(사업)씨의 1남1녀중 딸인 샌드라는 10세이하 독주부에서 3등, 11세이하부문에서2등한데이어 10세이하 2중주 부문에서캐내디언 친구와 함께 3등에 입상했다. 3년전부터 박성희씨로부터 지도를 받고있다.

◇3개 입상의 샌드라·리

14세이하 1등추가

3관왕된 안민아

◇안민아양

11세 이하와 12세이하피아노 독주부문에서 1 위와 3위에 각각 입상한 안민아양(11)이 또다시 14세 독주부문에 도전, 88점으로 1등, 3관왕을 차지했다.

드비쉬의"The Little Shepherd"를 연주한 민아양은 나이보다 무려 3살이나높은 부문에 입상, 영광을 얻었다.

재작년 에이어 키와니즈대회출전 , 올해가 2번째이다.

최지은 양

7세이하부문 1등

최지은(Ann)양(7)이 피아노를 시작한지 1년반만에 7세이하 부문에서 1등을 차지했다.

지은양은 74년 이민온최춘재씨의 딸로 현재 파·필드·쥬니어·스쿨에 재학중

◇최지은양

정은임·정엘렌자매

2중주부문 1등

정은임(Jennie)(8). 정엘렌(6)자매가 8살이하 2중주 부문에서 1등했다. -

토목기사로 7년전 이민온 정우섭씨의 딸들인 이들중 엘렌양은 또 6살이하독주부문에서도 2등 입상했다.

이들은 미시사가의 웨스트에이커즈·퍼블릭 스쿨의 3학년, 1학년에 각각 재학중.

은임양은 작년에도 키와니스대회에서 장학금 100불을 받았었다.

◇정은임양

◇정엘렌양

이인경양 3위

이영일치과의 차녀

치과의사 이영일씨의 1남2녀중 둘째딸인 인경(글로리아)양이 피아노 독주 11살이하 부문서 3위에 입상했다. 득점은 85점.

스틸즈뷰 퍼블릭 스쿨 6년인 인경양은 피아노 경력 3년6개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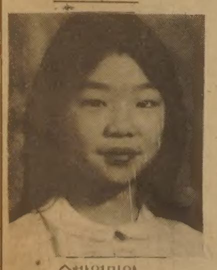
◇이인경양

박영미 2등

심소자씨 제자

박문규씨의 딸 영미(Laura)양이 피아노 9살이하 독주부문에서 88점으로 2등했다.

피아니스트 심소자씨에 사사받은지 3년만에 첫 출전, 입상한 로라양은 학교에서 계속 1등을 유지하는 노력파로 옥빌·댄싱스쿨에서 발레를 배우는 한편 피겨 스케이팅도 연마, 다방면에 재능을 보이고 있다.



◇박영미양

황정민양 3위

불어도 능숙

◇황정민양

피아니스트 박성희씨와 부동산업자 황용현씨의 1남2녀중 큰딸 정민(8)양이피아노를 시작한지 1년반 만에 8세이하 독주와 2중주부문에서 3등을 차지했다.

프랜치·이머전·스쿨을다녀 불어도 능숙한 정민양은 학교성적도 전과목 최고점수를 받을뿐 아니라발레도 즐긴다. 피아노는 어머니로부터 직접 교습받는다.

김미아양도 3위

김지알박사 딸

심리학자 김지알박 사의딸인 미아양(8)이 황정민양과 함께 8살이하 이중주부문에서 3위를 입상했다.

첫출전으로 이같은 성적을얻은 미아양은 박성희씨의 제자로 현재 Our lady of the Bay School 3년 재학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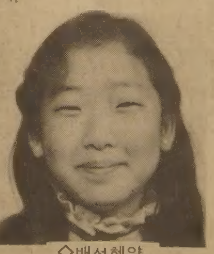
◇김미아양

배형도씨 딸

배성혜양 3등

한인장로교회 장로인 배형도씨의 딸 성혜(Barbara)양이 13세이면서 16세이하 부문에 출전, 독주 자유곡에서 3등했다.

심소자씨로부터 3년반전부터 지도받아 왔다.



◇배성혜양

2천여명 시위행진

(몽고메리·알라바마) 60년대이래 가장큰 미국남부민권행진이 18일 2000여명의 사람들이 옛날 남부전쟁시 남부연방의 수도였던 몽고메리시에 입성 함으로써 끝을 맺었다.

알라바마주를 횡단한 13일동안의 225km의 시위행진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65년도연방선거권법」의 어떠한 악화에도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위한 것이다.

한국경제 서서히 회복

수출증가의 영향

(서울 18일=연합) 한국의 주요산업들은 국내및수출수요 증가로 올해 한햇동안 서서히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갑작스런 경기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대한산업연맹 보고서는 18일 조선, 전자및 다른주요산업들의 국내판매와 수출은 올해 20~25% 가량증가될 전망이 보이나 석유화학산업및 다른 몇몇산업들은 판매부진으로 심각한 재정적 후퇴를 겪게 될것이라고 예측했다.

산업연맹에 의하면 조선산업은 해외에서 많은주문이 들어와 올해도 계속 번창할 것이라 한다. 작년말현재 선박제조 주문은 19억톤으로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주문을 받았다.

전자산업도 생산이 32.5% 증가된다. 그중 22.6%가 수출로 돌아간다. 이같은 생산증가의 원인으로국내 칼라TV 수요 급증과 미국의 칼라TV 수출쿼타제도 폐지를 들수 있다.

한편 석유화학산업은 올해 7%의 국내판매 증가와 5%의 수출신장밖에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 부진한 국내수요와 원료가격의 인상이 그 주요원인이다. 석유화학산업은 작년 900 억원(1억2천860만달러)의 적자를 보았다.

자동차산업은 9.6%의생산증가가 기대되며 17.1%의 국내판매, 29.6%의 수출 증가가 전망된다.

철강은 16% 국내판매, 15%의 수출이 기대되며, 기계류는 17%의 생산증가와 25%의 수출신장을 하게될것이라고 동연맹이 밝혔다.

박성철 강등된듯

(도쿄20일=연합) 3명의 북한 부수상중 하나인 박성철이 그의 직위에서 제거됐음이 20일 알려졌다.

20일 이곳에서 청취된평양라디오 방송은 오는28일 평양에서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 참가할 615명의 대의원들의 명단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박을 부수상으로 지칭하지 않았다.

이곳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이같은 움직임을 김일성의 아들이며 명백한후계자인 김정일을 부수상에 앉히려는 예비공작으로 풀이했다.

이곳에서 여러번 청취된평양방송은 박을「부수상」이라고 부르진 않고 공산당 상임위원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평양방송은 김일과 강양욱은 종전처럼 부수상으로 불렀다.

이봉재씨 살해범 종신형

코너스토어 보호위해 중형부과

이봉재씨 살인사건의 주범 마이클·러넌과 공범 에롤·파커에게 종신형이, 제3의공범 러맨·윌커 에게는 징역2년, 제4의공범 클리프튼·스튜워트에게는 무죄가 각각 확정됐다.

16일 최종판결에서 윌프릿·듀폰 판사는「코너·스토어들은 밤늦은 시각까지문을열므로 법의보호를 받아야한다」면서 범인들에 전례없는 중형을 내렸다.

주범 러넌은 15년간 가석방금지를 받았다.

이들일당은 80년9월15일 이봉재씨가 매니저로있던 데벤포트 로드의 밀크스토어에 총을들고 들어와 이씨부인에 돈을요구, 부인의 비명을듣고 상점뒤쪽에 뛰쳐나온 이씨를 쏘아 숨지게했다.

주범 러넌과 워커는 자마이카계의 불법이민자 로 복역이 끝나면 추방된다.

✱✱✱✱ ◇금주말 행사◇ ✱✱✱✱✱✱✱✱✱✱✱✱✱

—(2월25일~28일)

◇27일(토)하오6시30분(한인장학재단주최)장학의 밤
곳: 다운타운 휼리데이 인(시청뒤)

◇27일(토)하오 2 시(사진협회주최)카메라 바자(무료크리닉)
곳: 토론토 한인회관

◇27일(토)상오8시30분 (브램튼 운동구점주최) 남녀 배구대회
곳: Ryerson Poly Technical Institute

◇28일(일)하오4시30분(공산권 선교회주최)헌신예배
곳: 한인장로교회(1183 Davenport Rd.)

법정결혼연령 높여

인구억제위해

(서울19일=연합)19일알려진바에 의하면 한국정부는 법정결혼연령을 높이는 등 인구증가 억제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또 2자녀이상 가진 부부에게 중과세부과및 자녀수에따라 임금노동자들의 의료보험비 월부의 재조정등도 포함되어있다.

이같은 계획안은 19일국무회의에서 가결됐으며, 올9월 국회에 상정된 예정이다 국회에 상정되기에 앞서 새로운 법정결혼연령은 청문회를 거쳐 결정된다.

현재 한국의 법정결혼연령은 양측의 부모동의가있는경우 남녀18세 여자16세이며 부모의 동의없이 결혼할수있는 연령은 남녀모두 20세이다

또다른 움직임으로 불임을 자원한 농부와 어부들은 농업및 수산업 협동조합의 대부회수에 우선권을 준다

불임수술을한 저임금노동자도 인상된 정부보조금을 받는다

공식통계에 의하면 남한총인구는 작년말현재 39,029,339명에 이르렀다.

꽃파는 여인 재심

이민장관 검토 약속

꽃파는여인 레비의 이민허가를위한 구제운동이 각계각층에서 진행되고있다.

아트·이글톤 토론토시장은 19일 웰슬리 지하철역앞 레비여인의 꽃가게를찾아가서"당신이야말로 우리 토론토가 필요로하는 사람이다"고 위로하고 액쉬디 이민장관에 전문을 보내"이민문제의 재심사를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레비여인은 76년에 방문자로 입국 불법체류자로남아 지하철역 옆에서 꽃을 팔아오다가 2년전 불법 이민자 구제소식을 듣고 이민성에 영주권을 신청했었다. 이민성은 2년간의 지리한 심사끝에 레비여인에게 자발적으로 캐나다를 떠나지 않으면 추방령을 내리겠다고 통고했었다.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레비여인은 유고가 공산화된후 이스라엘에서 살다가우루과이로 건너갔으나 남편이 우루과이에서 정치범으로 투옥, 행방불명 되는바람에 이스라엘 여권을 갖고 76년 캐나다로 왔다.

레비여인은 캐나다 에서 추방되면 갈곳이 없다.

한편 레비여인의 소식을 들은 액쉬디장관은"이번주에 레비여인의 이민신청을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제5계절

공부생 공부사

(工夫生 工夫死)

이 해 원

(토론토대학 공대 3년생)

◇이해원씨

필자소개 : 이해원
- 1954년생
- 서울동성중고등학교졸업
- 연세대 사학과 4년중퇴
- 1975년9월 이민
- 토론토대 공대 3년 재학

「형설지공」같은 멋있는 거짓말은 하지 말자. 적어도 우리는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다. 단지 숙제와성적, 그리고 pass같은 단어에 스트레스가 쌓인 학생일 뿐이다. 「고진감래」라는 단어를 잊지 않았을 따름이지만.

1월 중순쯤이면 공대 사무실 옆에 번호가 적힌 종이가 붙는다. 이 번호는성적이 약간(?) 모자란 불운한 학생들의 번호이고, 그들은 학교를 그만 두거나 다른 과로 전과해야 한다.

우리들은 그 번호를 윈타리오(WINTARIO) 번호라 부르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자기 학생번호와 맞추어 보곤 한다. 그리고 자기 번호가 없으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십만불을 못타도 좋으니 다음에도 없었으면 빌면서 기도를 하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것을 맹세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정신적 압박감을 주어, 자연 우리들의 화제는 공부와 성적에 국한되어 간다.

어머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읍니다. 윈타리오 복권을 타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들중 대부분이 방과후 ROBART도서관에서공부를 한다. 지금은 한국학생이 많이 붙어난 덕인지 도서관 구석 구석 어디를가든지 몇명의 한국학생들이 꼭 있고, 햇빛을 못 본 탓인지 얼굴들이 하애져서 눈길을 책에 고정시킨 모습이 많이 눈에 띈다.

이제는 도서관에 가는것이 습관이 들었는지, 집에 일찍 가야할 때도 으레껏 도서관에 들러 커피 한잔은 사마시고 가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다.

이 도서관은 생긴 것이 꼭 거북이 모양이다. 우리들은 "이순신의 거북선을 본따 만든 것이니 우리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하며, 어떤 학생은 이것에 관해 논문을 쓰겠다고 벼르기도 한다.

학교 작은집 낙서에 "나는 홍콩대학교에 다니나보다"라고 한 것처럼 밤에집에 갈 때쯤이면 내려 오는 학생중 반 이상이 동양계이고, 그들중 반쯤은 한국학생인 것을 보면 우리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는것 같아 흐뭇하다.

이제 봄과 더불어 4월이 온다. 4월은 잔인한 달! 학기말고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통금에 걸려 타고 가던 경찰차 유리창너머 보였던 아름다운 거리 풍경처럼 도서관 창밖 봄빛은 우리를 손짓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또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과 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한해도 살아 남을 것이다. 「판도라」의 마지막 선물을 잊지 않으면서….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ER TRAINING CENTRE

운전을 배우실 분들!
아래와 같이 3가지
종류가 있으니 택해
보세요.

1. 완전코스($199.00)
- 25시간의 실내강의
- 10시간의 운전교습(운전시험도 포함)
- 차보험 액을 최대로 할인할수 있는 보증서 발급
- 인컴텍스 공제

※저녁과 토요일, 그리고 학교방학동안도 함.

2. 짧은(MINI)코스($69.00)
- 3번의 운전레슨
- 운전시험때 차대여해줌

3. 씽글(SINGLE) 레슨($15.00)
- 한번의 레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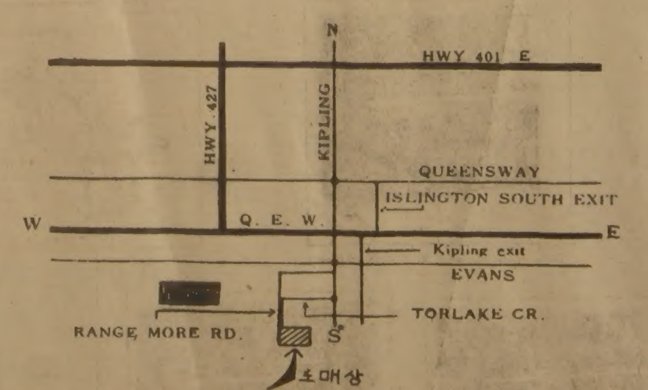
※운전시험때 차대여는 $15.00

All Courses Approved & Registered by the Ontario Safety League

2489 BLOOR ST. W. STE. 210
(JANE지하철 근처임)
766-4441, 766-4644
월~금 : 9시~6시30분, 토 : 9시~1시까지

한국인의 도매상

한인연합상사



한 인 연 합 상 사

251-6578

U.K.L.CASH & CARRY
27 RANGEMORE DR.TOR.

머리털이 빠져 고민하십니까?

머리털을 보존 하십시오.

STOP HAIR LOSS NOW!

● 위험신호 :
①당신이 머리를 빗을때 빠지는 머리털을 많이 보십니까?
②머리가 가렵거나 비듬이 많으십니까?
③당신의 머리털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기름이 많으십니까?
④당신의 머리가 잘빠지거나 불균형 하게 자랍니까?

당신이 위의 말 어느곳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늦기전에 전문가를 만나보십시오.

※상담은 FREE입니다.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오후8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3시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537-3104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선금)연 $99 월$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

〈스포츠단상〉

개인보다 국가 우선하는 한국야구

지난 9일 워싱톤에서 열렸던 NHL 올스타 하키에 앞서 백악관에서 가진 오찬회에서 레이건 대통령은 웨인·그레츠키를 두고 농담했다. 우리팀인 워싱톤·캐피탈이 형편 없으니 그레츠키를 주면 워싱톤의최고신인 두명과 텍사스주를 주겠다고.

같은 날 NHL 올스타 전야제에서 봅호프는 " 역시 외채가 좋은가 본데, 바넨주엘라도 멕시코제인데 여기 모인 사람들은 전부 캐나다제야"하고 웃겼다.

워싱톤의 캐피탈 센터에 모인 관중들은 대부분 미국인이나 경기장에 있는선수들 44명중 단 2명만 미국인이다. 양팀의 코치는 물론 NHL간부들도 거의 다 캐나다 출신이다.

자본주의 왕국인 미국국적이 상관없다. 외국인이든, 심지어 공산권선수들도 돈으로 녹여 버린다.

캐나다도 마찬가지다. 블루제이스 야구조직 가운데 선수들은 물론이고, 경기운영을 하는 간부들도 전부 미국인이다. 사장, 인사부장, 스카웃터, 대변인 하워드·스타맨만 캐나다인이다.

한국인 경우는 좀 다른것같다. 최동원은 블루제이스로 오지 않겠다면서그 이유를 오는 9월 서울의세계야구선수권대회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요즈음 프로야구팀 6개구단이 탄생했으나 노른자위 최동원, 김일권, 김재박, 이해창등 6명의 선수들을 지명, 세계야구선수권대회 참가후 출전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스포츠행정가들은 공산권에서 국가가관장하는 스포츠 「State Amateurism」을 비난한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세계대회에 출전해야 하나?

학교도 졸업했고, 떳떳이 생계를 위해 직장생활을하고, 직장을 얻기 위해 야구를 택한 체육인들이다.

최의 경우 돈이 부족해서 토론토로 안오겠다면이곳 캐나다인들은 당연히받아들인다. 그러나 세계야구대회 때문에? 국가를위해서? 누구든지 고개를까우뚱한다. 한국의 정치 자체를 의심한다.

최와의 계약발표가 있기며칠전 블루제이스의 인사부장이며 최스카웃작전의 주인공이었던 엘리옷과 만난 적이 있다. "우리가 만일 최와 계약을 체결하면 너희 나라가 싫어하지 않겠나?"고 엘리옷·왈리 부장이 나에게 물어왔다. 나는"우리나라는 자본주의국가이며 민주주의 국가다. 누가 감히 개인의 사적계약을 막을 수 있나"고 힐난했다.

최의 안오겠다는 뉴스와 함께 한국제 바렌주엘라를 기대했던 이곳 언론이나시민들, 특히 교민들의 실망은 매우 크다. 최가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일방적으로 파기를 주장하는 것은 캐나다인들이 이해하기는 어렵다.

LA 다저스도 다시 스카웃교섭을 해왔다고 최측은 주장한다. 무리한 얘기다.

최는 금년에는 만 24세가 된다. 신인선수의 나이로 보면 환갑에 가깝다. 필자가 엘리옷에게 다른 한국선수 하나를 추천하자, 나이부터 묻는다. 26세 소리를 듣고 환갑, 진갑 다지났다고 한다.

작년도 월드시리즈 우승팀 LA다저스의 투수였으며 투수로서는 최고상인사이영상을 받았던 바넨 주엘라도 81년도에는 신인이었으므로 4만달러밖에 못받았다.

프로선수는 돈과 직결
북미축구 무시못해

다저스가 최를 보고 단번에 블루제이스의 소송을각오하고 스카웃하겠다는 것은 좀 무리이다.

축구얘기로 넘어가자. 차범근, 허정무등 몇몇 선수들이 유럽 프로 축구에서 활약중이다. 역사는 길지 않으나 북미의 프로축구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북미축구에는 시즌이 없다. 4월부터 10월까지 옥외경기장에서, 11월부터2월까지 실내축구(Indoor Soccer)가 유행한다. 북미인들이 발명한 실내축구는 모든 NASL(North America Soccer League)팀들이 경쟁하며 지금 정기시즌은 끝나고, 플레이 오프가 한창이다.

토론토의 브리자드는 작년시즌까지는 최하위를 면치못했으나 금년시즌에 는 81년중반에 팀을 맡은 영국출신 데이브·튜너감독아래 심기일전하고 있다. 오는4월4일 일제히 시즌업, 브리쟈드의 첫 홈게임은 4월17일에 갖게된다.

다음기회에 브리쟈드를 중심으로 북미프로 축구를 소개하기로 한다.

누구일까요?

스포츠 퀴즈

「스포츠 단상」을 애독하는 독자에게 조그만 선 물을 마련했다. 이 기사옆에 사진의 인물을 아는이는그의 이름과 소속팀을 나란히 적어 본사로 보내면 정답자중 2명을 추첨, $24상당의 조그만 상품을 각각 보내드린다.

기일은 3월10일자 소인분까지 접수하며,

주소 : 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 Toronto M6H 1Z7 「스포츠 단상」 담당자 앞.

힌트 : 이미 지난여름 본지에 소개한바 있으며, 한국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으로 지금은 미국에서 프로축구선수로 활약하고있다.

(유승민 기자)

〈장편연재소설〉

영원의 방랑객 ⑫

첫 부 임(고삿갓)

고마태오(종욱 : 토론토한인천주교신부)

쌍 루이드 프랑스 성당에는 본당사목을 담당한 4명의 신부외에 3명의 다른 신부들이 살고 있었다. 이 세분의 신부중 한분은 젊은 교수였고, 나머지 두분의 신부는 교구산하단체의 지도신부였다. 말하자면그 분들은 쌍 루이 드 프랑스 성당에 세들고 있는 셈이었다. 이분들을 포함한 본당 신부들의 공동생활은아주좋은 분위기 속에 있었다. 아침식사는 각자 사정에 따라 자유스러웠으나특별한 이유가 아닌이상은점심과 저녁식사는 공동식사였다. 바로 이러한 자리에서 본당의 제반행사에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또공의회후 격동하는 교회에관한 소식등이 교환되었다. 수도회에서 막 나온 나는 본당의 이러한 공동체생활에 만족했다.

◇

그런데 내가 부임한지일주일도 채 못되던 어느날 쌍 루이 드 프랑스 본당에 큰 사건이 하나 생겼다. 이 성당에 세들고있던 젊은교수인 존마리·샤르본노신부가 심장마비로 죽은것이다.

사람은 누구나다 한번은죽게 마련이다. 그도 인간이기에 언젠가는 죽어야할존재였으나 사람들은 그의죽음을 슬퍼하기전에 분노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사제관에는 7명의 신부들이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그가죽은지 3일만에 자기방에서 시체로 발견되었기때문이었다.

사제관의 신부방은 아파트식으로 되어있어 옆방에서 무슨일이 일어나도 알 수가 없었다.

본당사목을 담당한 우리 4명의 신부들은 주야로 서로 만나야 하기 때문에 누가 병이 나면 즉시 알 수 있었으나 세들고 있던 3명의 신부들에 관해서는 사실상 우리들 본당의 신부들은 무관심한 편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맡은 특수한 업무 때문에 빈번히 출장을 다니곤 했다. 그래서 샤르본노 신부가 며칠간 보이지 않았어도 어디로 출장강의를 갔으려니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죽은지 3일만에 자기방에서 발견되었고, 또 누군가가 옆에 있었더라면 그는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을 거라는 진단이 내리자, 평소에 그를 존경하던 사람들은 억울해 분노했던 것이다. 그러자 신문을 위시해서 매스컴은 일제히 그의 죽음을 보도했고, 신부들의 독신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이론을 또 내세우기 시작했다. 이 사건에 충격을 받은 몇몇 젊은 신부가 사제직을 떠났다.

샤르본노 신부는 30대초의 장래가 촉망되던 학자일 뿐 아니라, 사제로서의 인격과 덕을 겸비한 훌륭한 젊은 사제였다. 그의 장례미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나도 그 미사에 참례하면서 제대앞에 놓여있는 그의 관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의 죽음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혼자 살아가야 할 신부라는 내 인생의 말로를 보는 듯 생각되어 내 마음도 착잡했다.

나는 제3 보좌 신부로서의 수요일 성경공부 지도와 복사단과 젊은 부인들의 모임인 글라라회 지도 책임을 맡았다. 그외에 구역활동에 대해서는 제4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내가 담당한 제4지역은 이민자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으며, 특히 이태리계통의 신자가 많았다. 이들은 프랑스어를 전혀 못했으며, 그래서 그들의 민족교회인 이태리성당에 나갔다. 그리고 소위원주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프랑스계 신자들은 농촌에서 이주해온 가난한 노동자들이 아니면 "비앙 에트러 쏘시알"(원호처)의 실업자수당 , 혜택으로 살고 있는 게으른 사람들이었다. 바로 이러한 게으른 신자들이 사목상 큰 문제점이 되고 있었다.

캐나다는 사회복지 국가다. 국민들의 기본적 생활조건인 의식주를 정부가책임지고 있다. "나서 무덤까지" 국민들의 건강과 생활을 보호해 주고 있으나 이 좋은 혜택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으며, 또한 이러한 제도 때문에 게을러지고, 급기야는 타락하게 되는 사람도 있었다.

쌍 루이 드 프랑스 본당에 부임한 후 나는 내가담당한 제4 지역에 살고있는 신자들의 가정방문을 먼저 하기로 결정했다. 구역신자들의 생활실태와 그들의신앙상태를 파악하는것이 구역책임신부로서 해야할 첫째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우선 구역신자들의 교적부를 정리하고, 인적사항등을 조사한 다음 가정방문에 나섰다.

내가 첫번째로 방문하기로 지정한 호주는 캐 나다 군인출신으로 군인퇴직 연금과 원호처에서 나오는가족수당으로 살고있는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의 집에는 전화도 없었다. 그의이름은 부리노·아스랑이었다.

알파벳 순위로 정리된 교적부에 아스랑 가정이첫 , 페이지에 있었기 때문에그의 가정을 제일먼저 방문하기로 결정했던 것만은아니다. 그도 나처럼 5년간이나 캐나다군에 복무한 하사관 출신 이었기에 나는 그에게 강한 동지의식을느꼈던 것이다. 그래서 그를 친구로 삼아 내가 장차 수행할 구역활동의 일꾼으로 삼아보자는 크나큰 기대를 갖고 나는 그의가정을 찾아나섰다. 물론 몸가짐과 옷차림도 단정하게 했다. 가난하고 무식해도 상대방이 서양인이고, 나는 신부라한들 동양인이기에 그가 나를 얕잡아 볼수 없게끔 사전에 준비를 단단히했던 것이다. 그런데 나를 맞이하는 그의태도는…

"나 이번에 부임한 태오 신붑니다. 여러분에게 부임인사를 드릴겸 당신을 찾아왔읍니다. 당신이 무슈·부리노·아스랑이지요?"

(계 속)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단체손님 환영,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봉사합니다.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KAWAI 피아노 인벤토리 대매출 기간 : 2월27일까지

⊙본사에서는 교민들을 위한 특별무이자 할부판매 (6개월한도내)를 단행했읍니다.
⊙은행대출알선이(1년-3년) 가능합니다

UPRIGHT 피아노

802—1
$3,995(Reg) $3,395(Sp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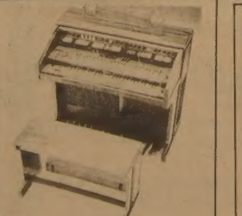
802—M
$3,995(Reg) $3,395(Spec)

KS—3F
$4,595(Reg) $3,900(Sp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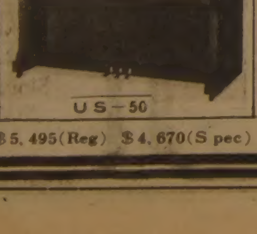
그랜드 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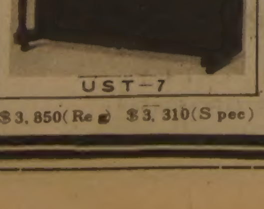
KG—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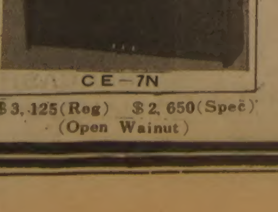
전자올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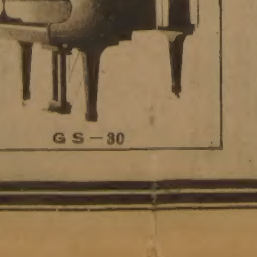

E—620

E—360


US—50
$5,495(Reg) $4,670(Spec)


UST—7
$3,850(Reg) $3,310(Spec)


CE—7N
$3,125(Reg) $2,650(Spec)
(Open Walnut)


GS—30

대표 윤 호 섭

MARKHAM PLACE
2900Steeles Ave. E.
Thornhill
881—8211

HILL 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883—9407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政治協商에 돈去來 不容

全대통령指示 政務1長官室서 지방公約사업 主管

"國會무대로 政治풍토 개선 技術人力양성·관리에 주력도"

全斗煥 대통령은 18일 상·하오 청와대에서 科技處와 政務제1장관실로부터 각각 올해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全대통령은 이날 하오 鄭宗澤정무제1장관으로부터 소관업무계획을 보고받은뒤『어떠한 정치협상도 돈이 거래되는 현상이 절대있어서는 안되며 정책조정과 대화의 측면에서 정치적인 타결을 이루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고『그러한 가운데 국회가 정치풍토를개선, 定着시키고 우리풍토에 알맞는 민주주의를 土着化하는데 중심무대가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政黨 責任정치 定着노력 政務1장관보고

全대통령은『과거 국회의원들이 산발적으로 지방公約사업을 행정부에 건의해 실현하려고 했기때문에 상당한혼란이 있었다』고 지적,『民正黨소속의원들은 물론 모든 국회의원들의지방公約사업을 政務제1장관실로 窓口를단일화시켜 정부예산과계획의 범위안에서 처리하도록하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또『정부는 국회 立法활동의 효율화에 적극 협조해야하며, 정부의 對國會답변도 소신을 갖고 성의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에앞서 이날상오 李正五과기처장관과관계국장5명으로부터 업무계획을 보고받고『정부는 기술인들의 연구여건및 생활형편등에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이들 高級人力의 사기를 북돋워주는등 기술人力관리에 주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기술혁신없이는 오늘날의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경쟁이 불가능하며, 특히 자원이 풍부하지못한 우리나라의경우에는 기술혁신이야말로 경제의 死活에 관계된다』고 지적하고『따라서 기술인들은 가급적 많이 해외에파견, 선진 첨단 기술을배우게하고 국내에서는모든과학자들이 각자 자기분야에대한 지혜와 능력, 연구결과를 상호교환해 이를 集大成할수있도록 함으로써 기술혁신에 이바지하고 고급人力양성에 주력해야 할것』이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특히『기술혁신을 위한 연구에 있어서는 중복과 낭비를 피하고 정부및 민간연구소가 협동해 각분야별로 체계를세워 연구의능률화를 기해달라』고말하고 原電의안전관리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위한 관계전문가들의 양성과 氣象豫報의전문요원의 확보및 이들의 처우개선등사기진작에 유의할것등을 지시했다.

이날 과기처 업무보고 자리에는 劉彰順국무총리、金埈成부총리、孫守益총리行調실장이、政務제1장관실 업무보고 자리에는 劉총리、孫실장외에 民正黨의 權正達사무총장과 李鍾贊총무가 배석했다.

◇全斗煥 대통령이 鄭宗澤정무제1장관으로부터 올해 업무보고를받고있다.

政務장관 業務보고

鄭宗澤정무제1장관은 18일하오 全斗煥 대통령에게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정부와 民正黨간에 同伴者관계를 정립해나가고 극한대립을 지양, 同參의 정치풍토 조성을위해 정부와 모든 정당간의 협조를 긴밀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회운영의 기본방향으로 舊習의 정치混亂요인제거, 대화와 설득을 통한 원만한 진행, 法을 준수하는 국회, 새정치질서확립에 두고있다고 말하고 구체적인운영방침으로 대화를통한 국회운영, 실질적인 常委活性化, 정부위원活用제도 定着, 주요國政의 능동적보고로·정부의 적극적인 對국회자세를 정립할것이라고 밝혔다.

鄭장관은『정부와국회간의 협조에있어서는 국회법을 착실히준수함으로써 깨끗한 국회像구현에 힘쓰겠다』고 밝히고 民正黨주도하에 政局을 운영키위해 국민여망에 부합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모든정치문제를 원내에 수렴함으로써 정당책임정치의 정착에 힘쓰겠다고 보고했다.

核연료會社 年內에 설립

科技處보고 2백톤규모 加工공장 88년에 完工

올研究費 3백79억 투입 低質炭 활용技術등 개발

과학기술처는 올해 연구개발비 3백79억원(출연금 1백39억, 특정연구개발사업비 1백40억, 민간참여연구비 1백억)을 투입, 정밀화학을 비롯 VTR용IC(集積回路)가계자동화, 重水型爐에쓸 核燃料설계제작, 식량증산, 에너지절약및 저질탄 활용 기술등을 중점개발할계획이다.

과학기술처는 또 古里·靈光·高邱·月城에 건설중인 8기의 原子力發電所에 사용할 核연료국산화를 위해 올해 核연료회사를 설립, 88년까지 2백톤규모의 핵연료가공공장을 완공, 연간 4천만달러 상당의 핵연료수입을 대체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처는 18일 全斗煥 대통령에게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이같이 보고했다.

과학기술처는 또 80년대 도래한 정보화사회에 대비, 올해 정보화사회 장기전망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83년까지 분야별 정보화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한편 대학과 과학대학원의 電算교육을 확대 강화하고 科學技術院부설 電算開發센터의 교육기능을 확대、86년까지 8천6백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또한 88서울올림픽에 대비,올림픽에 관한 모든 자료를 電算化한다.

과학기술처는 국제기술협력을 한층 강화,올해 6백명에대해 장기연수와 현지기술훈련등 해외기술훈련을 실시하고 중소기업기술지원등을 위해 외국전문가 94명을 초청활용하는 한편 대외기술공여사업도 확대、외국인 훈련생 4백28명을초청、훈련하고 우리나라 전문가 24명을 73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파견한다. 특히 아세안 5개국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훈련생 2백명을 초청하고 전문가 9명을 이들나라에 파견하는 한편 韓日공동연구사업을 적극 펼쳐나갈계획이다.

과학기술처는 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와 전자부품등 중요업종별 산업기술연구조합 결성을 적극지원하는 한편 6억원을 투입, 출연연구기관의 기기와 시설대여, 인력지원, 기술자료제공등 중소기업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韓日經協 2차實務회담

어제東京서 外相회담 3월께 개최

【東京18日=宋孝彬특파원】제2차 韓日고위實務책임자회담이 18일상오10시 일본외무성에서열려 3월말 서울에서의 韓日外相회담개최를 위한 예비절충과 한국측이제시한 경제협력내역에관한 구체적인의견을 교환한다.

한국대표단은 19일 사쿠라우찌(櫻內)외상을 예방하고 外相회담의 조속한개최를 확인할 예정이며 18일 스노베(須之部)외무차관의 오찬자리에서도 외상회담의 조속한개최를 재확인했다.

孔魯明 외무차관보를 수석대표로 李勇成 재무부●제금융국장、李根周경제기획원 건설교통예산담당관등 7명의 한국대표단과 기우찌(木內)외무성亞洲국장、야나기(柳)경제협력국장、오구라(小倉)北東亞과장、오오바(大場)大藏省국제금융국차장、우가(宇賀)통산성 經協부장등 13명의 일본대표단은 18、19일 이틀동안 3차례의 회의를갖고 60억달러 對韓경제협력을 에워싼 본격적인 예비절충을벌인다.

그런데 18일의 첫고위실무회담에서 한국측의 외상회담 早期개최요구에 일본측이 적극적인 자세로 호응하고있어 빠르면 3월말 늦어도 4월초까지 한일외상회담이 열릴것으로보이며 외상회담의 개최에이어 5월에는 정상회담도 열려 양국간의 關係정상화가 이룩될것으로 전망된다.

西濠洲 農水産장관 全대통령、接見환담

全斗煥대통령은 18일상오 청와대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6개州가운데 하나인 西오스트레일리아의 리처드·올드 農林水産장관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이자리에는 高建 농수산부장관과 캠프벨 駐韓오스트레일리아대사대리가 배석했다.

영부인 李順子여사도 같은시간에 올드장관부인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비자없이 콜롬비아 갔다 北傀副外相 일행 쫓겨나

【보고타(콜롬비아)18日UPI=聯合】北傀부외상 김형우는 콜롬비아와 북괴간의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3명의 보좌관과함께 강제출국당했다고 콜롬비아 경찰당국이 18일 밝혔다.

한경찰대변인은 金과 그일행이 15시간 콜롬비아에서 머물렀으나 미수교국인 관계로인해 비자가없어 출국을요구당했다고 밝혔다.

金은 라틴아메리카 부국장 장광호와 외교관리인 박명국 이통만과함께 15일아침 보고타에 도착했었다.

외교소식통들은 이들일행이 파나마 페루 에콰도르등을방문한후 콜롬비아와 외교관계를 개선하기위해 이곳에 온 것으로 풀이했다.

3黨3役 會同 내일 懸案논의

民正 民韓 국민당의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원내총무등 3黨3役들은 오는 20일낮12시 무역회관에서 모임을갖고 제110회임시국회운영과정치자금조달방법등을협의한다.

鄧小平 이미 政治2線에

高齡副主席 3명도、主要顧問役만

【北京18日AP聯合=聯合】중공최고지도자인 鄧小平뿐아니라 적어도 3명의 연로한 당부주석등 고위지도자들이 이미『제2선』인 주요고문역으로 물러났다고 중공소식통들이 18일 밝혔다.

중공지도체제변화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부주석 鄧이 곧 당면2대과업인 부패와관료주의 척결을 위해 주요회의 또는 대집회에서 연설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鄧외에도 당부주석인 陳雲(77) 李先念(77) 葉劍英(84)등도 활동적인 일과를 수행하는「제1선」에서 잠시 물러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부주석들의퇴진은 돌발적인 것은 아니며 아직도 정책결정과 주요연설을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있다고 강조했다.

소식통들은 최근 鄧이밝힌 자진퇴진의사는 젊은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는것을 다른 연로한 지도자들에게 한 본보기로 보여주기위한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18일 국회올림픽支援特委에서올림픽관계 책임자들이 의원들의 질의에 귀를 기울이고있다。右로부터 盧泰愚올림픽支援委부위원장(政務제2장관) 金溶植올림픽조직위원장, 李源京사무총장。

"南北스포츠會談제의

國會보고 共産圈선수 北韓경유入國허용"

국회는 18일하오 올림픽支援特別委를 열고 서울올림픽지원위원회 부위원장인 盧泰愚정무제2장관과 金溶植 올림픽조직위원장으로부터 88년 서울올림픽대회의 준비진척상황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올림픽特委는 이날 회의에앞서 간담회를 갖고 올림픽관련산업의 균형적발전과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올림픽促進法」(假稱)을 제정키로했다.

盧장관은 보고에서 88년 9월20일부터 10월5일까지 16일간으로 예정하고있는 서울올림픽대회를 和合의 祭典으로 만들겠다면서 모든국가가 정치를 배제하고 문화、예술을 선보이는 총화적인 올림픽、우리나라의 전통문화와 人情을 자랑하는 한국적인 올림픽、黑字로 운영하는 생산적인 올림픽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盧장관이 밝힌 서울올림픽에 대비한 정부各部處별분담업무는 다음과같다.

◇국무총리실=각부처의추진계획을 종합정리해서 추진상황을 점검、분석하는한편 조직위원회에 행정지원.

◇경제기획원=올림픽을 전후한 급격한 경기기복을 조정하는 대책을 세우고 올림픽관련단체에대해 出捐및 보조금지급.

◇외무부=▲南北韓스포츠회담을 제의 ▲北韓동포의 올림픽참관초청▲남북한 스포츠교류추진▲공산권국가의선수및 임원들이 北韓을 경유하여 板門店으로 입국하는것을 보장토록 요구한다. 또 공산권및 비동맹국가의 대회참가를 유도하는한편 北韓의 방해공작을 저지하고 中共과의 소련의 참가교섭을 모색하며 未修交비동맹국가와의 관계개선을 도모한다. 해외공관장의 활동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해외동포후원회 결성을 지원토록한다.

창조과학회 創立 1돌 22일부터 기념 세미나

한국창조과학회는 창립 1주년기념세미나를 22~24일까지(매일 하오6~10시) 延世大장기원기념관에서 개최한다.

강사는 로버트·L·괴테(柴田大) 金泳吉(과학기술원) 盧正久(〃) 李殷鎬(〃) 李解梨(서울大) 宋萬錫(延世大) 최영상교수(高大)등이다.

청년봉사회협의회

대한적십자사 제7차 전국청년봉사회협의회가 20、21양일간 아카데미하우스에서「적십자봉사회 조직확대와 자원봉사자의역할」이란 주제로 열렸다.

丹齋46周忌추모식

丹齋 申采浩선생 46周忌 추모식 21일낮12시 禪學院에서.

社會漫評

"山도마르고…들도마르고…주머니도 마르고…"

地平線

올해 공무원채용은 3만7천1백3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1천8백87명이나 줄인다고한다。최근에 잇달아 진행되고있는 행정개선、행정기능의 大幅下部委任、군살빼기운동、少數人員 精銳化조치와함께 간소한 정부로가는 개혁작업의하나라고하겠다。▼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간소한 정부를 외국에선 치프거번먼트、스몰 거번먼트라고 부른다。미국、영국、일본은 물론 중공에서도 요즘 한창인 세계적 행정개혁운동이라고 볼수있다。행정비가 적게들고 간소하면서도 效率的인 정부를 이상으로 삼는 것이다。밀턴·프리드먼 교수의「작은정부」론이 주창된 후 레이건대통령의「새로운출발」을 강조한 81년1월20일 취임 연설에서 이는 구체화 됐다。▼미연방정부직원의 TO를줄이고 기구를 축소하고 減稅와 세출예산삭감을 단행하면서 두드러지기 시작했다。「미국은국가가 정부를 소유하고있는것이 거꾸로 되어선 안된다。정부는 국민이부여한 권력이외의것을 가지지못한다。한데 지금 정부는 국민이 인정한 한계를 넘고 있는 것이다」—비대해진 행정권을 바로 잡아야하겠다는 레이건대통령의 이「새로운출발」에 스몰 거번먼트의 이념은 뚜렷이 나타나있다。루스벨트대통령의 뉴딜정책이래 40년만에「큰정부」에 제동을 건점에서 전세계의주목을 받으면서도 아직은 시련을겪고있는참이다。▼영국에서는 대처내각의 조셉산업상이 여섯가지 영국병을 국민앞에 지적한 일이있다。과도한 정부지출、높은세금、惡平等主義、지나친 國有化、反企業的文化、정치화한 노동운동—이 모든 惡條件이 구비된 것은 영국밖에 없으므로 세출삭감、통화량 억제를 통해「不況을 넘겨야 밝은 미래가 온다」고 호소했다。그러나 공무원 73만을 5년동안에 10만명줄이고 세출을 대폭삭감한 대처의 행정개혁은 당초의도대로는 성과가 오르지않아 실업자는 더늘고 영국병은 중태에 빠져있는 실정이다。▼간소한 정부론은 정부규모가 너무 크지않도록하자는데서 생긴것이다。가령 人口1천명에 공무원이 몇명 있으면 適正하나 할때 일본45·2명、영국 1백5·4명、프랑스 67·4명、미국 80·7명、서독82·6명이다。나라마다 여건도 다르고 공무원개념마저 같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공무원수도 少數精銳化를 위해 신규채용을 줄여야 할만큼 많아진 실상인것 같다。高福祉·高負擔이 先進國의 一般的경향인데 高福祉를 指向하면서도 低負擔이 돼야하는모순을 안은만큼 간소한 정부만들기가 그리 쉽지않겠지만 온갖 지혜를 다짜야 잘살게 될것같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922-3111 (B)
791-8196 (R)

매혹의 저음가수
배 성 : 특별출연
기 간 : 2월18일부터
매주 목, 금, 토, 일
오후8시30분부터
히트곡 : 사나이부르스
망 향
기적소리만
향 수
무정한 여인등 20여곡

거 구 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파티 예약환영
영업시간 :
평일 오전11시~새벽2시
일요일 오전11시~새벽1시
밴 드 :
목, 금, 토, 일 저녁8시30분~2시까지
권순근과 그의 악단
5 BETHRIDGE RD.
742—1618

製藥暴利는 끝났다

藥값 25배까지 받는등 多國籍社들 橫暴
購入先변경·WHO압력에 결국引下조치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이제까지 제3세계국가에서 취해온 부당이익이 이제는 힘을 잃게됐다.

연간매출액 7백60억달러(한화 약53조2천억원)를 차지하는 다국적제약회사들은 그중에서 20%이상을 제3세계 시장에서 판매해왔다.

이들은 제3세계 시장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약값을 10배이상 받는등 폭리를 취해왔다. 한편 제3세계는 제약산업이 원시상태에 머물러있어 울며 겨자먹기로 이약을 사써야만했다. 이제 제3세계도 자체의약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제약산업육성을 서둘러 다국적 제약회사의 횡포를 막을수있게 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다국적제약회사의 횡포를 지적하고 여러번 시정을 지시했으나 이들은 압력단체인 다국적제약회사 국제연맹(IFPMA)을 결성, 수송비와 특허료등을 이유로 번번이 이지시를 묵살해왔다.

하지만 제3세계 제약산업이 본궤도에 오르자 IFPMA는 제3세계지역에 판매하는 약값을내리겠다고 WHO에 자진해서 통보해왔다.

얼마전 스리랑카는 지금까지 톤당 1만7천달러씩 지불해 구입해온 진정제를 단돈 7백달러를 주고 인도에서 사들일수 있었다. 지금까지 서방제약회사는 25배의 폭리를 취해온 셈이다.

WHO는 지금까지 제3세계 보건예산의 40%이상이 다국적회사에 지급되었다고 밝히고있다. 값싼 중공의 약품의 제3세계 침투도 활발해지고 있다. 중공은 알약 25센트에 팔리고 있는 진통제 나병치료제를 10센트에 공급하고 있다. 【이코너미스트誌】

인사이드

◇개인컴퓨터가 진열대위에 전시되어있다. 개인크기는 공책만하게 작아지고 음성을 직접사용할수 있게된다.

小型 개인컴퓨터 時代에

—會計처리·作曲·학습도구로活用
손톱보다 작은 실리콘·칩登場이후
臺當3백~5천달러로 大衆化이뤄
情報처리능력 舊型의20倍

개인이 소형컴퓨터를 소유하면서 이용하는 개인컴퓨터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불과 5년전만 해도 개인컴퓨터는 호기심많은 공학도들의 장난감에 불과했다.

소형TV크기 정도인 이 개인용 컴퓨터는 복잡한회계는 물론 모든 생활정보를 제공해주고 학생들의학습도구 역할도 해낸다.

작곡가는 오선지대신 컴퓨터 화면앞에서 작곡을하고 학교교실에는 칠판과분필대신 책상마다 개인컴퓨터가 곧 등장한다.

近着 뉴스·위크誌는 개인 컴퓨터혁명의 주역으로 마이크로·프로세서라는 손톱보다도 더작은 실리콘·칩을 들고 있다.

실리콘·칩의 발명으로 컴퓨터 규모는 대폭 줄어들었고 값도 엄청나게 싸졌다.

60년대 IBM 컴퓨터는 수냉식 냉각장치와 에어컨이 딸린 최소한 25평방m 크기의 방에 설치되어야만 했고 값도 대당 28만달러 이상이었다.

요즘 한창인기를 끌고있는 개인컴퓨터 값은 대당 2~3백달러(20만원정도)내지 기껏해야 5천달러(3백50만원) 미만으로 책상에 간단히 장치 할수있다.

정보처리 능력도 초당70만회 이상의 연산능력을갖춘 구형컴퓨터의 20배에달한다.

개인컴퓨터산업의 선두주자는 애플·컴퓨터회사. 약관27세인 창업주 스티브 좁스씨가 지난 75년 그의 창고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들여 시작되었다.

2천5백달러로 시작한 애플·컴퓨터는 6억달러의 대회사로급성장했다. 한발늦게 출발한 탠디사도 40만대의 매출실적을 올려 애플사 제품은 많은 소프트·웨어가 있고 탠디사 제품은 가장 널리 보급되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중소회사들이 개인컴퓨터 재미를 보자 IBM과 제록스社같은 재벌급회사도 작년부터 판매경쟁에 뛰어들었다.

금년에만 최소한 3백만대의 개인컴퓨터가 팔리고 85년에는 판매량이 연간5천만대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개인 컴퓨터혁명이 가장 서두르고 있는 기술개발은 인간의 목소리를 곧바로 컴퓨터가 식별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

전문가들은 내년쯤이면 이러한 컴퓨터의 시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TV만한 크기에서 공책만한 크기로 개인컴퓨터를 줄이는 작업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있다.

개인 컴퓨터혁명은 발명자들도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정보사회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海外토픽

부지런한 파리도둑
★우1천명당 26명被害

파리의 도둑들이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게 남의 집을 터는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보험통계에 따르면 파리시민들은 1년에 평균 1천명당 26명꼴이 盜선생의 침입을 받은것으로 나타나 이 분야의 수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로스앤젤레스 25명 ◀뉴욕(22명) ◀런던(17명) 등의 순.

그러나 도시별이 아닌 국가별 도둑발생빈도로는 프랑스가 7위에 불과하며 최고는 역시 美國으로 美國民 1천명중 15명이 1년에 한번씩 도둑을 맞았다는것. 【파리=AP】

女性나체 射擊표적
★軍부대서 使用말썽빚어

스위스의 한 군부대는 여성의 나체사진을 사격연습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말썽을 빚고있다.

스위스여성옹호기구(OFRA)는 스위스의 한군부대가 여성나체사진을사격장타기트로 사용하고있는데 반발, 최근 베른州 고등법원에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직업단체나 경제기구에게만 단체원권을 부여하는 법조문유희로 이소송을 기각했으나 「군의 그같은 행동이 여성의 권위를 손상시킨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제네바=UPI】

섹스提供에 9천원
★말레이지아 이발소서

말레이지아경찰은 마사지·섹스·술이 제공되는 한 이발소를 급습, 타이 여자9명과 말레이지아 부부한쌍을체포.

주인인 말레이지아 부부는 여러개의 칸막이방을 갖추고 매춘업을 벌여왔는데 체포된 한 타이여자는 경찰에서 마사지에는 3천원, 섹스제공에는 추가로 6천원을 받아왔다고 폭로했다. 【콸라룸푸르=AP】

革命재판

現代史発掘 〈10〉
5·16革命에서 維新前夜까지

「削髮의 서릿발 9個月」

3·15不正등 8명 死刑·12명 無期선고
公休日도없이 深夜강행군…革檢部長이 뒷날 拘束되기도
張都暎사건등 잇단 「反革命음모」의 眞相드러나

혁명재판소가 설치된것은 5·16 두달이 채못된 1961년 7월12일. 소장에 崔英圭육군소장, 그리고 검찰부장에 朴蒼岩씨등 모두 72명이 「군사혁명의 大業을 수행하기 위해」 임명됐다. 특히 이들중 일반검사로 被任된 11명중에는 현재까지도 大任을 수행하고있는 인사가 많다.

그해 7월29일 첫공판이 열리면서 革裁가 다룬것은 5·16전 4·19와 許政과도정부, 民主黨정권을 거치는동안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온 3·15부정선거, 4·19발포명령, 정치깡패, 부정축재자들에대한것등 罪惡에 관한것이었다.

開廷2주일뒤 「朴혁검부장의사발」을 비롯해 숱한 화제와 일화를 낳기도했던 革裁는 이듬해 4월27일 상고심확정판결로 9개월간의 임무를 마칠때까지 모두 9백1회공판에 2백50건, 6백97명에대해 심판을 끝내 8명에게 사형, 12명에게무기징역, 2백10명에게 5년이상의 유기징역이 각각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최고회의와 수사기관으로부터 4大지침이란 재판진행방침을 지시받고 공휴일은 물론 저녁늦게까지 재판을 진행하는 고역을 치러야만했다. 이 4大지침이란 ①가급적 극형을줄인다. ②속결주의로 한다. ③학생사범은 가급적 불문에 붙인다. ④반국가사범은 책임자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역할分子도 처벌한다는 것등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일반사회사범과는달리 5·16후 張都暎사건을비롯한 軍·民의 혁명세력분쇄음모사건이 속속 드러나면서 재판부는 물론, 일반국민에게도 엄청난 충격들을 던져준다.

不正선거와 5·16전 각종社會惡일소를 기치로하여 幕을올렸던 革裁는 사건피고들에게 刑이선고될때마다 일반국민들에게는 「當然한歸結」로 投影될 뿐이었다.

그러나 5·16후, 擧事의主體세력과 직접관련이있는 소위 「反혁명음모사건」들이 하나,둘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은 한때 단순한 「놀라움」에서벗어나 「主體」들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두게됐다.

「得勢한 집단이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들을 제거하기위한 反對派가 있게 마련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어느쪽에 더욱더 正義가 있고 어느쪽에 가담자가 더 많은가에 달려있는게 아니겠읍니까」

바로 革裁과정에서 ××反革命사건으로 實刑을 살고나온 P씨(前최고위원)의 의미있는 코멘트.

그때의 反革命사건을 들면 세칭 「張都暎사건」을 위시해서 鮮于宗源(民主黨때의 조폐공사社長) 韓昌愚씨(京鄕新聞사장)의 反혁명사건, 모기갑부대장이었던 金東河예비역대령사건, 그리고 族靑系, 民主黨 二主黨요원들에 의해 추진됐다는 反혁명사건등으로 이어지면서 革裁가 해체된뒤에도 朴林恒(군정때 건설부장관, 예비역中將) 金東河씨(예비역해군소장)사건이 잇따랐고 바로 金씨사건에는 革檢부장이던 朴蒼岩씨가 역시 反革命혐의로 구속되는 「歷史의 아이러니」를 낳는다.

이들사건 가운데서도 5·16에 이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으며 훗날 관련자들과 증인들에의해 是非가 다소 엇갈리기도 했던 張都暎사건을 들춰본다.

공소장에 의하면 이사건은 張씨자신에대한 「5·16(革命)沮止내막」과 「5·16후의 反革命음모내용」으로 나눠진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5·16이 일어나기 불과 3개월전인 1961년2월에 2군사령관에서 陸參總長으로 보직되기전 張씨의 신변얘기가 있다.

그때 民主黨의 張勉총리는 전후 세차례나 張씨를 大邱에서 서울로 극비리에 불러 陸參總長職을 꺼내면서 「잘보좌해달라」고 부탁했다. (前職국회의원 C씨의 말)

張총리는 이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었다. 『이봐요. 당신은 나와 고향도같고 또 張氏일문이며 매그루더 (당시 유엔군사령관)와도 친하잖아. 당신이 최고적임자야. 그러니 나와 열심히 해보자구』

5·16을 미처 예상못한 張씨는 그렇지않아도 자신의 豫編說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었기 때문에 저절로 힘이솟는 뜻밖의 郞報였고 그나름대로 뭔가 세력구축에 눈을 돌리지 않을수 없었다는 얘기다.

그런가하면 張씨가 사령관, 朴正熙소장이 바로그밑 부사령관으로 있을때부터 이들밑에서 참모로 일했던 P씨(예비역中領·익명요구)는 『張씨가 육참총장에 보직되기전부터 朴正熙소장의 「擧事計劃」을 이미알고 있었다』고 전제, 다음의 두가지 사연을 제시했다.

그하나는 이들이 大邱시절 사회의 不正부패가 극에달했고 식량횡령사건, 기름(휘발유) 유출사건이 꼬리를 물자 당시의 朴소장은 생각날때마다 『제기랄, 확뒤집어엎는방법이없나?』라고입버릇처럼 말했고 한가하거나 저녁을 같이하는날이면 張中將을향해 1935년 日本에서 있었던 「2·26쿠데타음모사건」의 내용들을 하나 하나 설명해가며 『우리가 그렇게하면 어떻게되나?』하고 스스로 反問했다는것이다.

그리고 또하나는 張中將이 陸參總長이된후 朴소장은 서울의총장실에 빈번할이만큼 자주들렀었다는것등이었다.

그렇기때문에 張都暎총장으로서는 처음에는 張勉총리의 심복으로 발을 내디뎠다가 5·16擧事계획이 극비리에 무르익어가자 「어느한쪽의 勝者에게 의지하려했었다」는데에 증인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여하간 5·16主體세력들은 張총장의 임기도중에 거사가일어나자 혁명군의저지를 總長職權으로 각지휘관들에게 명령했고 16일새벽2시께 漢江인도교에서의 총격전으로 쌍방각1명씩 도합2명이죽고 7명이 부상하는 사태를 초래하고서도 혁명군이 서울에進駐, 중앙방송국을 통해 「軍의 총의에 의한 궐기」임을 설명으로 첫 방송할때는 자신의 이름과 직책을 사용토록 했다.

이후10여일간 張都暎총장과 朴正熙소장과의 사이에 그어떠한협상이나 약속이 이뤄졌는지, 그리고 張총장이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혁명내각수반등 5개의 최고직책을 맡고있으면서 어떠한사연들이 두사람간에 있었는지를 정확히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후에 張都暎사건의 공판기록에서 나타난 내용을 보면 사실상 「主導權싸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쯤 쉽게 엿볼수있다.

재판기록을 살펴보자.

5·16거사가 있은뒤 10여일이 지난 5월하순, 최고회의에서는 憲法을 대행할 國家再建非常措置法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다.

이때 張총장일파는 「혁명초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군의 人事權을 장악하는 참모총장직을겸임해야만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당초의 試案인 「겸임해제조항」을 어떻게해서든지 삭제하기위해 최고위원들을하나 둘씩 포섭하다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던중 張총장은 고향이 같으며 오랫동안 심복으로 여겨오던 K대령등 수명이 혁명저지명령에 관련되어 반혁명행위로 수사기관에 잡혀들었고 다시 며칠뒤인 6월6일 非常措置法이 공포되면서 자신(張都暎)이 국방부장관및 참모총장직에서 해직되는것과 동시에 일부장교들의 예편및 보직변경이 단행되는것을 보고 불똥이 떨어질것을 직감, 자위세력의 구축을 위해 측근포섭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때 張씨의 세력부식작업은 먼저 자신의비서실장이었던 L대령을 시켜 육사同期生(5期)으로 평소 가까이 지냈던 감찰위원장 C대령과 구황실재산관리총국장 R대령등을 포섭하는데서 시작, 張과 學兵동기인 S최고위원(准將), 또 보직관계로 평소 도움을 받아온 P대령(최고위원)을 포섭하는것으로 시작된다.

아직도 정확한원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들은 그로부터 전후 여섯차례나 도심지를 피해 변두리어느가정집에 사복차림으로모여 밀회를 계속하는 사이에 마침내 「朴正熙소장및 그측근자를 제거하고 비상조치법및 최고회의법에따라 설치되어 혁명정부의중추적역할을 하고있는 기구를 폐지하거나 마비시킨다」는 원칙에합의, 「그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한편 역시 당시최고위원이던 M헌병감(大領)은 모범죄수사대장 P중령, 또다른 범죄수사대장 K중령으로부터 딴곳의 권한확대로 자신(M대령)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었음을 보고받고 잔뜩 화가난채 묘안을 찾고있을때 張씨의 비서실장 L대령과 접촉하게 되면서 앞서 계획한 내용에 협력키로 하는등 국면이 바뀌어져 갔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일행들은 6월하순 어느날, 구황실재산관리총국장실에 모여 「회의중」이란 표지를 내건채 마지막밀회를 가지게됐고 7월3일 새벽2시를 기해 거사키로 결정했다는것이다.

재판기록은 그밖에도 바로이때 거사자금으로 5백만원이 이들에게 전달됐으며 거사 하루전인 7월2일 하오6시40분에는 모부대본부에서 초소병들에게 실탄까지 지급한것으로 되어있다.

이상이 공판기록에 나타난 張都暎사건의 주요골자다.

어떤이들의 음모이든간에 그렇다치고라도 어쨌든 이사건의 관련자로 드러났던 44명은 7월3일까지 모두 체포됐으며 같은해 10월17일 첫공판이 시작되면서 사회의 관심을 「최고회의의장직과 내각수반등 5가지요직을 갖고있다가 해임된 張都暎」에 쏠게하는데는 조금도 부족함이없었다.

재판이 기소된당시부터 일반피고인들 …

3명에게도 역시 원심을파기하고 무죄를선고하게 된다. 그러나 5월2일 최고회의의 朴正熙의장은 이들의혁명행함을 확인하면서 張都暎등 5명의前최고위원들에게 다시 형을면제하게된다.

張都暎사건에뒤이어 반혁명음모사건이 다뤄질때마다 우연하게도 한가지만은 공통적인 사실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사건때마다 예비역장성과 고급장교들이 등장, 이들에게 死刑, 無期등 극형과 중형이 선고되긴했지만 거의다 얼마안가 석방되었다」는사실이다.

『그이유는 이들이 혁명주체의일원이었기때문일수도있고, 한편으로는 반대세력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위한 포용일수도 있으며 비록 극단적인 표현이기는하나 자신들의 세력유지와 정권장악을 위해 겁을준다음 석방할수도있는 일이지요』

법조계의 원로 G씨가 당시를 회상하며 한 얘기다.

세칭 張都暎사건에 이어 反革命사건으로 재판을받게된 피고인들의 주요범죄사실을 보면 鮮于宗源, 韓昌愚사건은 이들이 바로 張勉총리의 측근들로 다시民主黨의 정권기능을 회복키위해 당시 1군사령관이었던 李翰林中將을 육참총장으로 임명, 혁명군을 격퇴시키려 했다는 내용.

다음 61년10월의 金東河사건은 金씨와 그 추종자들이 汎군적으로 최고회의를 구성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민정복귀를 실현시킨다는 목적으로 戰車隊동원까지 시도했었다는 내용이다.

族靑系반혁명사건은 5·16직후 군부가 민정이양을 논의할때 族靑系가 정권을 인수한다는 음모를 말한다.

그밖에도 二主黨사건은비록革裁에서는다루지않았지만 62년6월국민들을또한차례 놀라게한 사건으로 舊民主黨계열이 그해 6월13일 무력쿠데타를 일으켜 집단지도제의 과도정부를 거친뒤 8월15일에 민정으로 이양한다는 내용이었다.

軍政때 건설부장관을 지냈고, 예비역中將이던 朴林恒등 14명의 군출신반혁명사건은 비록 革裁해체후지만 朴씨사건이 5·16주체들간의 民政이양을 둘러싼 의견대립이 원인이었고 革裁의 주역이었던 朴蒼岩씨등 5명이 구속됐다는점으로 革裁와 인연을 갖는다.

【特別取材班】

◇1961년7월12일에 발족한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 南山기슭에 자리잡은 이 건물에서는 이듬해 5월9일 폐쇄될때까지 모두 2백50건 6백97명에 대한 재판이 열려 8명에게 사형, 12명에 무기, 2백10명에 5년이상의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반혁명음모혐의로 법정구속된 張都暎씨.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등 5가지 최고위직책을 갖고있던 張씨는 혁명저지명령과 반혁명음모에 모두 연루돼 1심에서 사형, 상소심에서 무기를 선고받았다가 朴최고회의의장에 의해 형면제로 풀려났다.

↑과는달리 불구속으로出廷했던 張都暎씨는 후에 재판부의직권으로 법정구속을 하게 되지만 이들은 (1962년) 1월10일 革裁 제1심판부의 사형선고가있은뒤 이들이 불복상소하게되자 항소심에서는 張都暎과 李喩榮에게 원심을파기하고 무기징역을, 金錫律등

스케이팅

千字春秋

柳炯鎭 〈大韓敎聯會長〉

아직은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立春을 넘겼으니 지리했던 겨울도 서서히 물러 갈것이 틀림없다. 모든 면에서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하건만, 한가지 스케이팅을 할수없다는 점에서만은 겨울을 뒤로 하는것이 아쉽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대단한 스케이터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나, 필자가 처음으로 스케이트靴를 신고 얼음판에 나간것은 지금으로부터 꼭 10년전인 47세때의 일이다. 운동신경도 둔해지고, 몸도 굳어질대로 굳어진 50이 다 돼서야 배운 스케이팅이라, 그 技倆은 不問可知이다. 커브를 격식대로 돌 수도 없고, 또 젊은이들처럼 날쌔게 링크를 달릴 도리도 없다.

그래도 한 10년동안 겨울마다 몇번씩 지치는 동안에 겨우 스케이팅 흉내는 낼 정도가 되었다. 마음 먹은 것처럼 자유롭게 타지는 않지만 뿐만 아니라, 맑은 공기를 마음껏마시면서 4㎞쯤 달리노라면, 제아무리 추운 아침일지라도, 온몸은 땀에 흠뻑 젖고 만다. 마음은 통쾌해지고, 몸은 유연해지고, 한꺼번에 수십년이 젊어짐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멋있는 스케이팅을 이번 겨울에는 세번밖에 못탄것이 한스럽기만하다.

나는 뒤늦게 나마 배운 스케이팅을 통해서 몇가지를 곰곰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平生교육의 중요성이다. 사람은 學習에의 의욕이 있는한, 그것은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처럼 모든 學習의 자료라든가 시설이 예전과는 비교도 안될이만큼 갖추어져 있는 때임에랴.

둘째로 우리는 너무나도 빨리 늙은 세대의 행세를 하는 국민이라는 것이다. 수백명이 운집하는 스케이트장에는 50대는 물론이요, 30대의 사람들도 거의 볼 수 조차 없으니 말이다. 좀더젊은 국민이 되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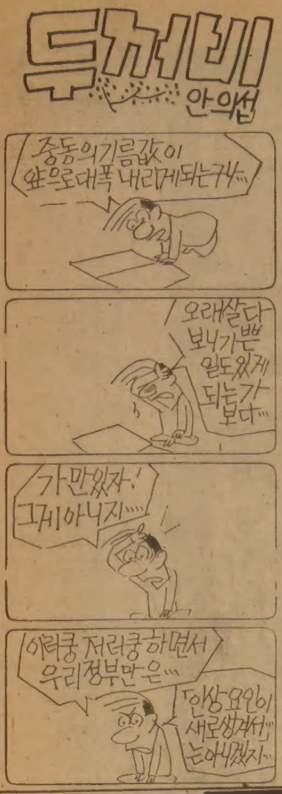
그러나 무엇보다도 스케이팅은 우리에게 전진적인 자세와 진취의 기상을 안겨준다. 이것이야말로 개인이나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요즘처럼 나라의 경제가 침체를 벗지못하고 있는 때일수록 우리 모두 어려움을 극복하는 진취의 기백을 발휘해야겠다.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977-9734

블루어안경
●Zeiss(Marwite) ●Rodenstock
●Christian Dior ●Nina Ricci
●Menrad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안과의사알선(No Appointment)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9 : 30AM~7AM
금·9 : 30AM~8PM
토·9 : 30AM~6PM
635 BLOOR ST. W
531-2236 (B) 886-0722(R)

京華樓
(경화루)
PEKING-RESTAURANT
※전통적인 맨다린 음식
※특별 : 북경오리 음식
*겨울 스페샬(Peking Duck & Firepot)
●진미의 해산물 요리
●국수, 야채전문
●항상上海점심 스페샬
주소 : 257 COLLEGE ST.
(스파다이나×칼레지)
전화 : 979-2422
영업시간 : 11 : 30A. M.~10 : 00P. M.
(매주 월요일은 문닫음)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Drive in Hamberg Shop.
주매상 : $13,000 바쁜 네거리에 있음.
가격 : $385,000
*Donuts Shop
주매상 : $4000.5,000.6,000.6500
*Variety Store
주매상 : $6000.5,000.4,500.4,000
★Shopping Centre
①Breadman과Health food Store
주매상 : $5,000 전망밝은 지역.
가격 : $229,000
②Gift 와Hobby Store
년매상 : $170,000
가격 : $80,000
③Television, 전축
년매상 : $300,000
가격 : $35,000
이외에 투자용 건물및 아파트등 다수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536-1692

서울大 7백61명 學事징계

지난2學期 百78명除名 1學期보다 9倍늘어

서울大는 18일 지난해2학기 성적불량자 7백61명을 학사징계했다.

이가운데 학사제명은 1학년1백53명, 2학년이상 25명등 모두 1백78명이며 학사근신처분을 받은 학생은 1학년15명, 2학년이상 15명등 모두30명이다.

학사경고처분을 받은 학생은 1학년3백70명, 2학년이상 1백83명등 모두 5백53명이다.

이같은 숫자는 지난학기 8백24명보다 63명이 적은것이나 제명의경우 9배나 늘어난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5백38명, 2학년이상이 2백23명으로 1학년이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또 1학년 5백38명은 1학년전체 5천2백89명의 10%에 달하는 숫자이며 제명학생수도 3.4%나 된다.

이같이 1학년 학생이 많은것은 지난해6월 강화된 학칙의 적용을 받기때문인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단과대학별로보면 공대가 1백74명으로 가장많고 다음이 농대 1백27명, 자연대 1백22명순이며 치대가 5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밖에도▲법대 34명▲인문대 45명▲사회대 64명▲가정대 16명▲경영대 14명▲미대 20명▲사대 78명▲약대 9명▲음대 27명▲의대 10명▲수의대 16명등이다.

서울大는 지난해 6월▲평점 4.3만점에 1.7점이하를 받은 학생은 경고▲1.3이하는 근신▲학사징계를 통산 4회이상 받거나 연속 3회를받은 학생을 제명처분하던 종래의 학칙을 개정▲경고평점 2.0이하▲근신 1.7이하▲제명은근신 2회 경고와 근신각1회 또는 경고연속2회 또는 통산 3회이상 받은 학생을 제명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었다.

서울大 新入生 첫學期엔 모든 서클加入금지

서울大는 18일 금년도 신입생은 입학후 한학기동안 모든 서클가입을 금하기로했다.

서울大 한 관계자는 『신입생들이 입학후 무분별하게 서클에 가입, 일부 왜곡된 서클활동을 해왔다』고 밝히고 『이같은 폐단을 막고 신입생들이 한학기동안 학교생활에 적응, 비판적인 안목을 기른후 서클에 가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大는 이에따라 오는3월 신입생 입학과 등시에 이같은 사실을 학생들에게 공고키로 했다.

한편 서울大는 학도호국단 운영규정중 서클관계 규정을 일부개정, 과거 3개단과대학에서 각 15명씩 45명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던 본부 등록서클을 6개 단과대학에 각15명씩 90명이상이어야 등록이 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崇田大 24명제적

【大田=聯合】崇田大 大田캠퍼스는 18일 교무회의를열고 성적불량한 2백22명을 학사경고하고 24명을 제적처분했다.

이들을 학년별로 보면 1학년이 1백42명, 학사경고에 24명 제적으로 가장많고 2학년은 학사경고 64명에 제적2명, 3학년은 학사경고 9명에 제적1명, 4학년은 학사경고7명에 제적1명이다.

이날 제적된 학생들은 1학년의 경우 학사경고 2회이상, 2학년의 경우 학사경고3회이상받은학생들이다.

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들은 1학년의 경우 학점4.5점만점에 1.75점미만이고 2학년이상은 1.70점미만이다.

40代4명 輪禍 도주 뒤쫓던 住民에 칼질

善山, 어린이即死 2명負傷

【龜尾=聯合】승용차를 타고가던 40대남자4명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하고 사고현장을 목격, 뒤를 쫓던 마을주민에게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달아났다.

17일 하오3시40분께 경북 善山郡高牙面文星3洞앞 국도에서 善山邑에서 龜尾쪽으로 달리던 서울1라4962호 감색포니승용차가 운전부주의로 높이2m아래 벼랑으로 떨어지면서 이마을 韓玉女여인(41)의 집을덮쳤다.

이 사고로 마당에서 놀던 韓여인의 외아들 徐洪濟군(9·九雲국교1년)이 치여 숨지자 승용차에 타고있던 40대남자 4명이 차를버리고 마을앞 논길을 따라 달아나는것을 보고 이마을 金載文씨(40)등 주민7명이 추격하자 가지고있던 재크나이프와 식도를휘둘러 金씨와 高芽고교2년 金鍾茁군(17)등 2명의 얼굴과 손바닥에 상처를 입혔다.

이들은 그후 마을에서 3㎞떨어진 洛東江을건너 善山郡海平面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청색과 검정색점퍼에 감색과 회색바지를 입고 서울말을 사용하며 모두 흉기를 각각 1개씩 가지고 있었다는 주민들의말에따라 서울에서 승용차를훔쳐 강·절도행각에나선 일당인 것으로 보고 범인들을 쫓고있다.

光州 忠壯祠뒷산 20代여인變屍

【光州=聯合】17일 하오6시께 光州市東區瑞石洞 忠壯祠 뒷산 소나무 숲에서 23세가량의 여인이 목을매 숨져있는것을 산책하던 김규식씨(50·瑞石洞)이치무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1주일전 숨진것으로 보이는 이여인은 길이 1m가량의 스커트용허리띠가 목에감긴채 소나무아래 반듯이누워있었으며 목에는 끈으로 졸라맨듯한 심한 상처를 입고있었다.

경찰은 인근 소나무에 끈을 맨 흔적과 유서등이 없는점으로 보아 타살로 보고 수사를 펴는 한편 키 1m53㎝가량에 감색코트를 입고있는 이여인의 신원을 수배했다.

한국
533-2361

「家庭醫제도」설땅없다

—27일 두專門醫 한국최초 탄생

專門醫자격에 贊反엇갈려

施行令낮잠 受容태세 못갖춰

서울大病院 試驗운영엔 호의적 反應

오는27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가정의(家庭醫·Family Physician)가 배출된다. 그러나 모처럼 도입된 이「가정의 제도」가 설땅이 없음이 드러나 안타깝다. 이 제도를 활용할 법적근거가 아직 마련돼있지 않고 수용태세도 제대로 돼있지 않은것이다. 지난해12월 정기국회에서 가정의에게 전문의로서의자격을 부여할수있는 근거를 시행령으로 정하게 의료법만 개정해놓고 찬·반양론속에 시간만허비하고있는것.

최초로 가정의 전공의사로 배출되는 의사들은 金基洛씨(32)와 朴明植씨(29) 등 2명인데 이들외에도 현재 3년차에 6명, 2년차에7명, 1년차에 9명등 모두22명의 가정의 후보가 수련중. 빠른 시일내에 관계법률이 생기고 가정의 제도가 정착할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한 우리나라의 가정의제도는 그만큼늦게 보급이될것은뻔한일이다.

가정의 제도란 한가정을단위로 가족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질병을 한의사가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진단치료해주는 제도로, 미국·서독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해오고있다. 때문에 질병치료보다는 예방에 큰 효과를 보고있는게 세계적인 추세.

특히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이 실시된이후 너도나도종합병원의 저명인사만 찾는경향이 심한 현실에서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의 가정의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돼 많은시민의 호의적인 반응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79년부터 서울대의대에 가정의학과가 신설된것이 제도 도입의 시작이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이같은 움직임이 있자 대한의학협회, 병원협회등도 그동안 여러차례의 세미나를개최, 가정의제도의 필요성을 인정, 이들의 활동을 뒷받침할 법적인보장을 주장해 왔었다.

서울대학교병원에도 제도적보장이 선결되면 가정의학과를 신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학교도 많다. 그러나 가정의로서 충분한 훈련을 쌓는 졸업생이 나올때까지 이들의 활동을 뒷받침할 준비가 돼있지 않았던것이다.

최초의 가정의가된 金基洛씨는 『가정의를 전공하면서 처음부터 당국의 제도적 보장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지만 그동안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라는것을 피부로 느꼈다』며 『한시바삐 제도적보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정의학과는 지난79년 3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처음 신설된이래 올해부터는 延世大병원과 全州예수병원에서도 가정의전공의를모집해 수련을 시작했으며 또 K대의대, H대의대등 여러곳에서도 제도적보장만 선결되면 신설할움직임을보이고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가정의외래를 신설, 지난해부터 가족단위로 등록을 받아 진료를 해오고 있는데 18일현재 등록된 가정은 5천5백여가구로 한달 평균 1천여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등록된 가정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이곳에 등록치료를 받고있는 白勝源씨(38·회사원)는 『병원을 찾는다는 큰 부담감이 없어진 것이 무엇보다도 좋다』고 말한다.

이런상태에서 가정에 대한 법적또는 제도적보장이 선뜻 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계와 가정의에게 전문의자격을 주느냐 안주느냐의여부에 대해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되기 때문.

그동안 대한의학협회 병원협회등에서는 가정의의 필요성을 인정,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전문의자격을 주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반대하는 측은 의과대학에서 교과과정의 개정을 통해 대학교육 6년동안 인턴교육을 마치게하여 내실을 기하면 되지 새로운 제도와 또다른 전문의의 양성은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무부인 보사부 실무자간에도 의견이 엇갈려 시행령은 시안조차 잡아보지못한 상태라고 한다.

인구보건연구원은 얼마전 의료의 질적향상과 의료전달체계의 모형을 보사부에 제시했다.

이보고서에 의하면 주민을 가족단위로 가정의가있는 1차의료기관에 등록시켜 이곳에서 치료를 받게하고 1차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할경우 2·3차병원으로 후송치료하며 후송치료후는 다시 1차의료기관으로 회송해 추후관리하게해 지속적인 국민보건관리가 필요하다는것.

서울대학교병원 洪彰義원장은 『환자들이 종합병원으로만 밀려 진료에 차질이 있을때가 많다』며 이런 의료전달체계의 빠른 확립을 위해 가정의전문의의 법적인보장이 시급하며 개업의들이일정한 기간 연수를 받으면 자격을 부여해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활동할수있도록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날벼락"現場" 무너져내린 부실연립주택. 같은동에사는 주민이 사고직전 입주자들을 긴급대피시켜 인명피해는 없었다.

築臺붕괴 주택 와르르

서울 산책길夫婦가 발견慘事막아

業者금간벽에「시멘트분칠」만

부실공사로 지은 연립주택 1·2층 2가구가 무너져 주민 2백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다.

18일 상오5시께 서울城北區貞陵3洞 710의81 대일연립주택 4동 101호(姜漢鐵·28·회사원)와 2층 201호(金哲圭·43·회사원)가 무너졌으나 미리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사고는 상오 4시55분께 등산을가던 같은동 203호 崔伊分씨(45·여)가 발견, 잠자던 주민들을 신속히 대피시켜 인명피해가 없었던것.

崔씨는 이날새벽 등산을가기위해 집을 나섰는데 4동의 상수도관이 터져 콘크리트바닥으로 흘러나와 축대아래로 쏟아지고 있었고 벽에 직경2㎝정도의 금이 가있는것을 발견, 4동 주민들과 바로옆 3동주민들까지 깨웠다.

주민들이 잠옷바람으로 대피한뒤 5분도 채못돼 101호 지하실과 안방이 무너졌고 이어 2층 201호와 4동 옆에 있던 콘크리트 물탱크(용량1백12톤)와 높이 6.5m 길이 10m의 콘크리트 축대가 붕괴, 8동의 벽을 덮쳤다. 이 충격으로 옆 3동벽에 금이 갔으며 8동의 유리창이 깨지고 현관문이 어긋나 주민들은 베란다를 통해 탈출했다.

집주인 李敏子씨(41)는 『한달전부터 벽에금이가 시공회사측에 수리를 요구했으나 각각진흙에 시멘트를 바르는정도에 그쳤을뿐이었다』고 말했는데 17일에도 상수도관이 터져 시공회사인 대일주택 총무부장 崔文奎씨(34)가 인부2명을 데리고와 수리공사를 했었다.

사고가난 연립주택은 지난80년3월 내일주택공사(사장 文厚錦·35·여)가 경사50도의 능선을 불도저로 밀어 1천5백여평의 부지를 만들어 8개동 22평형 50가구를지어 같은해 6월분양, 10월 입주 했었다.

한편 경찰은 이날새벽2시께 비가오는듯한소리가 들렸다는 주민들의말에따라 전날고친 상수도파이프가 다시터져 물이새면서 지반이 내려앉아 사고가난것으로보고 대일주택공사 사장文씨와 파이프수리공사를했던 총무부장 崔씨및 인부들을불러 정확한 사고원인을 캐고있다.

〈東洋畵家〉張雲祥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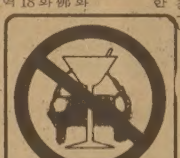
동양화가 木佛 張雲祥화백이 18일 새벽 0시2분 서울恩平區應岩洞35의13 자택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56세.

1926년 강원도 春川태생인 木佛은 서울美大 제1회 졸업생으로 국전초대작가 동덕여대미술과장등을 역임했는데 유족으로는 李信子여사(덕성여대박물관장)와 1남3녀를 두고 있다.

발인은 20일상오9시 驛村洞성당. 장지 강원도春城郡新北面柳浦里선영. 연락처 (38)3949.

天道敎宗法師 朴來源씨

천도교종법사인 朴來源씨가 17일하오 蠶室시영아파트자택에서 노환으로별세했다. 향년80세. 朴씨는 6·10만세사건의 주동자로 옥고를 치렀었다. 장례는 천도교중앙총부장으로 열린다. 발인 19일상오10시 천도교중앙교당에서. 연락처 (732)8063



平生에 남긴 글 總網羅

오늘 全經聯회관서 出版기념회

주요한文集2권

○…시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또실업인으로서 활약하다가 지난79년 79세로 타계한 朱耀翰씨(1900~79)의 文集이 요한기념사업회에 의해 출간됐다.

Ⅰ·Ⅱ권으로 엮어진「주요한문집」은 제Ⅰ권에서는 한국일보에 연재됐던「나의 이력서」와「젊은세대에 주는글」「시·시조·수필」등이 수록됐으며 제Ⅱ권에서는 그의평론집과 年譜를 게재했다.

이번「주요한문집」은 李元龍 姜信明 高承濟 金連俊 鄭壽昌 鄭周永씨등이 편찬위원이돼 고인의 편편의 글들을 거의 망라해모았다.

요한기념사업회는 文集출간을 기념하는 출판기념회를 19일하오7시 汝矣島 全經聯회관3층대회의실에서 갖는다. 연락처는 요한기념사업회(⑪8280)나 한국능률협회 (783)0262.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40>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숨바꼭질 ㉗

번화가의 상점들은 모조리 닫혀있었다. 철시한 거리를 색색가지 때때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통때와는 다르게 걸음 그 자체를 즐기듯이 천천히 걸어가고있는게 보기에 좋았다.

집에서 식구들 저희끼리만 모여서 설을 쇠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 식구들 저희끼리만….

목이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식구라는이름으로 저희끼리만 끼리끼리 뭉쳐서 자기를 따돌리고 비웃고 약올리고 있는것 같아 외롭고 서러웠다. 자기만이 식구라는 집안에서 따돌림을 당하고있다는 느낌이 그녀의 작은 가슴을 한 없이 썰렁하게 했다.

집이라는 배타적인 딱지속에서 식구들은 모여서 어떻게 지내는 걸까? 그게 아무리 궁금해도 그건 영원히 이방(異邦)의 풍속일 따름이었다.

뿔뿔이 흩어질 때 일년에 한번 설날이라도 모이자고약속한바는 없었다. 그러나 모일줄 알았다. 식구들이 저희끼리만 모이는 날 그 끼리끼리에 속할수없는 사람끼리모여들 건 자연스럽다못해 뻔했다.

「오누이의 집」으로 오르는 언덕길을 숨가쁘게 기어오르며 목이는 벌써 아이들이 왁자지껄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아이들을 일일이 부둥켜안고 싶었고 잘해주고 싶었다. 원장 어머니를 도와 부엌에서 떡국도 끓이고 마당에 묻힌 큰독에서 김치도 꺼내오리라. 「오누이의집」 김장김치는 해마다 어찌 그리 짜다 못해 소태맛이었는지. 그래도 겨울이 가기도전에 그세개의 큰 독은 차례로 바닥이나 아이들은 좋아라고 숨바꼭질할때 이용했지만 어려서부터 김치 심부름이 단골인 목이는 김장이 바닥 날 즈음이 제일 싫었다. 냄새도 고약했지만 까딱하면 거꾸로 처박힐것같았다.

그 싫던 일이 다 그립고, 그 소태같은 김치가 먹고싶어 입에 군침이 돌았다.

그러나 「오누이의 집」의 활짝 열린 대문으로 제일 먼저 세개의 웅덩이가 눈에 띄었다. 해마다 김치독을 묻던 자리라는 걸 깨닫자 목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참, 두분만 오붓하게 살게 됐는데 김장을 그렇게 많이 담글 까닭이 없지?

목이는 얼른 자신의 경솔한 놀람을 이렇게 달래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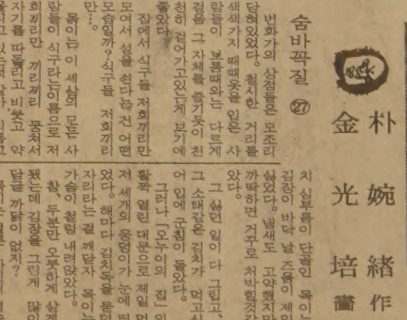
건들대던 현관문이 별안간 덜컥 소리를 내더니 안으로부터 저절로 열렸다. 한눈에 사람이 살고있지않다는 걸알 수있는 텅 빈 내부가 드러났다. 문을 밀어낸 바람이 목이를 휘감았다. 전혀 체취가 섞이지않은 바람에 목이는오싹 소름이 끼쳤다.

빈 집이라는게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그녀는 덮어놓고 도망부터 치기 시작했다. 허방지방 언덕길을 달음질쳤다. 제 발자국소리에 쫓기듯이. 겁이 났지만 뒤 돌아볼수조차 없었다.

으슥한 언덕길을 어느만큼 벗어나자 「오누이의 집」 뒷소식이 궁금하단 생각보다는 자신이 불쌍해서 그렁이는눈물을 주먹으로 문질렀다. 자기 손인데도 돌멩이처럼 딱딱하고 찬 손이었다.

『목아!』

키큰청년이 목이 앞으로 섬큼 다가와 막아서면서 소리질렀다. 씩씩하고 밝은 목소리였다. 목이도 멈춰서면서 그를 쳐다보았다. 자신의 슬픈 마음과는 동떨어지게 밝은 표정때문에 청년의 얼굴은 실제의 키보다 더 아득한 곳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목이는 부신듯이 눈만 깜박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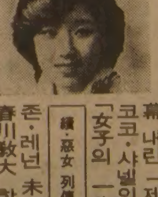


오리엔탈 · 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
●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및 Word Processing
●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 275-0702 오 영 림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 주간여성 ♡
인기절찬 판매중!
2월21일자
주간女性
그이의 영양食을 위해 料理부터 배워요
—스포츠 커플 黃英淑·林陳漢씨의 잉꼬新婚
幕 내린「제1共和國」秘話
코코·샤넬의 패션과 私生活
「女子의 一生」문제점 分析
續·惡女 列傳 클레오파트라
존·레넌 未亡人의「思夫辭」
春川敎大 합격한 33살 主婦
컴백한 스타 金慈玉 스토리
다이애너妃가 황태자와 대판 싸운 속사정
金芝美 컴백 놓고 숙덕쿵 입방아 찧는 內幕
〈미스 롯데 朴敏得〉



판매처 : 각한국식품점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광고 신청은
한국일보사
●일반광고 : 최성조
●매매구인광고 : 박경옥
533-2361

고등부 朴載赫 기염
활강1千5百m서 大學일반기록 앞서
冬季스키 개막

【龍平=李熹洪기자】 제63회 전국체육대회 동계스키대회가 해외동포 5명을 포함 2백26명(여40명)의 선수가 참가한가운데 18일 龍平스키장에서 개막됐다. 대회장인 吉相議대한체육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미비된 시설과 불리한 여건속에서도 스키인들의 집념과 열성에 힘입어 한국스키도 꾸준히 성장해왔다. 이제 동계올림픽도 한국에서 개최할수있는 날이 멀지않았다」며 스키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檀國大의 金東煥선수가 선수대표 선서를 했다.

◇첫날전적 (종목별1위) ◆활강 ▲남일반부(1천5백m)=[illegible](재미) 56초43 ▲남대부(1천5백m)=金振海(단국대) 43초44 ▲남고부(1천5백m)=朴載赫(강릉농공) 42초97 ▲여일반부(1천m)=인삼자(건국대) ▲여대부(1천m) ▲여고부(1천m)=(강릉여상) 40초10

◇東西體錫의 金泰賢이 여자단체전 1회전에서 맞서 文英女中의 장창경을 쇼트 커트로 반격하고 있다.

中高팀이 實業팀 꺾었다
종합卓球 善花女中·明知女高에 換銀·光州銀 고배
創團 첫출전 三湖는 東仁川高제압

제35회 전국남녀종합탁구선수권대회가 18일 장충체육관서 개막, 첫날 여자단체 예선에서 부산 善花女中이 外換銀行A팀을 3-0으로, 明知女高A팀이 光州銀行B팀을 3-1로 각각 격파하여 중고팀이 실업세를 꺾어 파란을 일으켰다.

善花女中은 여자단체 예선 D조경기에서 外換銀行 A팀과 대결, 1차단식의 崔允姬가 外換의 金仙子를 2-1로, 2차단식의 朴貞美가 李英淑을 2-1로, 복식의 崔允姬 朴貞美조가 金仙子 李基順조를 2-0으로 각각 눌러 3-0의 스트레이트승을 거두었다.

지난해12월 창단후 공식대회에 처음 출전한 三湖남자팀은 남자단체 예선D조에서 高靜任 吳遠植의 활약으로 東仁川高를 5-3으로 제압, 첫승리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에는 국가대표선수들이 아시안게임에대한 강화훈련으로 불참한데다 남자단체전의 14개팀중 4개팀이 기권, 대회의질을 떨어뜨렸다. 남자단체 B조의 大宇重工業은 江原大·心田高의 불참으로 경기를 갖지않고 준결승에 선착했다.

◇첫날전적 ▲남자단체C조 국정교과서 5-1 시온고B ▲동D조 성무 5-2 시온고A 산호 5-3 동인천고 ▲여자단체A조 제일모직A 기권 명지여고B 한일은A 3-0 신일여상A 제일모직A 3-1 신일여상A ▲동B조 대한항공A 3-0 문영여중 제일모직B 3-0 신서여상B 명지여고A 3-1 광주은행B ▲동C조 동아건설 3-0 문명여중 대한항공A 3-0 명지여고A 제일모직B 3-1 광주은행B 산업은행 3-0 신일여상 ▲동D조 선희여중 3-0 외환은행A 서울신탁A 3-1 서울여상 코카콜라B 3-0 외환은행B 서울신탁B 3-1 부산여상 한일은행B 3-0 근화여고

이는 17일 이곳서 열린 제1회 네루 골드컵 쟁탈 국제축구대회 이틀째경기에서 유고를 1-0으로 물리쳤다.

우루과이 유고꺾어 네루컵축구 1-0
【캘커타17日AP=聯】 우루과이는 17일 이곳서 열린 제1회 네루 골드컵 쟁탈 국제축구대회 이틀째경기에서 유고를 1-0으로 물리쳤다.

"서울五輪 무난히 치룬다"
조정등 5개경기장만 新設하면" 組織委 밝혀

서울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SLOOC)는 88년 하계올림픽대회서 채택된 23개 경기종목을 대상으로하여 국내의 각종 경기장 시설을 예비점검, 앞으로 요트 조정 체조 승마 사이클등 5개 경기장만 신설하면 무난히대회를 치룰수있다는 결론을얻었다.

SLOOC의 李源京사무총장은 18일 국제경기연맹(ISF)이 요구하고 있는 경기장 시설은 모두 1백개소(주경기장 43, 연습장 57개소)라고 밝히고 우리나라는 이미 1백12개소(주경기장 43, 연습장 69개소)의 경기장을 확보하고있어 현재 건설중인 주경기장이 완공되고 5개의 경기장만 신설하면 시설면의 난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88년올림픽에 대비한 각종 경기장시설은 오는86년 아시안게임 이전까지 모두완공시킬 계획이다.

SLOOC는 ▲국민의경제적 부담을 줄이기위해 기존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시설투자에는 민간자본을 우선적으로 유치, 정부투자를 총투자액의 50%이하로 줄인다는 원칙아래 시설확보에 박차를 가하고있다고 발표했다.

"在日동포에 우리말 이름 찾아주자"
10만명 署名운동 벌여

재일동포에게 『우리말이름을 되찾아주자』는 10만명 서명운동이 재일동포목사 崔昌華씨(52·日本北九州市小倉北區白銀1~6~7)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소속 기독학생 1백여명에의해 18일 정오부터 서울역앞과 鍾路2街 YMCA앞에서 벌어졌다.

崔목사는 『오늘날까지도 日本에서는 한국인에대한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고 있으며 민족고유의 이름을 사용하는데도 여러가지 곤란이 있다』고 말하고 『각기 고유한 문화를 지키며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재일교포도 그 권리를 일본사회에서 인정받아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崔목사는 또 『日本내에 사는 70만 재일동포들은 다른 외국인과는 달리 유일하게 日本식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대해 日本인의 각성을 촉구하기위해 이 운동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서명운동을 위해 지난 15일 귀국한 崔목사는 지난 75년 자신의 이름을 「사이쇼까」라고 日本식 발음으로 부른데 항의, 일화 1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후꾸오까 고등재판소에 내고 있다.

이날 崔목사등은 『이름을 바로 불러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마이크로 서명에 참가해줄것을 호소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에 호응, 서명의 줄이 끊어지지 않았다.

中共參加 결정
臺灣, 세계女子 소프트볼 대회에

【北京18日AP聯=聯】 중공은 내년7월 대만의 타이페이에서 열리는 세계여자소프트볼 선수권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신화사통신이 18일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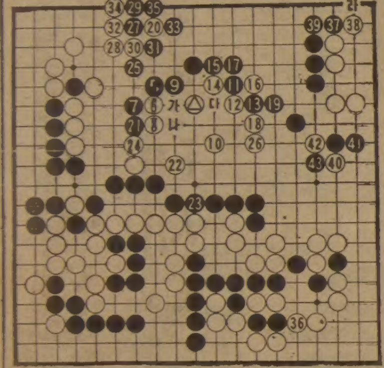
중공은 앞서 대만이 대회장에서 국기게양과 국가제창을 고수하려는 방침때문에 참가를 재고하고있다는 추측이 있었다.

中共 싱가포르完破 아시아國家 테니스

【콸라룸푸르17日AP=聯】 중공은 17일 제1회 아시아·네이션컵 테니스선수권대회 준준결승에서 싱가포르를 3-0으로 손쉽게 꺾고 4강에 합류했다. 19일 준결승서는 한국-日本, 中共-印度가 대결하게 된다.

이날 中共은 단식 첫경기에서 류슈화가 싱가포르의 하싱시데크를 2-0으로 가볍게 제압하고 유·웨이도 마이더르·하산을 2-1로 꺾은 뒤 마지막 복식경기에서도 2-0으로 승리, 통틀어 3-0의 완승을 거두었다.

第13期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3局 第6譜 105~143 (각5시간 덤5집반)



白 (7段) 河燦錫 〈1勝1敗〉
黑 (6段) 姜哲民 〈0勝4敗〉

白△에대한 黑5는 같은값이면 「가」자리에붙여 白「나」, 黑9라야 강력했다는 국후중론이다. 또 黑1도 즉시 黑「가」로째어 白「나」와 교환한다음 「다」에 건너붙여 공격하는 편이 實利面에서 보다 유리하지않느냐는 의견이 많았다.

河7단은 白18에까지 침략부대를 정비하고 마침내 白20. 더이상 중앙을 가일수 했다가 黑31을 허락하면 여전히 집부족이라 보고 한껏 파고든 것이다.

그러나 이수는 좀과했던 모양이다. 『白20은 27자리가 한도』라는 평. 보다시피 黑25면 白은 중앙을 26으로 보강해야되어 黑27이 하로서 모처럼의 白20한점을잡혀서는 손해가적잖았다. 한데 실제로는 白34까지 선수하고

右邊의 最後一戰

숙제거리였던 하변 白36에 손이 돌아온것은 다행이였다. 아직도 형세를완전히 뒤집지는 못했을망정 어느정도 희망을 걸게된것이 사실이기때문이다.

이리하여 국면은 큰끝내기단계인데 여기서 우상귀를 黑37, 39로 젖혀이은 것이 굉장히 컸다. 姜6단은 어쩌면 이것으로 승리를 내다보았을지도 모른다.

河7단은 『아차』하는 표정이었다. 만 당장 「라」자리에 내려서서 살아두려 하지 않고 7분가량 멈칫멈칫하더니 갑자기 白40, 우상귀를 白「라」로 살기에앞서 이득을 선수로 마무리지을 요량이다.

黑41은당연. 白42가 또 강력한수단인데 이렇게 되면 黑도 43으로 맞끊을 밖에 없다. 이리하여 우변에서 일대변화를 일으키는 최후일전은 발발한다. 【一九】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畫

"어디가니?" "라이저네 집에요"
"이번주 들어 네번째야! 사랑하는게 틀림없구나"
"아녜요, 사람보다 더 좋은거예요" "더좋은거? 뭐가 더 좋을까?"
"그앤 숙제할걸 제가 베끼도록해주거든요"

나의 이력서
〈國字·元一漢〉
元一漢 ㊴

大學院修學 다시 한국에
뉴욕서 뒤늦게 教育行政전공

한국전 휴전협정이 조인되던 해 가을 미국에 도착하는 길로 뉴욕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했다.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대학원에서 공부해야 할 것이나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안돼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바람에 진학의 기회를 잃었다. 해방후에는 안식년이 되어 미국에 돌아가면 공부할 생각이었으나 이마저 한국동란이 일어나 대학원 공부가 늦어지고만 것이다.

1955년 여름, 한국에 다시돌아올 때까지 뉴욕대학에서 전공한 과목은 교육행정학이고 한국고등교육사를 연구테마로 삼았다.

뉴욕대학교는 할아버지(元杜尤)와 아버지(元漢慶)가 수학한 곳인데다 아버지가 이곳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뉴욕대학과 언더우드家와의 인연은 깊다고 할 수 있다.

내가 한국에 다시 왔을때는 해방후의 꾸준한 전교활동과 한국동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신앙을 많이찾는 여건등이 합쳐져 기독교는 상당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다.

주한선교부는 전쟁으로파괴된 교회, 학교, 병원등의 복구에 많은원조를했고 한국군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軍牧制를 도입, 눈부신활동을 거듭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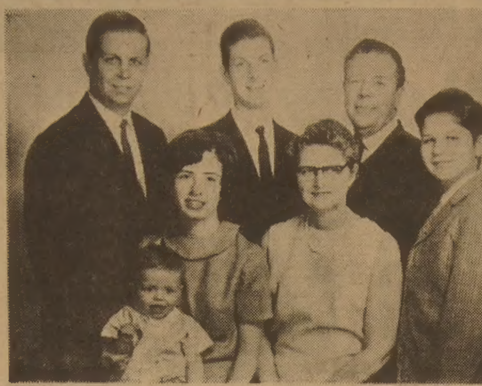
이무렵 외국에서 많은부흥목사들이 한국에서 선교강연에 나섰고, 나에게도 통역해달라는 부탁이 쏟아져들어왔다.

한번은 선명회 설립자인 버브·피어스목사가 徽新중·고등학교 채플시간에 강연을했는데 통역은 내가 맡았다.

피어스목사는 부흥선교로 이름난 분으로 제스처만으로도 실감이 날 정도였는데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대목에 이르러 설교는 절정에 이르렀다.

다윗이 새총으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어 쓰러뜨린다음 그의 칼을 들어 죽이는 장면을 영어로는 「Cut off his head」라 하는데 그대로 번역하면 「머리를 잘랐다」고 해야 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머리를 자른다고 않고 목을 자른다는 말을 쓴다.



◇1960년께의 가족사진。㊧로부터 뒷줄 장남 漢光, 2남 漢應, 필자 앞줄 손자, 며느리, 아내, 3남 漢石。

延禧·세브란스통합… 40周年行事땐 祖父銅像건립

그의제스처에 정신이 팔린 나는 엉겁결에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꺾었다고 통역했다. 이때 학생들이 얼마나 박장대소를 했던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延禧·세브란스 두대학이 延世大學校로 통합된 것은 내입장에서 보면 역사적이고도 감동적인 일이었다.

할아버지 元杜尤목사는 한국땅에 들어와 세브란스의 전신인 濟衆院에서 학생들을 교수하는 일로 선교업무를 시작했고 그다음 延禧를 세웠던것이다.

두대학의 통합은 필연적인 귀결이었으나 일제때는 지나친 간섭으로 성공을 못하고 해방후에는 성숙단계에서 6·25동란으로 미루어졌었다.

세브란스병원을 새로 신축하면서 한국내 모금과 선교부가 미국에서 모금한 액수도 컸지만 미국에 있는 동양의학유지재단의 기금도 많은도움이됐다. 원래 동양의학유지재단 기금은 중국으로 가게돼 있었으나 중국이 공산주의자들의 손에넘어감에 따라 이돈이 한국으로 오게된것이다.

延大설립 40주년을 맞는 55년 학위수여식은 할아버지의 동상제막식이 곁들여 열렸다. 이듬해인 56년에는 양화진외인묘지에서 아버지의 묘비건립식이 거행되었다.

추도비문에는 『호러스 홀튼 언더우드(원한경) 1890년9월6일 서울에서 출생 1951년2월20일 부산에서 서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후에 서기 위함이다』는 글이 새겨져 있다.

現代人의 健康百科

火傷

화상은 우리가 살아가는동안 정도의 차가 있을뿐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하는 일에 속한다。따라서 이에대한 응급처치는 물론 화상의 정도와 범위를 알고 이에따른 기본적인 처치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화상의깊이는 그정도에 따라 1도에서 3도까지로 분류한다。1도 화상은 증상이 경미하여 여름 해수욕장에서 갑자기 햇볕을 쬐어나타나는 정도의 화상을 뜻

3度로區分…2度기준 體表面15%넘으면 入院해야

한다。즉 화상이 피부의 표피층에 국한한 경우이다。따라서 1도의 화상은 치유후 전혀 흉터가 남지 않는다。2도 화상은 피부의 표피층은 물론 진피층의 일부까지 손상을 입은 경우이다。2도화상이 되면 대개 물집과함께 심한 통증이 나타난다。하지만 이정도의 화상은 상처에 2차적인 세균감염만 없으면 피부에 있는 땀샘이나 모낭, 피지샘등으로 부터 표피의 재생이 일어나 흉터를 남기지 않는다。

그러나 3도화상이되면 상황이 달라진다。피부의 전층이 심한 경우는 피하지방층 깊숙이까지 상해를 입게되어 피부의 자연치유가 불가능 해진다。

따라서 이때 피부이식이란 특별한 처치가 필요하게 된다。피부이식은 보통 화상부위가 어느정도 차체회복이 일어나 상처부위에 심한 세균감염이나 괴사조직이 그대로남아있지않고 비교적 깨끗한 육아조직이 생겼을 때를 기다려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최근에는 흉터를 될수록없애주기위해 조기이식하는 경향이있다。특히 손이나 발같은곳에서는 이들의 기능장애를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 조기에 화상창의 죽은 조직을 떼어낸 다음 즉시 피부이식을 하는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화상창부위의 범위는 체표면적에 따라 정하고있다。

이때문에 체표면적은 개개인이나 연령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게마련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9의법칙」이란 방식을 적용하고있다。「9의법칙」이란 신체 표면을 9%씩 구분하는 것을 뜻한다。

①머리 ②한쪽 상지 ③한쪽 하지전면 ④한쪽 하지후면을 각각 9%라 하고 ⑤전후 흉벽을 각각 18% 그리고 ⑥회음부를 1%로 기준삼아 화상을 입은 부위를 계산하게된다。대개 2도 화상 면적이 체표면적의 15%이상이 되게되면 반드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한다。그러나 안면이나 손발부위의 화상일때는 비록 그 화상면적이 적다 해도 반드시 전문병원에 입원치료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일반적으로 화상창이 치유되는 기간은 1도의 경우 1주일 정도이고 2도 화상에서는 정도에따라 2주일~4주일이 걸린다。그러나 3도의 화상은 피부이식수술를 해야만 치유가 가능하다。

咸基善
【醫博·가톨릭의대성형외과교수】

虛實의 時間 ⑩
流星의 賦 〈313〉
李炳注作　李友範畵

안절부절못하던 조정은 김응남일행이 명나라의 오해를 풀고 칙서까지 받아 돌아오니 경축일색의 기분으로 되었다. 11월2일, 선조는 사신일행을 모화관(慕華館)에까지 나가 영접하고 백관에게 가자(加資)를 베풀고, 잡범 사죄이하(死罪以下)에게 특사의 은전을 주었다. 또 주문을 주장하였던 대사헌 윤두수는 정철과 공모했다고 하여 10월에 연안으로 유배되었던 것인데 주문의 효과가 컸던 것을감안하여 선조는 전리방환으로 감형해주었다.

그리고 선조는 수길의 답서에 대해 강경한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 일단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

『…전후 고서를 받았으매 그 사지(辭旨)가 장황하고 상국에 뛰어들어가려고 하고 또 아국(我國)과 같이한것을 바랐는바, 이런말이 도대체 어찌있을수 있겠는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곧 상국을 범한다는것인바, 문자를 가지고 서로 다툴 것이 아니고, 또한 말에 대답하지도 않음은 교린(交隣)의 도가 아니므로 감히 여기에 폭로하니 이것을 혜량(惠亮)하라. 생각컨대 아동국(我東國)은 태사(太師)인 기자(箕子)가 봉(封)함을 받은 구국(舊國)으로서 예의가 아름답고 중화(中華)라고 칭찬 받기 무릇 기대(幾代)인지라. 아황조(我皇朝)에 이르러 구우(區宇)를 혼일하여 위덕이 멀리 퍼지고 연해(沿海)의 내외가 모두 주(主)요 신(臣)이어서 감히 거역하는 자 없더라. 귀국은 또한 일찌기 바다를 건너와서 공(貢)을 바치고 경사(京師=明의수도)에 달하였는바 하물며 우리나라는 세세로 번봉(藩封)을 지키는 진태를 공순히 하여서 후국법제(侯國法制)에 과실이 없었으므로 중조(中朝)가 아국을 내복(內服)의 나라같이 보고…부자처럼 친밀히 지낸데 대해선 귀국도 일찌기 들은바 있을것이고 천하가 모두 아는 사실이니라…』

요컨대 명나라는 우리의 상국이니 절대로 침범할 수 없으니 일본도 마음 고쳐먹고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내용인 것이다.

명조로부터 칙서 한장 받아들고 이처럼 들뜬 국서를 썼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만 수길에게 따끔한 일침을 준 것은 그런대로 의미가 있었다.

그 침략의 의사를 굳게하고 마음을 돌리기는커녕 점점 수길은 이런 편지를 받고 종의지가 다시 조선으로와서 변장(邊將)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이르고 조정에 전하라고 했다.

『일본관백(日本關白)풍신수길이 대명국을 치고자 하오니 귀국이 소란케될것은 필지의 사실이오. 만일 귀국이 먼저 명나라에 보고하여 명나라가화(和)를 일본에 구해온다면 환난을 면할수 있을 것이오. 그렇지못하면 큰 화가 닥칠 것이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와서 간곡히 전하는 바이니 선처하시오』

사세가 이렇게 되었는데도 조정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당쟁은 날로 심해만 갈뿐이다. 조정의 동인들이 합세해서 정철을 비롯한 서인들을 근절하려고 양사(兩司)의 합계(合啓)가 있은것은 이무렵의 일이다.

이런 상황이었으니 일본의 밀정은 수길에게 보고했다. 『이나라를 치는것은 어린애의 팔을 비트는 격으로 수월할것이외다』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한국일보 가두 판매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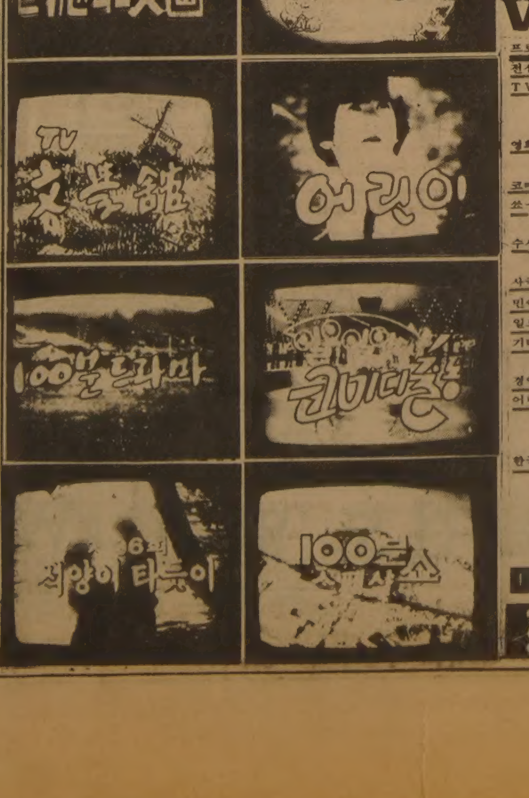
본사는 주3회 각식품점에 신문을 배달, 판매하고 있음.

본보 취급 식품점

●서울식품	: 367 PITFIELD RD.	291-8317
●동양식품	: 1662 JANE ST.	248-5131
●한국식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한국식품 동부	: 2810 EGLINTON AVE.E	261-6111
●한국식품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제일식품	: 712 BLOOR ST. W.	532-1054
●고려식품	: 680 BLOOR ST. W.	531-2242
●삼복식품	: 2437 FINCH AVE. W.	743-8270
●한밭식품	: 466 SOUTH SERVICE RD.	274-5401

현재 주3일 배달 1부당 30¢
※〈주간여성〉도 판매함 $2.00

한국일보발송부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연속극, 문학영화, 전설…
비디오
VIDEO··VHS.BETA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2시간~3시간)
전설의 고향 — 하녀, 3층지도, 정승볼 대감, 조강지처, 우는바위
TV문학관 — 엄마, 배따라기, 청산대, 무진기행, 산상에 서다, 삼포로 가는길, 형제, 메밀꽃필 무렵등….
영화 — 육군사관학교, 낙도의 무지개, 칼과 이슬, 전우가 남긴 한마디, 다정다한, 배삼룡의 일생, 고교얄개전, 모험대 소년
코메디 — 웃으면 복이와요, 코메디 출동, 폭소대작전, 김희갑 전집.
쇼 — 쇼11, 쇼2000, 100분쇼, 쇼쇼쇼, 이미자전집, 최희준전집, 정훈희 쇼, 가요싸롱, 흘러간 노래모음, 싱글벙글쇼, 5천만의 대행진등…50여편.
수사극 — 간첩체포 일화, (얼어붙은 강, 여울의 소리, 고향이 부르는 소리), 수사반장, 형사 외 7편
사극 — 암행어사, 포도대장, 대명, 각각 10여편
민속 — 팔도대향연, 한국민속경연대회, 전국민속대향연, 푸른 조국, 청자빛 하늘아래
일요드라마 — 소망, 부부, 한국의 미, 탐불가족등 10여편
기타 — 인간가족, 사랑의 계절6편, 제1공화국 10여편, 동심초, 국군의날 기념, 청룡기 고교야구대회 결승전(광주제일고 : 선린상고)
경연대회 — 제5회 대한민국 연극제 당선작 "족보", 제11회 전국노래자랑 춘천편
어린이용 — 우주 대작전, 꿈나라, 모험소년, 15소년표류기, 죽음의 코스, 경이의 세계여러가지, 하이팅 우주소년, 우리들의 광장, 만화동산, 알게시대, 호랑이 선생, 마징가, 일지꼬주등 50여편
한국말 외화 — 다티지바고, 레미제라블, 죽음의 코스, 집없는 아이, 석양의 무법자, 전쟁과 애욕, 쎈사인, 이소룡의 전설, 미시지에서 생긴일, 톡키, 벤·후라허, 7인의 신부, 바림의 복수, OK목장의 결투, 소문난 형사, 티뉴·다임스, 전화살인, 수리작전, 배로런 위기탈출, 다이 힌터등 40여편, 모두 230여편의 프로그램과, 매월 20여편의 뉴 테입이 반입될 예정입니다.

미도파백화점 비디오부 536-1692
SUN-MI GRAPHIC STUDIO 531-6430 921-5903
454 A BLOOR ST. W. TORONTO MIDOPA 11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Benjamin Moore PAINTS
블루어 하드웨어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팔매수리
변 의 섭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KGB魔手에 걸려든 西独要人들

베일속의 아지트「섹스 살롱」의 正體

낮에는 정치권력의 중심지, 그러나 밤만 되면 음모와 섹스가 날뛰는 거리가「본」이다。西獨연방 검찰청의 바로 코앞에 있는 서비스 만점의 섹스살롱。이 곳은 要人들만이 드나들던 阿房宮이었다。이 섹스살롱의 단골 패거리들—。정치인、경제계의 보스와 외교관들중 어느 한 사람도 이곳이 바로 소련첩보기관 KGB의 끄나풀이 운영하며 그들의 깊은 속사정을 샅샅이 체크하고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

맛사지 서비스로 찾아오는 巨物級들 녹여

◇어떤 巨物이라도 넉다운

일반인은 전혀 눈치도 못챌 정도로 베일에 가려졌던「본」의 대표적인 섹스롱。어느 권력자든、어떤 재벌이든 西獨의 VIP들은 일단 이 곳에 들어가면 흐물흐물 녹아버리게 된다。

남성이 요구하는 그 어떤 서비스라도 아낌없이 서비스해주는 남성의 천국「연애살롱」은 과연 어떤 곳이며、베일에 싸인 이 살롱의 경영주는 누구일까。

최근에야 비로소 밝혀진 이 살롱의 주인은 마담 메어리라고 불리는 40대초의 여인이다。

지금도「메어리의 살롱」이란 소리를 들으면 흠칫흠칫 놀라는 장관이나 외교관、일류 스포츠맨 등이 있을것이다。

그들 모두가 소련의 첩보기관 KGB가 여기에서 盜聽장치를 갖춰 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도청사실이 밝혀진것은 수년전의 일。그동안 메어리가 빼돌린 기밀은 어느 정도일까。

마담 메어리가 있는 곳에서 자물쇠를 잠그지도 않은채 서류가방을 맡겼던 장관、회의의 짬을 틈타서 허둥지둥 달려왔던 정객들、유명한 정신과 의사、이들이 황홀경에 빠져있을 때 그들이 지니고 있던 기밀은 남김없이 밖으로 새어 나갔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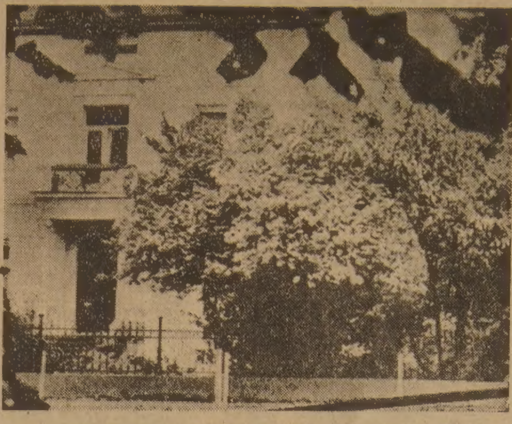
이 엄청난 일을 자행해온 메어리의 정체를 우선 추적해보자。

메어리가 20대초에 생각했던 직업은 체조치료사。이 직업을 택하려 했던 이유는 무언가 남을 돕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이럴 때에 만난 남자가 알렉산더。훗날 메어리는『알렉산더는 나의 전 인생을 엉

마담「메어리」蘇 첩보원 핏셔에 포섭 당해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서있는 마담 메어리。그녀는 한 남성을 잊지 못해 결국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쇠고랑을 찼다。


◇西獨 VIP들이 단골로 드나들던 마담 메어리의「섹스 살롱」。

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게 한 장본인』이라고 밝혔다。

금발에 푸른 눈、당당한 체격을 지닌 소련 청년 알렉산더와 메어리는 成人大學에서 처음 만나 칼·마르크스와 資本論강좌를 함께 들으며 깊은 사이로 발전해 갔다。

날이 갈수록 알렉산더는 메어리의 마음에 깊이새겨졌지만 결혼까지 골인하지는 못했다。

메어리는 그뒤 두 차례 결혼했지만 모두 실패했다。직업도 처음에는 평소의 뜻에 따라 체조치료사 생활을 했지만 30대초부터는 살롱의 여주인으로 轉身했다。

◇근육이완 서비스 대환영

장사는 순조로왔다。초창기에는 교본에 있는 그대로 손님들에게 마사지만 해줬다。

그러나 60년대부터 손님들의 화제는 섹스쪽으로만 집중됐다。의사들이 하는것과 같은 처치는 인기를 잃었고「근육이완 서비스」가 환영을 받게 된것이다。

그런 서비스는 손님들로부터 돌은 스웨덴製 마사지에서 출발했지만 차차 농도가 짙어져 아주 깊숙한 경지에까지 도달해 갔다。

이 무렵에 메어리는 14일간의 모스크바 여행을 떠났다。알렉산더의 존재를 잊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모스크바 관광을 만끽한 뒤 메어리는 알렉산더가 적어주었던 주소를 찾아갔다。

그때까지도 그곳이 소련정보기관의 본거지라는 사실을 몰랐다。

거기서 메어리는 알렉산더를 만나지 못했다。대신 영국인풍의 애교가 풍기는 피셔라는 사람의 접대를 받았다。피셔는『살롱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가、그들은 누구와 만나는가、여자 손님도 오는가、致談도 나누는가』등등을 물었다。

모스크바에서 돌아온지 며칠뒤 메어리의 살롱에는 바로 그 피셔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것을 계기로 메어리는 피셔에게 포섭돼 스파이 활동을 시작했다。

「연애살롱」에는 각계 요인들이 늘 찾아와 기분전환을 하고 가곤 했다。그들은 섹스를 돈으로 샀다。그들이「근육이완운동」(?)을 하는 수십분동안、혹은 수시간 동안에 그들이 벗어 놓은 말은 모조리 도청돼 메어리에 의해 메모됐다。

그 정보는 즉시 피셔에게로 흘러 나갔다。피셔는 모스크바에서 메어리를 만났을 때부터 메어리의 지도장교로 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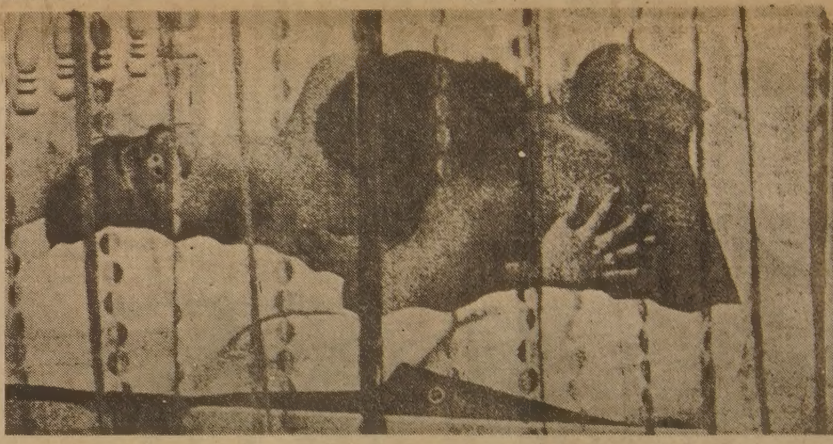
그는 메어리에게 전화를 통해 꼬치꼬치 집요하게 물어왔다。어떤 때는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마담 메어리는 전화상대방을 이해할수 없었다。편지、전화、모스크바 방문、어느 경우에도 실수 없이 스스로 중요하다고 판단한것은 빠짐없이 전하지 않았는가。

그녀는 유명인들로부터 기밀을 탐지하고、그들의 서류가방을 빼돌리고、어린애처럼 유치한 글씨로 기밀서류를 베끼기도 했다。

그것들을 모조리 피셔에게 흘려보냈다。돈 때문은 아니었다。알렉산더 때문이었다。도스토에프스키 때문에、말로 설명할수 없는 어린 시절의 꿈때문에 한짓이었다。

그[illegible] 피셔는 무엇을 바라고있는것일까。


◇「연애살롱」의 密室。여 곳에서 西獨要人들은 극도의 쾌락을 즐기면서 기밀을 누설했다。

그러던 어느날 피셔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곧 베를린으로 와서 오후1시반에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나자』는 것이었다。

그말을 듣는 순간『베를린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당신도 꼭 오느냐』고 물었다。상대방은『물론 간다』고 대답했다。

◇메어리의 고민

호텔 메트로폴의 로비—。거기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은 쿨트·욜겐스란 세련되고 체격이 당당한 남자였다。

『우리들의 친구로부터 당신을 부탁 받았습니다。』

그는 착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하면서 메어리의 팔을 잡았다。그는『우선 술을 마시자』고 했으나 메어리는 사양했다。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날 오후、東베를린의 國家公安局員인 요아힘(쿨트의 본명)은 혼자서 술을 마셨고 메어리는 밀크를 마시며 상대했다。

『내가 새로운 지도장교입니다』라는 그 남자에게 메어리는 새로운 임무를 물었다。

그러자 그는 살롱 손님의 사진을 요구했다。또 녹음기를 가져오더니 그것을 침대밑에 붙여놓고 소리녹음을 하라고 지시했다。

메어리는 처음으로 고민했다。

몽매에 그리던 알렉산더는 약속장소에서 결국 만나지 못했다。제2의 남자는 야간전화에 나타났던 피셔씨。이 남자도 갑자기 모습을 감췄다。그리고 이번은 덩치 큰 요아힘이 새로운 지도장교—。

蘇聯青年 알렉산더 사랑하다 利敵 행위

男子컨트롤 事業…오히려 男子에 농락당해

남자들에게 그녀의 인생은 휘둘려져 온것이다。여기서 그들을 제어하기란 불가능하다。

남자들을 조종하는 장사를 하는 그녀가 오히려 남자들에게 농락만 당하고 있는것이다。아연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협박당하고 있다。중지하지 않으면 안된다。그만두자。』

그러나 그 결의도 어이없게 막을 내리고 말았다。새로 들어온 여자에게 공갈을 당하게 된것이었다。

『1만마르크를 내놓지 않으면 여기서의 일을 전부 폭로하겠다』—1만마르크란 거금이 있을 리가 없었다。

5천 마르크、아니 1천마르크도 무리였다。그녀가 경영하는 본의「연애살롱」의 순익은 대단한것이 아니었다。

그저 북적대기만 한데다 북하면 샴페인만 터뜨렸을뿐이었다。또 하루 4시간 동안만 영업을 했을 뿐이었다。

전속된 여자들도 자유롭게 출입했다。

부축해진것은 현금수입뿐만 아니라 정보수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메어리는 네번째로 모스크바를 방문했다。그러나 이때 가지고 간 정보에 대해 KGB의 패거리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피셔를 만나는 것도 실패했다。

끝내는 낯선 남자에게 쫓겨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환상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에게 남은것은 알렉산더의 예정도 피셔에 대한 畏敬의 念도、러시아 문학도、러시아 음악도 아니었다。검찰청에『정보기관 에이전트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쇠고랑을 차는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메어리 결국 情報누설혐의 檢察에 쇠고랑

요즘도「본」주변엔 新種섹스 사우나등 盛業

國家機密 金庫열쇠는 오직「사랑」두글자

官廳女秘書 고급官吏와 同寢했다 證言도

「본」의 한 구석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스캔들 넘치는 거리

「본」에서 방심한 남자는 망한다。온화한 얼굴로 동반한 남자에게 어깨를 기대고 있는 아름답고 귀여운 금발의 여자。

『인간이 이처럼 추악하게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 있다고 당신은 생각하는가。』

두 사람은 버스정류장에 서서 이러한 내용의 포스터를 읽고 있었다。

포스터 내용을 제대로 소개해 보자。

『국가의 기밀금고를 열수 있는 암호는 오로지 하나、「사랑」이라는 글자다。』

포스터의 문귀는 계속된다。

『서로 만나서 알게 된다。호의를 품는다。신뢰를 갖는다。외출한다。서로 사랑한다。나의 생활을 얘기한다。화제는 개인적인 일에서 사무적인 일、비밀스런 일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예바는 24세。「본」에서 어느 하급관청의 여비서로 일하고 있다。西獨연방경찰국의 이러한 경고포스터도 그녀에게는 전연 무관한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녀 바로 옆에 서 있는 보이 프렌드가 東獨 첩보기관 요원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본」은 현재 전전긍긍하고 있다。

섹스、政治、스파이활동이 뒤죽박죽된 채 도처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번창했던 1950년대、이 연방공화국의 수도에 대해서는 유명한 두 가지 철칙이 있었다。그중 하나는『본은 시카고의 중앙묘지에 비해서 반정도의 넓이인데 죽음과 같은 정적은 그 두 배다。』또 하나는『본의 밤 생활은 기차게 자극적이다。』

이곳에서 남성을 상대하는 밤의 여성중엔 직업여성 외에 모델、「마네킹양」이라고 불리는 관청이나 의회의 여비서、여성조수、그리고 유부녀들 각양각색이다。

「본」의 인구는 약 29만명。이중 여성인구가 15만명 이상으로 남성(13만7천명)보다 많고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다。

따라서 외국인들로부터『밤이 기차게 좋은데다 값도 싸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다。

현재에도 본의 시가지 주변에는 속속 새로운「놀이터」가 생겨나고 있다。

이를테면 라인江 연안의 民家가 섹스 사우나탕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룹섹스用 클럽들도 도처에서 생겨나고 있다。

도시 근교에는 자그마한 러브 호텔들도 불어나고 있다。

그런 호텔에는 숱한 남자들이、차에 걸 프렌드를 태우고 쾌적한 주말을 즐기기 위해 몰려든다。

이런 자리에 빈번히 따라 나섰던 관청 여비서 크리스티네양(29)의 증언。

『나는 7년간의「본」생활에서 장관 2명、차관 3명과 함께 잤다。평의원이나 고급관리는 이미 수십명이 넘는다。

그들은 한결같이『샴페인을 마시자』고 전화를 걸어온다。따라 나서면 으레 가는곳이 별장식 러브호텔。그곳 바에서 술을 마시고 이어 풀장에서 수영하고 다시 방에 들어가 포르노 영화를 보고 최후에는…。』

크리스티네양은『그런곳에서 우리와 똑같은 행각을 벌이는 남녀는 수없이 많았다』고 전하기도 한다。

크리스티네와 같은 관능적인 여비서들은『자신의 파트너가 어느 장관、어느 국장이라』고 서슴없이 말하기도 한다。

그녀들의 말을 그대로 보도할 매스컴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들 여성들과 즐기면서 국가기밀을 누설시키는 정부요인들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본」의 남녀관계가 이처럼 문란해지자 이곳 상류층에서는 한두번 이혼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혼율이 높아가고 있다。

자살율도 마찬가지。알콜중독 여성들도 늘고있다。「본」이라고 하는 거리는「고독한 여성들의 거리」이기 때문이다。

금요일 오후가 되면 거리는 관청에서 퇴근하는 여성들로 붐빈다。

그들은 아파트에 돌아가봤자 남편들의 얼굴을 볼수가 없다。모두가「회의하러간다」면서 엉뚱한 여성과 주말여행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거듭되자 요즘에는『본에서 근무하면 가정은 파멸된다』는 새유행어까지 나돌고 있다。

어찌 가정뿐이겠는가。일순간의 향락에 빠졌던 남편들은 자신도 모르게 국가기밀을 누설함으로써 利敵 행위를 하고 결국은 쇠고랑을 차는 비운의 계곡으로 떨어지고 마는것이다。

자칫 방심하면 크나큰 화를 당하는 거리「본」。이거리는 이용할수 있는 상대라면 누구라도 상관치 않는다。정치권력、섹스、돈、기밀—주는 자가 있으면 받는 자가 있다。유혹에 약한 사람들이 같은 일을 되풀이하다가 망하는 죄악의 거리가 바로「본」이다。

〈白承悅기자〉

“두려움도, 편견도 없이”(Without Fear or Favor)

—토론토 한국일보의 자세—

第一共和国을 주름잡은 주먹들 (上)

豫告

實錄

李丁載 편

5·16혁명 직후인 61년5월21일 하오2시께 서울시내에서 이색 행진이 있었다。혁명 이틀만에 전국에서 잡아들인 주먹 1천2백여명가운데 서울지역 2백여명의 주먹들은 가슴에 이름을 달고 『나는 깡패입니다。국민의 심판을 받겠읍니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가지를 돌았다。그중에는 自由黨정권 怨府아래서 12년간의 세도를 누렸던 주먹들이 상당수 끼여있었음도 물론이다。李丁載·林和秀를 비롯한 鍾路4가의 정치주먹사단 얼굴은 장안 사람들에게 낯익었고、明洞·鍾路·市廳앞 일대의 주먹왕들 이름은 꽤나 들어보던 이름들이었다。그로부터 3개월이 채 못돼 혁명재판소 3심판부는 李丁載에게 혁명후 최초인 사형선고를 내렸고

2개월뒤인 10월17일 하오3시께 수감번호 45번을 달고 李丁載는 刑場의 이슬로 사라졌다。또 그 2개월뒤엔 林和秀와 郭永周가 같은날 처형됨으로써 利川의 3銃士—自由黨천하의 無敵의 트리오는 죽음의 同鄕으로 떠난것이다。MBC드라마 「제1共和國」이 인기속에 39회를 방영하고 지난주에 막을 내리면서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북돋운것중의 하나가 바로 自由黨말기를 앞두고 기승을 부린 정치주먹들의 발호인것같다。末世病的 단면이긴 하지만 정치주먹들의 생성에서 소멸때까지를 좀더 상술해봄으로써 흘러간 한 시대의 이해에 도움이 될까 한다。

利川의 3銃士·李丁載·林和秀·郭永周 自由黨政權서 12년勢道

◇7형제파 주먹사단發足

李丁載는 利川邑에서 4㎞ 떨어진 利川郡戶法面 西山里가 고향이고 郭永周는 利川邑 栗山里가 고향으로 소학교 선후배지간이다。郭의 둘째형 郭永煥씨와 李丁載가 利川소학교동기동창이어서 郭永周는 李丁載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따랐었다。

李丁載의 집안은 西山里에서 13代를 살아온 토박이자 富農으로 천석꾼은 된다고 소문났으나 그 정도는 아니고 수백석은 됐다。

李丁載는 中東高普 2년때 徽文高普로 전학했는데 교복을 입은 까까머리 학생신분으로 고향에서 열리는 씨름판을 휩쓸어 대단한 장사가 태어났다고 소문이 났었다。18살때에 이름있는 씨름꾼을 물리치고 2등을 차지해 송아지를 탔다。그때부터 씨름대회엔 꼭 참가、이후1등을 계속해 도합 상으로 받은 황소는 1백여마리나 됐을것이라 한다。전국 씨름대회에서도 3연승을 했고 36세때인 1954년엔 전국씨름협회 회장이라는 감투까지 쓰게됐다。

그는 사주팔자에 丁巳年丁巳日 두개의 丁자가 끼여있어 돌림자 載자에 丁을 넣어 丁載라고 이름을 지었다。

李는 徽文高普를 졸업하고 고향으로 가서 농사를 지었었다。그러나 농사에 재미를 못붙이고 씨름판으로 돌아다니며 놀기를 좋아했다。25세때 결혼을 했는데 그해에 李는 아버지 李容煥씨와 형을 死別하고 고향의 가산을 정리해 서울로 올라와 동대문시장에 점포 하나를 얻어 「삼양상사」라는 간판을 달았다。광목장사를 시작한것이다。해방직전의 일이었다。

장사가 시원치 않았다。게다가 시장일대의 건달들에게 걸핏하면 돈을 뜯겼다。그러던 어느날 또 돈을 뜯으러 온 건달패거리의 두목을 번쩍 들어 던져버렸다。

이때부터 건달패들은 李丁載를 「형님」으로 추대(?)했고 李는 이들의 리더가 된 것이다。

해방이후 李丁載는 동대문시장을 중심으로 청년운동에 가담했다。대한 청년단의 동대문특별단부 단장을 했다。이때 동대문특별단부의 단원은 1만여명에 이르렀다고 하며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특별단부였다。청년단부 사무실은 종로4가。좌익청년들을 잡아다가 몽둥이질을 하곤했다。

李丁載는 6·25때 피난을 못갔다。서울에서 지하생활을 하는 동안 북괴 보안대원에게 두번이나 체포됐었다。두번다 즉결처분을 당할 절대절명의 위기때마다 나타나서 그를 구해준사람은 후에 李丁載의 매부가 된 신출귀몰의 사나이 K씨。

9·28수복후 李丁載가 동대문시장을 재패해서 주먹사단을 만든후 정치에 눈을 돈 것도 K씨의 힌트와 지도에 힘입었다는게 정설이다。

아뭏든 李丁載는 해방전의 동대문시장 주먹연고권과 해방후의 청년단 조직의 뿌리를 이용해 52년에 주먹왕국을 세웠다。

주먹왕국 창설 멤버는 당시 시장일대에서 이름난 6명과 李를 포함해 7명으로 이들은 의형제를 맺고 桃園結意와 잔치를 베풀었다。장소는 장충동의 曺×承집—李丁載·曺×承·林和秀·吳×煥·高×心·金×洙·車×俊씨등이 오른팔에 묵을 뜨고 「7형제파」의 발족을 보았다。

◇妻男과 妹夫間 流血劇

曺씨는 「통뼈」라고 소문난 강 펀치로 동대문시장의 지게·리어카꾼부대를 잡고 있었다。7살때 金泉에서 상경、배우개시장(동대문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주먹이었다。

吳씨는 종로4가의 주먹터줏대감이고 高씨는 굉장한 차력사였다。배 위에 큰 돌을 올려놓고 해머로 내려치는것을 견디는 것쯤은 식은죽 먹기였고、목의 피부를 잡아당기고 거기다 쇠꼬챙이를 찔러 끼운 다음 쇠꼬챙이 양쪽에 물을 담은 바께쓰를 걸어 번쩍 들어올리는 무시무한 재주꾼。

金×洙씨는 鐵拳으로 유명했고 車씨는 유도가 4단。

林和秀는 후에(53년 가을) 한일극장 사장이 됐지만、철저한 무식장이로 소년시절을 종로4가 미나도극장(한일극장)주변을 어른거리며 조라치들의 깃대잡이를 하며 자랐다。처세엔 약고 싸움엔 독종이어서 극장 주위 곳곳에 자기만 알게 칼을 숨겨두곤 싸움때 힘에 밀리면 언제라도 칼을 뽑아 상대를 찔러 쓰러뜨리는등 미나도극장 주변의 왕초로 성장했다。주먹족보로는 우미관 왕초인 「긴또깡」(金斗漢)을 형님으로 모시는 처지였었다。

이어 李丁載는 동대문시장 상인연합회 회장이 되었고 K씨는 이사장이 되었다。처남·매부가 사이좋게 상권 권좌에 올라선 것이다。그러나 이때부터 피비린내나는 처남·매부간의 골육상쟁 드라마가 시작돼、李는 매부와 원수지간이 됐고 매부가 조종한 금호동의 정양원생들에게 몰려가 몽둥이와 장작개비로 흠씬 두들겨 맞은뒤 가마니에 둘둘 말려 내동댕이쳐진 적도 있었다。이 사건의 발단은、절단 상이군인 모임인 정양원에서 天一백화점2층에 서울에선 처음인 『평교장』을 열고 동대문시장의 주먹왕 李丁載에게 장소사용료조로 4천만환을 내놓았는데 李가 독식을 한데서 비롯됐던것。

그러나 매부 K씨는 처남 李丁載 폭행에 대해 정양원생들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3개월만에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 그 진상은 아직까지 확실히 알수 없으나 당시 『K씨가 金×鎭이를 시켜 일을 꾸몄다』는 소문은 났었다。

그 얼마 뒤 종로경찰서 T경위는 『김×진이가 6명의 특수부대원을 데리고 이정재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있다』는 정보에 따라 후암동 양부인 집을 급습했는데 이들은 총을 갖고 있었다。그러나 살의를 입증할수는 없었다。

그때부터 金×鎭과 李丁載는 사사건건 대립했다。李丁載는 金×鎭에 대한 복수의 칼을 갈며 주먹전선을 보강했다。利川에서 힘께나 쓰는 「한성깡가다」(咸모)、李×하、李×오、李×일등을 「오야붕」李의 수비대로 채용하고 용산일대의 주먹 두목 도꾸야마(洪모)등을 응원군으로 끌어들였다。

◇李起鵬—그는 단성사앞 권총저격사건의 지휘자인 李丁載를 구출해 주면서까지 정치주먹을 이용했다。

◇郭永周—그는 李丁載와 같은 고향 출신으로 순경으로 출발해 李承晩 대통령 경호책임자까지 됐다。그도 정치주먹들을 엄청나게 비호했다。

◇李丁載— 18살때부터 35살때까지 씨름을 해 황소 1백여마리를 끌어간 장사로 「주먹사단」을 창설、自由黨 권력 1人者 李起鵬의 정치가도를 주먹으로 백업했다。

李丁載 황소 1백여마리 탄 씨름 장사 52년에 東大門市場에 주먹王國 조직

◇"동×아! 총받아라"

55년1월21일 해질 무렵—「가족회의」가 비상소집됐다。「가족」은 李丁載 주먹부대의 참모와 행동대장등 중간보스를 가리킨다。

넥타이를 매고 머리에 기름을 바른 신사복 차림의 「가족들」—。장소는 명륜동4가188의 18。혜화동 로터리에서 2백m쯤 떨어진 골목의 李丁載집、널찍한 안방。

오야붕 李가 아랫목에 정좌하고 「가족」들이 좌우 두줄로 앉았다。李의 오른편에 林和秀、왼편에 曺×承、曺의 옆엔 金×彬씨가 앉고 林의 옆엔 吳×환씨가 앉았다。7형제 모두가 참석하고 金思範、李×載、권상사、이×수、이×수、이×일、돼기(張모)、柳모등 문제의 사나이들도 쭉 둘러앉았다。

李丁載의 얼굴엔 살기가 돌고 있었다。두 눈썹 사이에서 이마위로 핏줄이 굵게 솟아 있었다。

『동×이가 점점 가로가고 있어서 안되겠어。깨뜨려 버려!』

죽여버리라는 오야붕 李의 명령이 떨어진것이다。

李는 병풍뒤에서 상자를 꺼내 열고는 기름묻은 45구경권총을、9명에게 한정씩 나눠줬다。탄환 7발씩도 배당했다。

주먹들은 組를 짜서 金×鎭의 행적을 찾아 나섰다。그러나 신변의 위험을 느낀 金은 집을 이사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아 극장가 길목을 지키면서 金이 나타나길 기다렸다。

55년 1월29일 단성사와 국도극장·피카디리극장들을 군용 지프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며 金×鎭을 기다리던 8일째 되는 날 하오5시께、두대의 택시가 단성사 앞에 멎으면서 金이 내리고 7명의 부하들이 따라내렸다。

단성사에선 스튜어트·그레인저와 로버트·테일러 주연의 「형제는 용감하였다」가 상영중이었다。

헌병대 문관 특무상사 출신으로 왼손잡이 권총의 명사수인 권상사가 매표구까지 金×鎭을 따라갔다가 무슨 이유에선지 권총을 쏘지 못했다。7시20분께 영화가 끝나고 관객들이 쏟아져 나오는 틈에 섞인 金에게 접근、퍼숙의 권총을 꺼내들고 겨눈 주먹은 국도극장을 지키던 李×載였다。

李와 金의 거리는 불과 3~4m。

『동×아 총받아라!』

李씨는 첫발을 당겼다。여러 사람이 다칠까봐 하늘을 향해 첫발을 쏘고는 고개를 살짝 숙이는 金에게 제2탄을 발사、金이 쓰고있는 중절모를 날렸다。

이어 3탄을 쏘려는데 불발、불발탄을 튕겨 내는 李를 향해 金이 돌진하면서 총잡은 李의 손을 움켜 잡는 순간 「탕!」하는 소리와 함께 金은 「어쿠!」하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거의 같은 순간 金의 호위병 양×회씨가 李의 허리를 꽉 잡았지만 또 「탕!」소리와 함께 양씨도 푹 주저 앉았다。

白병원에 업혀와 치료를 받고있던 金×鎭은 이튿날인 30일아침 『이정재는 자유당의 李起鵬씨로부터 제3세력의 정계요인 40명을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았다면서 40명 명단을 나에게 보여줬다。나에게 그들을 죽이라고 살인명령을 했다。내가 그 살인명령을 경찰에 폭로했었다。그래서 이정재가 나를 죽이려한것이다』며 기자들을 불러 폭탄발언을 했다。

30일자 신문들은 1면 톱기사로 金의 발언을 실었다。정계가 발칵 뒤집혔다。

사태는 심각해졌다。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당장 李丁載에게 혐의가 씌워졌다。구속하라는 검찰의 수사지휘가 떨어졌다。

그러나 동대문경찰서 丁서장·수사계장·사찰계장등 간부들은 막강한 배후세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좀처럼 李를 잡을 생각을 못했다。李丁載를 수행하다시피 감방으로 겨우 모셔갔지만、수사검찰도 담당검사를 바꾼뒤 李를 석방했다。그동안 자유당 간부회의인 부차장회의가 세번이나 李起鵬중앙당의장의 주재로 열리고 「이정재를 살려주거라」 결론을 내려고는 검찰청에 노골적인 압력을 가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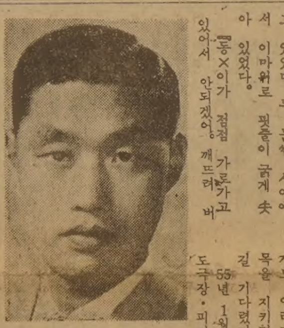
오야붕 李丁載가 V字를 그리며 서대문형무소 문을 나서면 55년2월17일 그의 주먹사단 「가족」20여명과 졸개 2백여명은 『이회장만세!』를 외쳤다。구속 18일만에 유유히 걸어나오는 오야붕은 부하들 앞에 「실력」을 과시한 셈이다。

이후부터 李丁載는 李起鵬씨를 사석에서 「아버님」이라고 불렀다。

매주 금요일 아침 7시 정기적으로 李는 李起鵬을 문안했다。충성심을 과시하기 위해 국회에서 李起鵬의장에게 욕설을 퍼부은 金斗漢의원을 국회로 찾아가 「맞서자」며 모욕을 주는등 李는 점점 정치의 늪에 깊숙이 빠져들어갔다。

한편 총잡이 李××는 살인미수로 구속됐다。그는 공판정에서 중절모만 맞히려고 총을 쏘았다고 주장、드디어는 총솜씨 테스트를 왕십리경찰무기고 마당에서 실시했다。

벽에다 담배 3개비를 붙여놓고 30m거리에서 단 세방의 실탄을 쏘아 담배를 두동강 내는 시험에 李는 서부영화의 건맨처럼 솜씨를 발휘했다。2개비의 담배는 절반만 벽에 붙어 있었고 1개비는 허리가 반쯤 끊겨 흔들리는것을 보고 판·검사는 물론 장총을 들고 구경하던 형무관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졌다。



◇林和秀—조라치 출신으로 미나도극장 주인까지 했고 7형제파 주먹사단을 만들어 당시 李丁載 다음의 중간 보스였다。

국회로 金斗漢의원 찾아가 "당장 맞서자" 차력사등 보내 금호장군 金相道씨도 눕혀

◇李起鵬과 李丁載

李丁載는 단성사 총격이전에 이미 李起鵬과 굳게 정치적인 악수를 하고있었다。

李起鵬이 52년후반기 국방장관으로 국민방위군 사건을 해결했지만 정치인으로 데뷔한것은 53년9월 자유당의 족청계 제거이후부터였다。李대통령이 자유당 수습과 재건의 大命을 李起鵬등 몇사람에게 맡기면서 李起鵬은 본격적인 정치인으로 뛰기 시작했다。

李起鵬의 정치데뷔를 「주먹」으로 백업한것이 李丁載—。네번에 걸쳐 도와 줬다。

李丁載의 최초의 정치테러는 53년12월3일 중앙청회의실에서 열린 국민회재건대회때 金相道씨를 「따통」놓은것。씨름 잘하고 주먹세기로도 이름 높은 「금호장군」金相道씨가 李起鵬과 헤게모니 쟁탈을 벌이고있는 李甲成씨를 「실력」으로 밀고있는 전국대의원회의장에 李丁載는 그의 부하인 차력사 高×心과 李×載를 행동대원으로 보내 돌멩이를 움켜쥔 주먹으로 「금호장군」을 기습、때려 눕혀 도망쳤다。

정치테러 2막은 54년1월 명동、정해루 뒤의 자유당서울시당 사무실에서였다。서울시당의장 선출을 위해 서울시 16개지구당에서 5명씩 도합 80명의 대의원이 모였다。국민회세력의 지지를 받는 李活씨와 李起鵬씨가 경쟁하는 마당에 비밀투표로는 李活씨가 압도적 승리를 하게 될것같자 李丁載는 50여명의 주먹부하들을 동원、회의실을 포위하고 주먹시위를 하면서 단상으로 뛰어들어—

『이씨이고 삼활이고 나와。이기붕선생을 시당위원장으로 모시는데 반대하는 놈이 누구야。자 거수로 투표해요』하며 거수투표를 강행시켰다。

손을 들려면 대의원은 전원 4분의1도 안됐지만 李丁載는 李起鵬당선을 확정해 버린다음 같은 식으로 부의장에 李丁載자신과 김모씨를 당선케했다。

시당 의장자리는 중앙당의장으로 달리는 정치고지였고 李起鵬은 「주먹」의 덕을 톡톡히 입은 셈이다。

李起鵬과 李丁載와 정치 악수에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은 국민회의 재정부장이고 후일 李起鵬의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H씨、그리고 자유당조직부장 朴모씨등의 소개와 추천이었다。

李丁載의 정치주먹 3막은 任興淳씨를 혼내준것。

4막은 54년11월29일에 크게 벌였다。李丁載의 진두지휘로 50여명의 검은 점퍼부대가 꾸려시위를 위해 국회의사당 방청석으로 進駐했다。이날은 사사오입 개헌안이 통과되는 날이었다。야당의 郭尙勳부의장이 단상으로 뛰어올라 崔淳周부의장으로부터 부결、번복—통과의 의사봉을 빼앗아드는등 난장판이 벌어진 속에서 李丁載주먹부대들은 야당의원들을 향해 욕설·추격전을 벌이는등 한몫을 해냈다。

이같은 대번째 정치 공로(?)가 있어 李起鵬은 단성사앞 총격사건때도 李를 구출해 줬던것이다。

◇金斗漢과 李丁載의 對決

明倫洞 李丁載의 집에선 단성사 앞 총격사건 이후 반년이 지난 7월28일밤、金斗漢씨가 경비를 서게 돼있는 「자유당창당동지간담회발기대회」를 때려부수는 작전모의가 있었다。

이틀뒤인 30일아침에 종로 예식장 근처 侍天教교당에서 2년전에 자유당에서 거세된 족청세력들이 규합하는 모임이 있는데 李丁載는 사사오입 개헌파동때 몸소 현장에 출동한 이래 이날 親征하겠다는 작전—。

李丁載는 28일에 서대문 李起鵬씨집으로 불려갔다 온 뒤에 이 작전을 진행했던것인데、중간 주먹보스들에게 『목 때려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30일 아침 실력과 배짱이 센 행동대원 12명이 쇠파이프와 재크나이프、야전도끼를 옷속에 감추고 1명의 중간보스는 권총을 감췄다。말끔한 신사복 차림의 주먹 1백20여명은 경찰이 가져다 준 대의원증을 들고 회의장으로 들어가 모두들 대의원처럼 앉았다。

상오 10시40분께 재헌의원 김철수씨가 사회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했다。尹在旭씨등 현역국회의원 6명이 참석했고 전국대의원 2백88명이 모인 자리—또 종로경찰서 T경위는 1백여명의 경찰을 대회장 주변에 배치하고 경비를 하고있었다。

사회자 김철수씨가 『초대하지 않은 사람이 이 자리에 많다。나가주기 바란다』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자유당중앙당감찰부차장이기도 한 李丁載가 벌떡 일어섰다。

『창당 동지회라니 어느정당을 말하는거냐?』고 고함을 치며 『사회는 내가 맡겠다』고 나섰다。대회장이 소란해졌다。

李는 연단으로 뛰어올라가 마이크를 낚아챘다。바로 그 순간—

『야! 정재 너 썩 꺼지지 못해!』

金斗漢의원이 큰 소리로 외치며 나타났고 소란스런 장내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짜식 까불어、니가 뭔데!』

李丁載가 삿대질을 했다。

金斗漢씨가 표범처럼 달려들었다。그리곤 李의 저고리를 움켜 잡고 오른손 주먹을 번쩍 들어 일격을 날릴 태세。

任興淳씨를 혼내주기도…

李는 재빨리 金의원의 허리띠를 오른손으로 움켜쥐고 왼손으론 어깨를 잡았다。씨름꾼에 박치기가 장기인 李는 金의원을 번쩍 들어 박치기를 할 자세。

90㎏이 훨씬 넘는 초비급 주먹왕자들의 이같은 자세는 2~3분간 지속됐으나 둘다 더 이상의 액션은 못했다。또 李丁載의 휘하 주먹들도 뛰어들수 없었다。

T경위가 중간에 뛰어들어 두 거물의 두팔 위에 몸을 던졌다。결국 이 발기대회는 유산되고 말았다。

『그때 李丁載와 金斗漢씨가 정말로 치고 받았다면 누가 이겼을까』—하고 뒷날 주먹사회에선 갑론을박 했다。

金斗漢씨는 30년대초 20세의 나이로 장안의 주먹을 제패한 강 펀치로 화신백화점 뒤에 있던 그 유명한 「오야붕」이 됐던 주먹왕。

그때는 優美館 골목을 제패하는 주먹이 최고의 실력자였다。金씨는 당대의 박치기 명수인 우미관의 舊馬賊을 KO시켰고 그후 대접 神拔를 가졌다는 新馬賊이 우미관 두목으로 군림하자 이마저 때려뉘었다。그러나 꼭 한사람 金斗漢이 넘볼수 없는 상대가 있었다。

김기환이라는 장사였다。권법이 뛰어나고 힘과 재주가 비상해 당시 南山의 神宮 3백60계단을 물구나무서기로 한계단 한계단씩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오는 모습이 마치 두발로 걷는것 같았던 호걸이었다。

『이런 김기환씨를 노리고、어느날 金斗漢은 부하 5~6명을 데리고 파고다공원 옆 2층다방에 나타난 김기환씨에게 일제의 기습을 감행했다。손에 붕대를 감고 손바닥으로 돌을 잡아 주먹을 든든히 한다음 다방 문을 나서는 김기환씨에게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날렸던것。—

그런데 金斗漢의 주먹은 벽을 뚫고들어가 벽속에 어깨까지 팔이 끼어 빠지질 않았다。김기환씨는 자기 부하들을 말리며 金斗漢에게 『에끼 이 사람、후이우찌(기습)를 하다니!』하곤 웃고 가버렸다。

벽에 구멍을 뚫리게 하는 강펀치를 인정하고들 있다。金斗漢씨는 『벽을 등지면 황소 다섯마리가 덤벼들어도 당해낸다』는것이다。뒤에서 덤비는 놈만 없으면 된다는 얘긴데、주먹말고도 金씨의 발길질은 6척 키다리를 세워놓고 오른발 바닥으로 따귀를 자유자재로 친다는 神拔로 유명하다。

이에 대해 李丁載의 실력은—。

우선 18살부터 38살까지 씨름대회에서 황소1백마리를 끌어온 장사다。상대를 번쩍 들어 메어꽂는 솜씨가 기가 찼다고한다。키는 1m70㎝가 채 못됐지만 씨름할때엔 2m장신에 40관나가는 상대를 기묘하게 넘어뜨리는 솜씨와 샌드백을 달아놓고 익힌 박치기가 장기였다한다。

◇검은양복 검정넥타이

어쨌든 金—李가 侍天敎교당에서 맞섰었는데、金씨는 54년 3대국회의원에 당선된 후로는 거느리던 주먹부대를 해산했다。이유야 어떻든 無卒之將이 된것。

반면 李丁載는 집권당 실력자 李起鵬에게 정치적 악수를 단단히 하고있는데다 동대문시장에서 확고한 경제기반을 잡고 있었다。

李丁載의 주먹부대는 정치가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주먹일도 바빠졌다。

李는 55년초 그의 주먹요원으로 권총명사수인 이×수씨를 李起鵬의 경호책임자로 들여보내고 이씨의 동생 ×수씨는 李丁載자신의 개인비서겸호위병으로 둠으로써 李起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즉각 입수할수있었다。

56년5월의 정·부통령 선거를 전후해선 李는 1주일에 두세번씩 李起鵬집을 들락거렸다。

그러던중 8월1일에 金斗漢의원이 趙炳玉의원등 야당의원 15명의 도장을 받아 「이기붕의장 사퇴권고 결의안」을 내놓는등 여·야간에 심각한 대립이 있었다。

한때 金斗漢의 부하…

金斗漢의원은 『세상은 서대문에 있는 이기붕씨 집을 뭐라고하는지 알아요! 서대문경무대라고 해!』하고 지적하고 이기붕씨를 가리켜 『병든 것이 욕심은 많아서…』하며 金씨 특유의 직선적인 바른말로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李丁載가 가만히 있을수 없었음은 물론—。

李는 삼복더위때인 8월1일하오에 검은색 신사복에 검정 넥타이로 정장을 하곤 부하6명을 지프 한대에 태우고 의사당으로 달려갔다。권상사와 Y씨가 의사당으로 앞장서 들어가는 李의 뒤를 따르고 나머지는 밖에서 대기했다。『천하의 얼굴』李는 경비원 한명을 불러세워 명령했다。

『이봐! 가서 김두환이더러 내가 보잔다고 해! 휴게실로 나오라고 하란말야。』

의원휴게실에는 趙炳玉·張澤相의원과 尹致暎의원등 몇몇 노장들이 담배도 피우고 장기판도 들여다보며 한가롭게 있었다。金斗漢의원이 들어섰다。

『야 두한아、너 정말 죽고싶어서 그러는 거야』하고 대뜸 도전을 하곤 『너 오늘 나한테 좀 맞아야겠어』하며 저고리를 벗고 넥타이까지 풀었다。

두 부하는 金의원의 양팔옆에 바짝 붙어서서 金의원의 무서운 이빨(주먹 한대)을 견제했다。

『야 이 곰보새끼야、너 왜 속썩이는거야! 나하고 당장 붙자고。죽일테야。』

李는 최고의 모욕을 퍼부었다。

金의원은 얼굴이 푸르락 붉그락 용케 참는 눈치였다。그리곤 씩의 웃으며 『아우님들 왜 이러시오』하고는 팔의 경련을 풀어버리는 기색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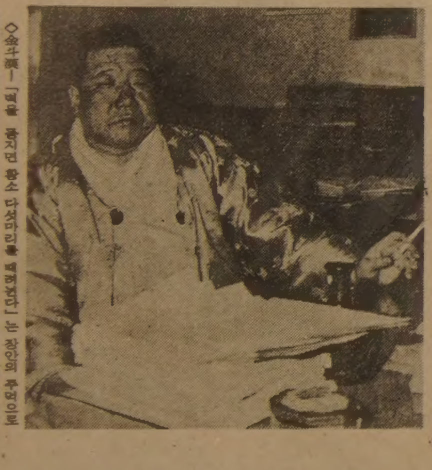
이 사건은 국회에서 곧 문제로 삼았다。국회조사단을 구성하자는 야당 결의안 까지 나왔다。

또 그 뒷얘기지만—李의 두 부하는 재크나이프를 넣고 李를 따라들어가 여차직하면 金의원을 찌를 계획이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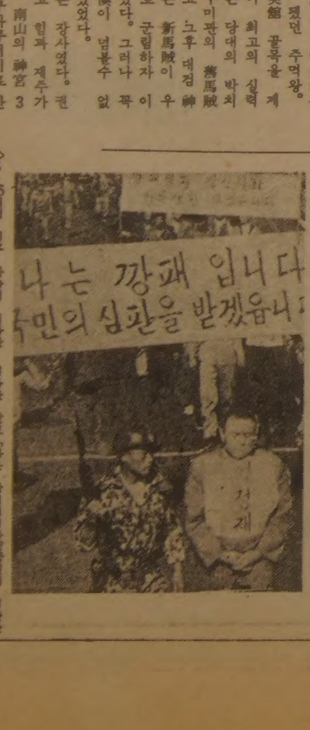
李丁載가 5·16후 처형된지도 7년이 지난 68년 어느날、金斗漢씨는 명동에서 백주를 하시면서 그때 일을 후회했다。

『체면이고 뭐고 그때 정재를 때려뉘었어야했는데、그랬더라면 정재가 정치적으로 더 성장을 못하고 나중에 생명을 잃지도 않았을거야。정재를 내가 살릴수 있었는데 참 아까운 놈이야。』

金씨는 울부짖듯 후회하면서 술잔을 테이블에 팡 쳤다。李丁載는 해방후 대한청년단시절과 그 이전반도의용정신대시절에 金斗漢의 부하처럼 일했던 인간관계가 있었다。〈계속〉〈張榮淳기자〉



◇金斗漢—「벽을 등지면 황소 다섯마리를 때려뉜다」는 장안의 주먹으로 優美館 뒷골목을 누볐던 俠客。국회의원에 당선된뒤 주먹 조직을 해산했다。



◇5·16혁명 직후 가슴에 커다란 이름을 달고 「나는 깡패입니다。국민의 심판을 받겠읍니다」며 시가를 행진하는 깡패들。맨 앞장의 「李丁載」가 李丁載다。

한국의 妓生

밤마다 合寢

글 全完吉
그림 李良友

朝鮮朝는 中國과 善隣관계를 유지하여 사신의 내왕이 잦았는데, 사신의 내왕이 잦은만큼 妓生동원이 잦아 기생이 피로하고 使行途 監營·邑의 官費 지출이 많아 弊害가 적지 않았다. 朝鮮은 中國과 달리 倭와는 交隣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중국보다는 내왕이 잦지 않았지만 역시 南行 使臣이 잦아 폐해가 적지 않았다.

❤倭使宴會

申叔舟(1417~1475)가 成宗의 王命을 받들어 撰述한〈海東諸國記〉에는 日本國을 비롯하여 九州·對馬·一岐·流球國使臣을 접대하던 관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들 나라의 국왕이나 族長의 사신이 오면 접대하는데, 국왕의 사신이 入國하여 三浦(熊川薺浦·東萊富山浦·蔚山鹽浦)에 머무르면 宣慰使가 한번, 差使員이 두번, 모두 세번 宴會를 베풀며 돌아갈때는 차사원이 한번만 차린다(추장의 사신일 경우, 두차례이고 돌아갈때 한차례다). 이들이 서울에 오는 도중에도 연회를 열어 환영하는데 경상도에서는 觀察使가 한번, 守令이 두번하며, 충청도와 경기도에서도 한차례씩 베푼다. 또 이들이 서울에 닿으면 漢江에서 환영연을 갖고, 숙소에 도착한 뒤에도 연회가 열린다. 돌아갈때도 환송연이 한강에서 베풀어진다.

宮中에서도 연회가 베풀어지는데 사신이 朝鮮國王에게 進上肅拜한 뒤에 거행된다. 禮曹에서는 따로 환영·환송연을 갖는데 예조연회는 다른 연회와 달리 妓生과 樂工이 공천이나 되고 호위병들도 30명이나 동원된다.

監營에는 보통 50명, 많을땐 5백명의 妓生이 있고
官에서 쓰는 밥그릇처럼 누구나 원하면 쓸수 있어

또 사신이 머무는 동안 名節을 맞으면 따로 연회가 마련되었다.

❤倭行使 妓宴

이처럼 倭使를 맞는 연회가 열린 외에 倭行 朝鮮使臣을 위한 연회 역시 빈번하게 열렸다.

일본 德川幕府의 八代孫 德川宗吉이 새로 즉위하여 축하사절 파견을 요청하므로 이에 응하여 肅宗 44年(1719)에 通信使가 건너갔다.

통신사 일행은 戶曹參議 洪致中이 正使였는데 製述官으로 수행한 靑泉 申維翰(1681~?)이 日記體기행문〈海遊錄〉을 남겼다. 이〈해유록〉에 사신을 위한 연회가 기록되어 있다. 즉 사신일행이 4월13일 부산에 도착했을때, 左水使 申命仁이 客舍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세 사신이 黑團領을 갖추어 입고 수사와 더불어 대좌하고 일행의 員役들과 軍官·書記들이 차례로 좌정해서 음식이 가득한 큰 상을 받고 있었다. 사신이 내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公服을 차려 입고 입참하라는 영을 내려서 나도 역시 연석으로 나아가 잔치상을 받았다. 둘러보니 경주·동래·밀양 세 고을 기생들이 풍악을 잡히고 어지러이 춤을 춘다. 거문고·피리소리가 마루를 울리고 장고와 나팔소리가 하늘에 가득하다. 섬을 가득 메운 구경꾼들은 천만명이나 되는 듯, 한바이 지나서 파했다.

그리고 17일에는 준비한 옷가지가 모자랄것 같아 급히 명주와 모시를 사다가 밀양의 한 기생을 머물게 해서 배가 떠날 때까지 옷을 짓게 했다.

그런가하면〈日東壯遊歌〉에는 잔치풍경이 더 상세하게 묘사 되어 있다. (〈일동장유가〉는 1763年 癸未通信使의 書記 金仁謙이 歌辭體로 쓴 日本紀行文임)

빈일헌 東大廳이/오히려 좁은지라/그런 장한 너른 뜰을/浮階 매어 鋪陳하고/三使相 남향하고/水使는 북향이라/우리 四文士는/서향하여 앉았으며/三房의 군관들은/우리 옆에 남향하고/譯官 良醫 寫字官은/水使 뒤에 앉아 있고/馬上才 別破陣과/典樂 吏房 伴人들은/뭇 역관 앉은 뒤에/좌우로 갈라 앉고/六船長 三執事는/馬上才 뒤에 있고/각 방의 奴子들은/뜰 가운데 앉았으니,/威儀도 整齊하고/풍류도 장할씨고./慶尙道 一道 기생/다 몰수 왔다 하네/우후로 사신부터/아래로 기생까지/實席에 도는 이는/綵華를 다 꽂았다/풍악은 佾撤(사철)하고/宴床은 드는고야/저 연상 구경하소/장하고 거룩하다/크나 큰 교자상을/네 놈이 겨우 들어/사신네 네 상이요/우리는 세 상이며/그릇 수를 얼핏 세니/한 상에 팔십이오/몸수다 傍書器요/水陸 珍饌 다 올랐다/상마다 잡다수를/다 새로 만들었다/…………/九酌 七味 다 드리고/公宴을 파한 후에 改服하고 고쳐 드니/새 宴床 또 드린다/그릇마다 紗繡이요/음식마다 一味로다/가난한 左水使가 虛費도 많을씨고.

이처럼 호화찬란한 잔치가 마련되었으니 김인겸의 말마따나 그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 그런데 잔치를 마치고 돌아오니, 「경주 기생 와서 뵈니 醉情, 醉色, 醉愛로다. 술며시 부운 정의 다 가까이 하였다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행은 [illegible] 떠나자마자 薦枕妓生 차지로 눈이 시뻘개졌다. 比安(慶北 義城郡 比安面)에 이르렀을 때의 정경을 보면 가위 웃지 않을 수 없다.

❤밤마다 合寢

從事相의 兵房軍官/色中의 餓鬼로서/서울서 떠나면서/諸驛站의/行首 戶長 호령하여/고운 紫袖 推薦하며/오히려 나뻐 여겨/내가 와 자청하되,/讒浪은 色鄕이라/날 위하여 면지 가서/일등 미인 뽑아내어/두었다가 나를 주오./此中의 第一色을/가까스로 뒤져내어/그대 차모 정하였네/오늘밤 合寢하고/네 덕으로 아으소서/들으며 웃는 입이/함지박 [illegible] 하는구나/창창히 [illegible]/하는 양 보라하고 나도 함께 따라가니/안방에 겨우 들며/사령 불러 분부하되,/『이 고을 수청 차모/어이 아니 現身하나니./급히 와 복마르니/차 냉큼 가져오라』/이윽고 현신하니/저 차모 의양 보소./쇳같은 팔은 머리/실로 땋아 마주 매고/눈꼽 지인 오뢰 눈을/해부시어 지우뜨고,/옷조롱 같은 낯이/멍석처럼 얽었구나./무명 반쯤 두동나리/귀까지 담북 쓰고,/헌 저고리 짧은 치마/연수백결 하였어라./통주 안삼월이는/에 비하면 一色이라./차 부어 손에 들고/곁에 와 조총한 제/밀살이 터졌던지/방귀 조금 뀌것구나.

美女보다 醜女 많아 심심치않게 爭奪戰 벌어지고
妓生없는 고을에선 반반한 官婢를 골라 薦枕시켜

金昌業일행을 맞는 기생들처럼 하룻밤에 너댓번씩 순회하지는 않았지만, 金仁謙일행도 아름다운 시침기생을 차지하려고 경쟁하였음을 알겠다. 기생이라하여 모두 아름답지 않았기에.

그러기에 한 기생과 부자·형제가 관계하지 않더라도 동료가 예사롭게 한 기생과 관계하였다. 말하자면 기생은 관아에 소속된 밥그릇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자 누구에게나 이용되는 그런 잠자리도구였다.

그러면 이들 기생은 누가 관장하였을까. 누가 주인인가?

❤空房과 害苦

조선의 제도상 各道의 監司들은 軍政을 兼掌하고 있었으므로 監司衙門을 監營이라 불렀다. 감영에는 기생이 보통 4、5십명, 많을 때는 4、5백명씩이나 있었는데 감영에 소속된 이들 기생을 營房裨將이 관리하였다.

만일 신임 감사가 부임하면 감영에 소속된 모든 기생이 치장하고 도열하여 맞았다. 〈춘향전〉에서 변사또가 그랬듯이 감사는 기생을 집합시켜 놓고 점고한다. 마음에 드는 기생이 있으면 수청기로 지명한다. 감사는 자신에게 侍房케 할뿐만 아니라 中央에서 官員이 오면 기녀를 선발하여 시방시킨다. 손님이 직접 점고케 하거나 감사 자신이 점고하기도 하였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귀한 손님일수록 시침으로 최대의 예의를 갖추었기에 기생이 있는 고을에서는 당연히 천침하였다. 반대로 기생이 없는 고을에서는 客참을 풀어주지 못하여 골칫거리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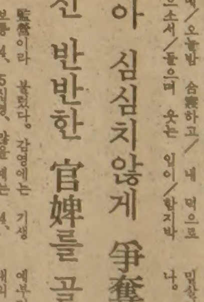
감사 宋欽(1459~1547)은 늙어서 호남방백이 되었으나 미인에 대한 생각은 잊지 못하고 있었다. 순찰하다가 기생없는 고을에 이르면 저녁에 반드시 訓導를 방안에 불러다가 나그네의 잠자리가 쓸쓸하다는 뜻을 하소연했다. 그러면 훈도가 나가서 員과 상의하여 官婢中에서 얼굴이 조금 반반한 자를 골라 잠자리를 모시게 하였다.

순찰도중 어느날 아주 궁벽한 고을에 당도하여 역시 훈도를 불렀다.

훈도는 산증(疝症)이 재발하여 顚倒하지 못하던 참이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지팡이를 짚고 가서 창밖에 엎드려 小吏를 시켜 아뢰었다. 마침

『저녁에 부르심을 받았으나 병을 앓아서 거의 죽을뻔하다가 살아나 이제야 대령했읍니다.』

그랬더니 송감사는 『훈도는 나의 병을 모르는 자도다. 저녁 훈도는 볼 일이 있지만 새벽 훈도는 본디부터 보기를 즐기지 않으니 물러가라』 하였다. 〈松溪漫錄〉



오늘날 기생은 사라지고 없지만 관습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다. 먼데서 온 손님을 맞으면 그가 친구건 아니건 젊은이건 늙은이건 술을 대접하고 女色에 취하게 한다. 어쩌다가 혼자 자게 두면 송감사처럼 푸덤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남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딴 계집, 술장을 싫어하지 않고 기꺼워하는 것일까!

君子를 자처하는 이들도 별소릴 다 한다겠고, 아내들은 출장나며 온 남편을 유도심문하여 비밀을 캐려 하거나, 목욕하고 잠자리에 들라겠다.

〈다음호에 계속〉

다양한 「實驗」 섬유美術

◇일본의 여류섬유미술가 히로미·오다여사의 작품。창호지에 전선과 직물을 배합하여 동양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있다。

○…「섬유미술」을 「군소미술」쯤으로 보는것은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다. 현대미술의 첨단을 걷는다는 미국에서도 섬유는 최근에 와서야 겨우 「미술의매체」로 인정을 받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섬유미술의 연환을 말해줄뿐 섬유미술의 가능성과는 상관이없다. 오늘날 섬유작가들은 유머, 섹스, 정치, 죽음등 어떤 주제라도 다룰수있으며 기법도 회화적인것에서 입체적인 기법으로까지 발전하고있다.

「종합디자인」1월호는「섬유미술의 가능성은 어디까지 왔나」라는 기사를통해 1920년대부터 시작된 섬유미술의 실상을 자세히 소개하고있다.

섬유미술이 태동하게된것은 1919년독일에서 섬유공예학교인 「바우하우스」가 생기고서부터. 당시 섬유업계는 산업혁명이후 대량생산기술이 계속발전하여 제품들은 품질면에서 흠잡을데가없었으나 디자인면에서는 틀에 박힌 스타일이돼버렸다.

이런 디자인의 획일성에 반기를 든 일부 섬유생산업자들은 가내공업적인 직조술로 되돌아갔으며 그것이 바우하우스의 설립으로 나타났다.

바우하우스는 화가 파울·클레등의 지도로 새로운 직조예술을 개발했으나 2차대전으로 학교가 폐쇄되자 교사들은 미국으로 옮겨감으로써 미국은 섬유미술의 중심지가 된다.

2차대전이 끝나자 섬유미술인들은 섬유미술을 보다체계화하는 한편 합성섬유와플래스틱등을 섬유미술에 응용하기 시작했다. 1949년에는 전통적인 미술전시만해오던 뉴욕의 모마미술관이 애니·알버스의 직조전을 열었다. 그러나 여기서 전시된것들은 아직도 칸막이, 커튼, 의자커버등 실용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1950년대에 들어가자 섬유작가들은 채색섬유를 이용하여 회화적인 기법을 구사하기 시작했으며 루드·아사와는 입체적인 섬유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60년대에 들어서자 버진·하베이를 중심으로한 매듭이 등장하여 다양한 조형예술로 발전했다. 이 시기는 또 비단 섬유미술뿐아니라 모든 「군소예술」들이 자기들과 전통예술을 구분하려는 추세에 반기를 들었던시기였다.

이들의 美意識은 70년대에도 계속성장하여 이제 섬유미술품은 아름다와야 한다는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실험정신을 보이고있다.

美術誌에서

美서도 최근에 藝術로 인정
聖畵의 발전과 걸작엿볼수있는 特輯도
피카소의 면모를 보여주는 連作銅版畵

○…월간 종합예술지「空間」2월호는 西歐미술에 관한 무게있는 특집을 싣고있다.

이잡지는 특집으로 유럽의 聖像繪畵를 소개하는「聖畵의 역사적발전과 그主題」와피카소의 판화예술을 소재하는 「1백56점 連作銅版畵」에의 도정을 싣고있다.

이중「聖畵…」는 26일 부터 4월2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릴 예정인「14세기~19세기 유럽聖畵展」을계기로한것으로 성화의 신학적 근본사상과 시대적변천에 따른 주제와 제작기술의 발전상을 설명하고있다.

이 성화전시회는 韓獨美術家協會가 개최한것으로 西獨의 레클링하우젠박물관과 아헨聖畵연구소가 선정한 유럽성화의 걸작들을 보여준다.

「空間」은 이중 「카산의 섬모」「선지자 엘리아의 생애를 묘사한 4장면」「聖폴로루스와 聖라우루스형제」등의원색도판8장을싣고있다.

성화는 1세기전까지만해도 미술작품으로서는 거의 무시되었으나 근래에와서 이에대한 관심이 높아져 마티스, 샤갈, 칸딘스키, 루오등의 미술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점에서 이 기획은 퍽 의미를 갖고있다.

한편 「1백56점 連作銅版畵…」는 피카소가 말기(1968~1972년)에 남긴 판화의 이야기지만 여기에는 피카소의 판화예술전반을 도판과 함께 보여주고있다.

피카소는 1899년 바르셀로나에서 처음으로 판화(아연판화)를 제작하기 시작하여 2차대전이후에는 한때 석판화에 힘을 기울이다가 1960년을전후하여 화려한 색상의 대형동판화를제작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판화이야기라기 보다는 피카소의 미술세계전반에대한 소개라 할수 있다.

◇피카소의 판화(1970년작)

海外 걸작만화

◇연습에 열중하다 보니…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IT'S BETTER THAN NOTHING.

change machine(환전기)에 1불짜리를 넣었는데 고장이났는지 95 cents 밖에 나오지 않아 기분 나빠하는 동포에게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미국인이 한말이 It's better than nothing.

문자 그대로 「없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니 비록 5 cents는 잃었더라도 한 푼도 안 나온 것보다는 낫다는 의미다。

이와 같이 어떤 것이 기대했던것보다 덜 성취되었을 때「그나마라도 다행이다」「없는 것보다 낫다」라는 뜻으로서 It's better than nothing. 을 사용한다。

직장에서 급료가 적어도 시간당 50센트는 올라갈 줄 알았는데 25센트밖에 인상이 되지 않았다고 가정하자。「그나마도 오른것이 다행이다」「한 푼도 오르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라고 표현할 때 It's better than nothing. 을 사용하면 될것이다。

가게에서 잔돈이 덜 나온 경우나 상점 같은 곳에서 거스름돈을 덜받은 경우는 short-changed를 사용하여 I got short-changed. (거스름돈을 덜 받았다) 라고 하거나, 거꾸로 The machine (You) short-changed me. 라고한다。

A : I put a dollar in the change machine, but I only got 95 cents back.
B : Oh well, it's better than nothing.
A : No, it isn't. I got short-changed!
B : Are you going to ask for your money back?
A : Sure. Who should I talk to?
B : You have to see the manager.
A : 환전기에다 1불짜리를 넣었는데 95센트 밖에 안 나오는군요.
B : 한푼도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낫지요.
A : 그렇지 않아요. 잔돈을 덜받았읍니다.
B : 돈을 돌려 달라고 하시겠읍니까?
A : 물론이죠. 누구에게 말해야 될까요?
B : 지배인을 찾아가야 할겁니다.
＊1 dollar=100 cents.
change : 잔돈.
【발음】 have to : 【해브 투】가 아니고 【해프터 : hǽftə】

I'M THROUGH WITH YOU.

한국에 있는 한 남학생이 미국여인과 pen pal로 사귀게되었다。수차례 있는실력 없는실력을 다 동원해서 영어로 미국여인에게 사연을 써보냈고 미국에있는 아가씨도 답장을 해왔다。이느날 선배에게서 얻어들은 구혼에 가까운 표현을 적어 띄워 보냈다。얼마후 답장이 왔는데 I'm through with you. 문장 하나만이 적혀있었다。

「나는 당신과 뜻이 통한다」라고 직역한 이 학생은 그후도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답장도 오지않았다。하도 답답하여 다시 선배에게 알아봤더니 I'm through with you. 란 「당신과 통한다」가 아니라 「너와는 끝장이다」「너와는 절교다」라는 내용이었던것이다。어쨌든 be through with란 「~이 끝난다」라는 숙어로서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다。예컨대 「식사를다 끝냈읍니까?」라고 하는때는 Are you through with your meal?하면 되고 또한「이책을 다 읽었나요?」라 하고싶은경우에는Are you through with this book?역시「통화를 다 하셨나요?」를 영어로옮기면 Are you through with your call?이라고 한다。이때의 대답은 Yes, I am. 이라고한다。물론 이때 Are you through?만 사용할수도있다。

A : Don't you have school tonight?
B : No. We're through for the summer.
A : What do you mean?
B : We have vacation until Septmber.
A : What's great!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all your free time?
B : I think I'll spend most of it visiting friends who I haven't seen in a long time.
A : 오늘밤엔 수업이 없으세요?
B : 없어요。여름 동안에는 없답니다。
A : 무슨 말씀 이세요?
B : 9월까지 방학입니다。
A : 참좋군요。그많은 한가한 시간에 무얼 하시겠어요?
B : 오랫동안 만나보지 못한 친구들을 방문하는데 소요하리라생각 합니다。

※pen pal : 편지를 통하여사귀는 친구。
mean : 의미하다。「이말은 무슨 뜻인가」의 바른 영역은 What's mean this word? 가 아니고 What does this word mean?이같이한다。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 (312) 966-4050
책 :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카세트 : 1권용(33불) 2권용(38불) 3권용(38불)
비디오 : BETA(60불). VHS(65불)
※U.S. 마니오더에 한합니다.

민병철생활영어
책、카세트、비디오

連載小說

스물세살의 자서전

—人間市場—

金洪信 作
崔然石 畵

(62)

지난줄거리

경찰서에서 무혐의로 나온 춘찬은 김갑산영감의 연락을 받고 달려간다。김영감은 가정의 부끄러운 사실들을 털어 놓으며 춘찬이에게 사건해결을 위해 뛰어줄것을 부탁한다。어린애 유괴사건이란 특수상황에서 김영감의 의구심처럼 춘찬이도 똑같은 심증으로 은숙이란 화교출신 여걸을 만나 같이 사건속에 뛰어들기로 작정한다。사건의 전개가 어찌될까?

김갑산 회장의 돈말 김여사의 텔실에 문제가 있다는 직감이 생겼다。그렇지 않고서는 김갑산 회장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내게 사건을 부탁하지 않았을 것 같았다。김여사는 미모의 40대 주부였다。있는 집 여자처럼 가꾸고 다듬어서 그런지 40대 여자로 보기엔 너무 젊어보였다。또 한가지 의심은 그의 사위 박실장에게도 있었다。지난번 조사할 때 그의 여성편력을 대충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은숙이에게 넘겨준 명단은 대부분 여자들 이름이었다。김여사 주변의 여자들과 박실장 주변의 여자들 명단이었다。

은숙이는 내 말뜻을 쉽게 알아들는 것 같았다。

은숙이는 바로 미행하는 일에 착수했고 나는 발 빠른 애들을 풀어 정보수집에 들어갔다。박실장 주변인물과 원한관계、사업상 대적관계 따위를 파고 들어갈 생각이었다。

김갑산 영감이 넘겨준 자료는 피상적인 것들이었다。그러나 김갑산 영감이 그렇게 신중을 굳히고 있다는 것만은 무시할 수 없었다。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사건의 깊이를 뚫고 들어갈 방법이 없을 것같았다。

은숙이에게서 온 첫번째 소식은 예상보다 빠른 진전을 엿보이게 하는 것이었다。

김여사와 가장 친한 친구인 서여사가 점심 때쯤 직접 차를 몰고 나가서 시장을 본 뒤에 어떤 술집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었다。

『밤엔 술집하고 낮엔 주간 카바레를 하는 곳이래요。따라 들어가기도 그렇고 해서 연락하는 거예요。』

『알았어요。금방 갈께요。』

나는 그곳 약도를 대충 전화로 메모한 뒤에 총알씨를 자랑하는 녀석을 태우고 달려갔다。

『주간 카바레가 뭐하는 데냐?』

녀석은 재미있다는듯이 싱글거리고 있었다。

『빤하죠。통행금지 없어지곤 장사가 더 안되니까 변태영업하는 거예요。낮장사는 외상도 없고 주로 여자들 상대니까 시끄럽지 않게 돈 벌수 있거든요。』

『주간 카바레가 많잖아?』

『불법이죠。본래 낮엔 할 수 없어요。』

『그럼 낮엔 주부들 상대로 열어 놓는 거냐?』

『그런 셈이죠。낮 두시부터 시작해서 여섯시나 일곱시면 끝나요。춤추고 싶어 몸이 달아오르는 여자들이 잠깐씩 다녀가는 거죠。시장보러 가는 시간이고 남편 회사 있는 시간이니까 안성마춤이죠。』

『사내들은 밤에、여자들은 낮에… 저 공평해서 좋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가보면 알아요。너무 공평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여자들도 그 모양이란 말이냐?』

『한술 더 뜰 걸요。형도 이 담에 장가 가면 형수씨 감시 잘해야 돼요。춤바람 난 여잘 믿느니 차라리 바람난 암캐를 믿는 게 낫죠。』

『너 춤추러 다니다 그 재미토 다니는 모양이구나。』

『용돈 타쓰고 재미보고 사랑받고 그런 거죠 뭐。』

『그거 알쪼구나。』

『바람 난 여잔 못 말리게 돼있어요。』

나는 피식 웃었다。그런 여자가 몇명이나 될라구。대개의 주부들은 사는 일에 바빠서 그런 게 있는 것조차도 모를 것이기 때문이었다。여유 있는 예편네들의 바람기야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었다。

하긴 동물 가운데 절정의 쾌감을 아는 건 여자 뿐이라는 말도 있긴 있었다。한번 그런 쾌락의 늪 속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게 여자의 육체적 구조인지도 모른다。

은숙이는 어두컴컴한 홀 안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갔다。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처럼 시끄럽거나 소란한 곳이 아니었다。부드러운 음악、감미로운 음률、차분하지만 음란해 보이는 쌍쌍、어딘지 음습하고 끈적끈적해서 음란서적을 보는 기분이었다。

『저 여자예요。실크 원피스 입고 팔찌 낀 여자 있죠。곱슬머리하고 춤추는 여자 말예요。』

『우리 은숙씨도 한바퀴 도시지 그래요。감미로운 음악에 맞춰서。』

『사람 잡지 마세요。』

우리는 무대로 나가지 않은 채서

절정의 쾌감을 오직 女子만이 안다는 사실을 알고있어
닳고 단 사내보다 너같은 애숭이가 더 좋은걸 어떻게해

여사의 거동만 살피고 있었다。서여사와 곱슬머리는 흐느적거리며 돌고 있었다。색서폰 소리가 귀와 심장근처까지 간들어지게 했다。

『선생님、저 분이 한번 추시자는데요。』

나비 넥타이 맨 사내가 한 여자를 가리키며 내게 말했다。나는 고개를 흔들다 말고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그녀는 웃고 있었다。술이 취했는지 손바닥을 펴서 키스하는 시늉을 했다。

『형、한번 짜봐요。이런 곳 생리를 알려면 부딪치는게 최고죠。』

내 호기심이 슬금슬금 일어서기 시작했다。

『장춘찬 사람이 되게 겁내네요。』

은숙이가 아까의 복수전을 펴고 있었다。네타이 사내가 내 팔을 잡고 사정했다。

나는 일어났다。은숙이가 박수를 쳤다。불빛은 어두웠다。검붉은 조명속의 여자는 30대 중반인듯 싶었다。그녀는 내 손을 잡고 무대로 나섰다。음악은 여전히 색서폰 소리가 팔이 섞인 흐느적거리는 것이었다。

『처음에 왜 싫다고 했죠?』

여자가 물었다。손바닥 감촉이 보드라왔다。물빨래나 하고 설겆이나 하는 주부는 아닌것 같았다。몸매나 차림새가 여유있어 보였다。

『그냥 그래 봤어요。』

『숙맥은 아닌 것 같은데。몸도 좋아 보이고。여러 여자 울렸겠어。』

여자의 허벅지는 부드럽지만 악착같이 내 허벅지 사이로 밀고 들어왔다。아랫도리가 팽창하는 걸 느꼈다。그녀에게선 향수 냄새가 났다。가슴의 볼륨은 내 가슴 끝에서 며 출렁이고 있었다。내 어깨를 움켜쥔 손이 잠시도 쉬지 않고 들까불고 있었다。

『아줌마를 울려도 돼요?』

나는 능청스럽게 말했다。여자가 내게 더 밀착되면서 귀가에 뜨거운 입김을 쏟아부었다。

『벌써 뜨거워지면 어떻게 해。너무 건방지다。』

그건 내 아랫도리의 촉감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나는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아저씨한테 걸리면 뼈도 못추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출장갔어。내 세상이지。』

『난 아직 장가도 안갔어요。』

『싱싱한 게 좋잖아。』

『그래도 쬐끔 죄스러운데요。』

『어차피 죽으면 썩을 몸。이 재미라도 있어야지。안 그래?』

『첨이라、좀 두려워요。』

『걱정 마。내가 가르쳐 줄께。』

그녀는 흐느적거리고 있었다。몇곡을 쉬지 않고 추었지만 자리로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그녀의 행동은 점점 대담해져서 내가 못견딜 정도였다。

『이러지 마세요。못견디겠어요。』

『다 알면서 왜 이래。그럼 나갈까?』

『어딜요?』

『요 앞에 따근따근한 방 있어。애들보구 잡아놓으라면 돼。』

그녀는 노골적으로 나왔다。내 귓부리를 잘근잘근 깨물기도 했고 허리에 힘을 주며 매달리기도 했다。

『대낮에 어딜 가요。』

『난 낮에 더 뜨거워。나한테 한번 빠지면 나없이 못살걸。』

『하필 왜 나를 골랐어요?』

『네가 제일 젊어서。』

『젊은 사람들 많잖아요。』

『우린 닳고닳은 사낸 싫어해。너같은 애숭이가 좋거든。』

나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너무 대담하게 나오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었다。나는 그녀의 손가락 놀림으로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이놈의 욕망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내 욕망은 치솟기 시작했다。그녀를 따라가고 싶었다。완숙한 육체의 잔치를 지켜보고 싶었다。이런 여자들의 쾌락극치점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었다。아니 나도 그녀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세상을 즐기며 살고 싶었다。

다혜도 결혼하면 이 여자처럼 변할까? 이렇게 몸부림치는 완숙한 육체를 갖게 될까?

하나님。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 여자를 따라가서 즐기고 싶습니다。내가 아니더라도 이 여자는 어떤 사내든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하나님、간음한 여자에게 한 말이 있죠。죄없는 자가 있으면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입니다。

참 해외토픽을 보니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그의 자손들이 지금도 유럽지역의 귀족으로 행세하고 있다고 어떤 사람이 떠들고 있더군요。

아이 귀여워라 그렇게도 급해、좀 있다가 이뻐해 줄께
어디다 대고 수표장이야·내가 사내 기생충인줄 알아

물론 헛소리겠지만 그걸 읽을 때 느낌은 사람이란 할 수 없겠구나 싶데요。

하나님。저 여잘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춤바람 난 여자를 믿느니 차라리 바람난 암캐를 믿으라더군요。

주간 카바레라는 곳을 눈여겨 보세요。낮엔 남자가 기생노릇하며 여자가 남자를 데리고 놀지요。밤엔 남자손님이 여자를 데리고 노는 곳이고 말입니다。춤이란 건 사교의 한 종목인데 우리나라에선 춤을 배웠다하면 어째 그리도 숭하고 음탕해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통행금지 풀리면 젊은 사람들 날장판 벌이고 여관이 팍팍 들어찰 거라고 믿으셨겠죠。그런데 보신 소감이 어떠셨나요?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어쨌든 저 여자는 내가 해결해 주는 수밖에 없겠지요。눈 흘기지 마시고 봐 주세요。나도 사내란 말입니다。욕망도 있고 쾌락도 알고 즐기는 게 얼마나 좋다는 것쯤은 안단 말입니다。

여자는 술값을 치르고 일어섰다。나는 은숙이에게 눈짓을 보내 서여사를 잘 지켜보라는 시늉을 했다。옆에 앉아 있어야 할 녀석은 벌써 다른 여자를 끼고 돌아가고 있었다。은숙이가 입술을 비죽 내밀었다。

『잠깐、화장실에 갔다올께。』

그녀는 핸드백을 아무렇게나 걸친 채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다。밝은 곳에서 봐도 세련된 용모와 맵시였다。다만 그녀의 몸 전체에서 풍겨 나오는 음습한 요기는 부정할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화장실로 들어갔다。작고 아담한 화장실이었다。문고리를 안으로 잠근 나는 여자칸을 노크했다。안에서 여자의 소리가 들렸다。잠깐 서있었다。거울 속의 내 얼굴은 장난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왔다。밝은 불빛에 비친 그녀 얼굴은 귀부인 냄새가 났다。

『왜 따라왔어 귀여워 죽겠네。그렇게 급해?』

그녀는 내 볼을 어루만졌다。내가 아무말 않고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내가 많이 많이 이뻐해 줄께。』

그녀는 용감하고도 용감하게 내 바지를 만졌다。

나는 그녀를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그녀의 눈이 갑자기 커졌다。나는 그녀를 변기 위에 앉혔다。뭐라고 말할 틈을 주지 않고 따귀를 올려 붙였다。

『왜? 왜、왜 이래?』

다급한 목소리였다。입을 막았다。그녀는 꿈틀거렸다。

『잘 들어。소리 지르면 변기 속에다 거꾸로 처박을테니까。』

『그、그렇게。왜 이러는 거야?』

작은 목소리 속엔 공포로 떠는 숨소리가 들어 있었다。

『네 이름 뭐야?』

『저、이거 봐요。우리말로 해요。이것 좀 놔줘요。살려 줘요。』

『이게 어디서 사람 놀리고 이래。핸드백 열어 봐。』

그녀는 핸드백을 열었다。집주소나 이름 따위를 알수있는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름、주소、남편、전화번호 빨리 빨리 대。그렇지 않으면 처박아 버릴테니까。』

그녀는 머뭇거리고 있었다。나는 변기속에다 그녀를 거꾸로 처박았다。그녀는 물을 들이킨 뒤에 무릎을 덥석 꿇었다。그녀의 손엔 수표 석장이 들려 있었다。

『이것밖에 없어요。용서해 주세요。다시는 이런 짓 않을께요。』

물을 뒤집어 쓴 그녀의 얼굴은 참담해 보였다。

『이년이、이게 어따대고… 집어넣지 못해? 내가 제비족인줄 알아? 내가 사내기생충인줄 알아 이년아。』

『제발、아저씨 제발。』

그녀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나는 그녀의 따귀를 사정없이 올려붙였다。

『다시 이런데 나다니다간 진짜 맛을 뵈줄 거다。우리 애들이 좌악 깔려 있으니까 알아서 해。네 남편이고 나발이고 죄다 불어댈테니까。』

『다신 안그래요。정말예요。』

물 묻은 손으로 싹싹 빌고 있었다。나는 준비해 가지고 다니던 소형 카메라를 꺼내 그녀의 얼굴을 찍었다。그녀는 체념한 듯이 눈을 감았다。

『정신 차려。남편이 목에서 피가 나도록 벌어들이는 돈 가지고 이 지랄 머 했다간 그땐 국물도 없어。알아?』

『예에、정말 다신 안그래요。』

나는 문을 열어주었다。그녀는 수도꼭을 틀었다。나는 수건을 벗겨내어 그녀의 등에 걸쳐 주고 나왔다。

하나님、좀 지나쳤나요?

저런 여자들이 많아요。하나님도 그냥 눈감고 모른체 좀 하지마세요。중동지역에 돈 벌러간 남편은 사우나탕의 열탕 같은 속에서 악다구니 써가며 돈을 벌고 있어요。그리고 더 많은 남편들은 직장에서 상사 눈치봐가며 마누라 눈치 살펴가며 돈 버느라고 허리가 휘어가고 있어요。

저런 여자는 물론 소수겠죠。저런게 남녀평등은 아니잖아요。사내들은 편리하게 여자사냥하는데 여자라고 남자사냥하는 거 말릴 명분이 없다 이겁니까?

그럼 사내들 재미보는 걸 막아버리면 되잖아요。창녀촌 없애고 여자있는 술집 없애고 마사지 걸이나 여관집에 불러가는 여자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내들이 강간、겁탈죄를 저질러서 사회가 더 요지경이 된다、이 말인가요?

방법이 없다고 발뺌한 배짱뿐이겠죠。참 좋은 배짱 가지셨읍니다。

자리로 돌아오자 은숙이가 나를 흘겨 보았다。

『벌써 해치우셨나부죠? 그 솜씨 좋은 실력으로。』

나는 짤끄럽게 웃어주었다。그리고 소곤거려가며 조금 있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여자가 어떻게 물벼락을 맞았는지 설명해 주었다。

『그래도。그건 지나쳤네요。연약한 여잔데。남자제비족들은 가만 놔두면서 말예요。여자증오병에라도 걸렸나부죠。』

『그랬나봐요。』

아직도 서여사는 나갈 생각이 없는지 곱슬머리와 맥주잔을 기울여가며 조잘대고 있었다。

『남편은 아니겠죠?』

『웬일로 갑자기 순진해지셨을까? 저렇게 요염하게 구는 아내와 저렇게 공개적으로 음탕한 남편이 어디 있어요。』

『난 장가를 안가봐서 몰라요。』

은숙이는 입을 막고 웃었다。

『저 여자 보세요。』

은숙이가 서여사를 가리켰다。나비 넥타이 맨 사내에게 귀엣말을 주고 받는게 보였다。

『내가 나가볼께요。잘 지키고 있어요。저 녀석 먼지 말고。』

나는 나비 넥타이의 사내 뒤를 따라갔다。카운터에 가더니 전화를 걸어 조용한 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서여사가 술값을 내고 밖으로 나갔다。은숙이가 서여사 뒤를 따라갔다。나는 택시 잡는 사람처럼 길거리에서 서성거렸다。10분쯤 뒤에 곱슬머리가 나왔다。여자가 걸어간 방향으로 어슬렁거리며 걸어가고 있었다。

『저거 제비처럼 생겼는데요。한방 먹일까요?』

『냅둬라。』

우리는 사내를 따라갔다。공원길을 끼고 걷던 사내가 약방에 들어가 피로회복제를 한병 마시고 나왔다。제일여관이란 간판이 붙은 집으로 거침없이 들어갔다。담배집에 숨어 있던 은숙이가 손가락으로 여관을 가리켰다。나는 뒤따라 들어갔다。주인인듯한 여자가 반갑게 맞아주었다。만원짜리 한장을 내밀었다。영문모르고 서있는 여자에게 귀엣말로 말했다。

『금방 들어온 곱슬머리 어느 방요?』

『어디서 나오셨는지요?』

『그건 알 거 없소。어서요。』

『그래도 어디서 오셨는지…』

『척 보면 몰라요? 이거 왜 이래요。당신 손해보지 말라고 돈까지 주는거요。』

『저쪽 끝방…』

그녀는 3호실을 가리켰다。나는 조심스럽게 방문 앞에 섰다。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남자 소리는 이런 경우에 들리지 않는 게 이상했다。

<다음주에 계속>

무슨 광고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성심껏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한국일보광고국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렌.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가게 캐쉬어 또는 헬퍼 구함
☎ : 651-3365

"경험있는 스토아 캐쉬어 구함 : 금, 토, 일 오후 4시~11시까지, 로렌스×더프린지역)
☎ : 239-7267 MRS. 신

레스토랑 남자 헬퍼구함 :
☎ : 486-1112
프랑소와 OR MR. 정

토요일, 일요일에 일하실 여자분
캐쉬어 구함(12시부터 오후8시까지 근무)
다운타운지역 ☎921-0624

접시 닦을 분과 주방일 도우실 분
한 국 관 ☎ : 536-0290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1220 DAVENPORT AVE.
☎ : 656-3020

매주 일요일 FULL TIME 가게 헬퍼구함
킹스톤×빅토리아 파크
☎ : 699-9909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경험있는 캐쉬어구함
제랄드×콕스웰
☎ : 465-6885 미스타 유

• 매니저 또는 후렌차이스 매니저 구함.
☎ 624-5817

경험있는 풀타임 재봉사 2명구함
☎368-2819 (Mr. Wong)

경험있는 주말헬퍼 구함
다운타운 지역
☎ : 923-4354

식자기술 배우실분 구합니다.
☎ : 533-2364(미스. 박)

치과에서 일할 RECEPTIONIST 구함.
영어와 한국어를 할수 있어야함.
☎ : 535-2798 233-9454
781-9581(저녁)

구 직

아기 정성껏 보아 드립니다.
346 WESTON RD. (ST. CLAIR)
☎ : 763-3289 장 영 동

입주해서 아기 성의껏 보아드리겠읍니다.
50세,
☎ : 438-7198

가게등 각종사업체 운영해드림. 수퍼마켓, 무역회사 부동산업 소유 운영했음. 캐나다에서 대학졸업 신원확실, 성실, 입주가능 ☎449-1913(오전11~2시)

매매및 양도

"꿀"팝니다(토종꿀과 로얄젤리)
30 DEWSON ST.(오싱톤×칼리지)
반드시 영어로 문의하실것 ☎ : 534-0563

바쁜지역의 버라이어티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연매상 $200,000
Call Cliff or Joe, ☎ : 763-5161
Cimerman Real ESTATE LTD.

WHITBY북쪽지역의 하드웨어 스토아 급매.
☎ : 1-655-3831, 또는 서신연락처
P. O. BOX 101 BROOKLIN ONT. LOB 1CO

하드웨어 스토아 급매(던다스×더프린)
☎ : 536-3826 7 : 00PM까지
656-4686 7 : 00PM이후

한글타자기 구합니다.
☎ : 364-2385 MR. 김

집안사정으로 급히 버라이어티가게 팝니다.
렌트 $570(월) 리스 5년 + 5년
주매상 $5.200 ☎298-7635(Mr. 정)

A. E. LEPAGE LTD.
☎ : 741-9170 미세스 우

①카페테리아(테이크 아웃 비지네스)
주5일간 오픈, 주매상 : $6,000
가격 : $230,000, 리스 : 12년

②SMOKE & GIFT SHOP.(전망좋고 시간짧은 사무실 빌딩 안)
주5일간 오픈, 가격 $75,000
리스 : 6년+5년
여자 혼자서도 운영 가능

③SUBWAY통로에 위치한 COFFEE, NUTS, CANDY SHOP
가격 : $42,000, 월매상 : $7,000~$9,000
리스 : 3년+5년+5년

④그로서리 스토아(SHOPPING CENTRE내)
년매상 : $840,000, 가격 : $330,000
리스 : 1990년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가격 : $40,000
☎ : 1-579-4507

3베드룸 살림집 포함한 버라이어티 밀크스토아 급매
주매상 $3500, 리스 3년반+옵션5년,
2517 Eglinton Ave. W.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낵·바, 드라이 크리닝을 겸해 할수있는 상점, 살림집 포함. (베더스트×로렌스)
오전10시~오후8시 ☎ : 783-0134

성업중인 스토아 급매합니다
아스킹 $79,000+스탁
☎ : 633-7222 다운스뷰 에어리아

아파트 안에(500여호) 위치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6,500, 오후6시 이전 연락바람
☎ : 1-519-453-0420

기막힌 투자전망 좋은리스
햄버거 샾과 도너츠 샾(오샤와지역)
☎ : (1)~668-5868(B), (1)~668-2484(R)
Mr. Charles B. Rycraft
D. W. Mcquay Realter

그로서리와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 $3,000 렌트 : $515 (전기포함)
☎ : 694-7848

세탁물에다는 표를팝니다(1~8번)
노란색(Dry & Laundry용)
오후4시~8시반 ☎ : 742-2092(Mr. Kang)

그로서리 포함된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관심있으신분 연락바람
☎ : 844-6741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가격 : $20,000+스탁, 비데오 머신도 있음.
1430 Dundas St. W. (Gladstone 코너 :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가정형편상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크리스티 × St. Clair)
☎ : 656-5358

이익높은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위치 : Queen St. E.
아스킹 : $129,000+스탁
9.5% First Mortgage, 1994
☎ : 461-0225(Peter Tong)
Atwood Hou Real Estate LTD.

하우스 렌트

가구달린 1 Bedroom 3개월간(3, 4, 5) 세놓음
DON MILL지역 월 $300
☎ : 225-2077

DUPONT + DOVERCOURT
사무실 렌트합니다.
(300sq. ft. 의 사무실과 500sq. ft. Reception Space가 있음) 한국일보사내 2층.
문의처 : 533-2364 미스 박

미 용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킴 스 미 용 실 (코리아하우스 뒤)
☎ : 532-7094(B), 248-2437(R)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 : 534-1085 김 춘 탁 619 BLOOR ST. W.

60 MINUTE PHOTO LAB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323
50 BLOOR ST. W. ☎ : 967-7121

새 한 칼 라 현 상 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VIDEO 촬영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시설및 수리

목공소 **FineWoodwork** 570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김부원
☎ : (B)245-5544(PAGING)2790, (R)255-2161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용

에어콘·히팅·냉장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 : 221-5441
미스타 이

PEOPLE'S
(상업용, 가정용 냉동기)
499-1203
미스타 원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파티드레스··웨딩드레스·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운전학교

오 행 근 운 전 학 교
423-3035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 INVENTORY —
①STORE인수, 인계 INVENTORY
②STORE정기조사 INVENTORY
③STORE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 : 259-5822, 255-8301(B), 252-2963(R) MR. 오

자동차수리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532-3946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전기덕

ROGERS GARAGE(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 : 651-9324(B), 226-5430)R)

꽃 집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8719(R) 허소피아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85 님파·김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 안)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42-5194(여정용)

태 권 도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
1965 WESTON RD. (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뜸
700Ontario St. #517(St. Jamestown)박영숙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치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는 CASH이상 환영.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촤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 : 960-5736(B), 844-0178(R)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 : 273-7300 MISSISS.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 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INCOME TAX PREPARATION ☎ 239-6802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745-6792(Mr. 우)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 : (B) 752-3111, (R) 298-2546

D. F. McALLISTER R. E. LTD.
투자 전문(IC & I)
(B)497-0600. (R)298-8558 김시성

기 타

브랜든 운동구점(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취급
337 BLOOR ST. W. ☎ : 598-3732 이 건 영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래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O'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